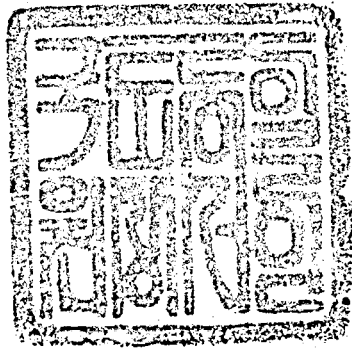


〈南北對話와 關聯한〉

國內外 主要動向 日誌

198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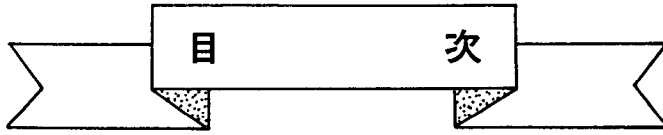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本 冊子는 1989年 한해 동안 國內主要日  
刊紙에 掲載된 統一政策 및 南北對話와 관련  
한 主要動向을 日誌化한 것으로 統一對話政策  
開發 參考資料로 活用하기 위해 發刊한 것임.







目 次

|        |     |
|--------|-----|
| 1月 動向  | 3   |
| 2月 動向  | 25  |
| 3月 動向  | 43  |
| 4月 動向  | 65  |
| 5月 動向  | 83  |
| 6月 動向  | 97  |
| 7月 動向  | 119 |
| 8月 動向  | 139 |
| 9月 動向  | 157 |
| 10月 動向 | 179 |
| 11月 動向 | 207 |
| 12月 動向 | 233 |



# 1 月 動 向



| 日  | 字   | 主 要 內 容                              |
|----|-----|--------------------------------------|
| 1月 | 1日  | 盧泰愚大統領, 新年辭 발표                       |
| 1月 | 1日  | 政府, 연내 盧泰愚-金日成會談 실현 목표               |
| 1月 | 1日  | 金日成, 新年辭 발표                          |
| 1月 | 4日  | 政府, 北韓産 명태 반입 허가                     |
| 1月 | 5日  | 蘇政治評論家, 南北交叉承認 前提條件으로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 主張 |
| 1月 | 5日  | 韓·蘇交流 북한서 양해                         |
| 1月 | 5日  | 政府, 南北韓 이을 交通網 만들 예정                 |
| 1月 | 6日  | 노인단체 「은초록」, 남북노인 민속공예품 전시회 제의        |
| 1月 | 7日  | 民主黨, 統一方案 발표                         |
| 1月 | 7日  | 北韓, 재미동포와 합작은행 설립                    |
| 1月 | 8日  | 북한예술품 부산 입항                          |
| 1月 | 10日 | 反共教育, 統一教育으로 전환                      |
| 1月 | 10日 | 政府, 南北韓 化學武器 포기 제의                   |
| 1月 | 12日 | 政府, 南北韓 체육교류 적극추진                    |
| 1月 | 12日 | 北韓, 韓國産 컬러TV 5만대 주문                  |
| 1月 | 14日 | 北韓, 한국 기자에 컷 「取材비자」 발급               |
| 1月 | 17日 | 北韓, 南北總理會談 豫備接觸 수락                   |
| 1月 | 17日 | 言勞聯, 남북언론인 교류 제안                     |
| 1月 | 17日 | 統一院, 남북한간 「3通協定」 추진                  |
| 1月 | 17日 | 北韓, FM방송 새 對南攻勢                      |
| 1月 | 17日 | 政府, 북한물품 무분별 반입 규제                   |
| 1月 | 17日 | 盧泰愚대통령, 年頭記者會見                       |
| 1月 | 19日 | 大韓醫學協會, 북한에 의학교류 제의                  |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1月 19日 | 北韓, 남한 古考·民俗學者 초청              |
| 1月 20日 | 「금강산 개발」안 72년에 극비 마련           |
| 1月 21日 | 大韓教聯, 남북교사교류·수학여행 추진           |
| 1月 21日 | 全大協, 북측에 평양축전 참가 답신            |
| 1月 21日 | 全民聯, 汎民族大會 개최 수락               |
| 1月 22日 | 鄭周永氏, 訪北出國                     |
| 1月 23日 | 全民聯, 농산물 교역 북한에 제의             |
| 1月 24日 | 美紙, 韓國內 軍縮機構설치 보도              |
| 1月 25日 | 駐韓美軍 작전권 이양문제, 韓美 양국서 합동 검토 작업 |
| 1月 25日 | 韓赤, 北赤에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
| 1月 26日 | 美, 北韓과 외교접촉                    |
| 1月 27日 | 「南北交流協議會」 정식발족                 |
| 1月 27日 | 북한 병력 1백만 돌파                   |
| 1月 29日 | 南北韓 경제각료 첫 회동                  |
| 1月 29日 | 農民運動聯, 남북농민회담 제안               |
| 1月 31日 | 북한, 허담명의 편지 정치인·재야에 발송         |
| 1月 31日 | 북한, 韓·美·日 합영대상 거부              |
| 1月 31日 | 蘇학자, 한국 북방정책 긍정 평가             |
| 1月 31日 | 南北學生交流委 발족                     |

<1月 1日>

盧泰愚大統領, 新年辭 發表

- 노태우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 盧泰愚大統領은 新年辭를 통해 「새해는 우리 민족사의 소망인 민주, 번영과 통일을 이루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남북한을 차단하는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통일의 전기를 이룩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음.

<1月 1日>

政府, 年内 盧泰愚·金日成會談 實現 目標

- 정부는 금년하반기중 盧泰愚大統領과 金日成 북한主席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 민족 문제해결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것을 새해 최대의 국가목표로 설정, 외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음.
- 정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중 우리 경제인들을 필두로 한 각계 인사들의 활발한 訪北을 추진, 남북한 직교역 합작투자 및 합작개발, 경제협력등 실질교류를 적극 성사시켜 남북정상회담 실현의 여건과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음.

<1月 1日>

金日成, 新年辭 發表

- 북한 金日成은 年例的인 新年辭를 통해 남북대화및 통일문제와 관련, 南北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가까운 시일내에 열자고 제의했다고 東京에서

청취된 北韓관영 중앙방송이 보도했음.

- 金日成은 新年辭에서 韓美年例 軍事合同訓練인 팀스피리트의 중단을 다시 촉구했음. 또한 그는 종전의 「고려연방안」이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고 南과 北의 지도급인사들이 「다무적인 회담」뿐 아니라 「쌍무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1月 4日>

政府, 北韓産 명태 搬入 許可

- 북한산 명태가 2月初 국내에 반입될 예정임.
- 상공부는 4일 三星物産의 북한산 냉동명태 1천t의 반입신청을 허가했음. 이는 87년 10월 7일 정부가 南北물자교류 추진대책을 발표한 이래 최초의 북한산 물자에 대한 반입허가로 南北韓 물자교류를 확대·촉진하는 획기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 <1月 5日>

蘇政治評論家, 南北交叉承認 前提條件으로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 主張

- 소련정부기관지 이즈베스티야의 정치평론가인 알렉산드로 보빈씨는 3일 남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남북간의 關係를 正常化시켜 국제사회에 함께 참가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交叉承認을 상정할 수 있다며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한의 유엔同時加入을 주장했음.



<1月 5日>

韓·蘇交流 북한서 양해

- 북한은 한국과 소련이 경제적으로 교류를 갖는데에 대해 이를 반대하지 않고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련 외무성 대변인인 게라시모프 정보국장은 「작년 연말 북한을 공식방문한 세바르드나제외상이 金日成에게 韓·蘇간의 경제교류를 설명, 양해를 얻었다」고 말했다.

<1月 5日>

政府, 南北韓 이을 交通網 만들 예정.

- 정부는 南北韓 긴장완화와 궁극적으로는 南北통일에 대비해 韓半島 전역을 대상으로 한 국토이용 종합개발계획을 마련, 3차(92~96년)국토개발계획에 반영키로 했음.
- 특히 이 개발계획은 南北韓간에 끊어진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를 복구, 필요시 즉각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통망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정부는 이외에도 金剛山·雪嶽山·平和의 댐 등 東部 山嶽地域을 觀光地域으로 공동 개발할 수 있는지의 타당성 여부도 조사할 계획임.

<1月 6日>

노인단체 「은초록」, 南北老人 民俗 工藝品 전시회 제의

- 歷史의 전통과 향기가 서려 있는 우리의 民俗 手工藝品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민족의 얼과 동포애를 재확인해보는 기회를 갖자는 목적으로 노인단체 '은초록'이 북한쪽에 「남북 노인 민속 수공예 솜씨 축제」를 열자고 제안했음.

<1月 7日>

民主黨, 統一方案 發表

- 민주당은 남북한 쌍방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면서 국가연합 형태의 협의기구인 한민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민족 연합체」란 당통일정책을 발표했다.
- 民主黨의 朴寬用 의원은 民主黨의 合同세미나에서
  - 비정치적 교류와 정치협상의 병행추진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 부총리급 각료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민족위원회 구성
  - 장기적으로 1민족 1체제 1국가 방식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이라는 원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月 7日>

北韓, 在美同胞와 合作銀行 設立

-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은 在美교포등 해외교포자본으로 은행, 개발회사, 관광회사 등 3개의 합夥회사를 설립, 이를 민간기업체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月 8日>

北韓藝術品 釜山入港

- 北韓의 동양화등 예술품과 도자기, 각종공예품등 6백 12점이 남북교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3일 釜山항에 도착했다.
- 이번에 반입(수입)된 北韓예술품등은 (주)大宇가 北韓의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와 직접 교섭하여 들여 온 것으로, 이제까지 무연탄의 수입등 중개상이나 제3국을 통한

남북간 간접교역은 몇차례 있었으나 이번처럼 南北의 회사들이 直交易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임.

<1月 10日>

反共教育, 統一教育으로 轉換

- 문교부는 9일 급변하는 남북관계 및 對공산권 외교정책에 발맞춰 초·중·고생들의 국내외 여건변화를 바르게 수용하고 예견되는 미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일·안보교육 지침을 마련키로 했음.
- 문교부는 이 지침을 통해 지금까지 北韓에 대해 적대적 측면을 강조해 온 일방적 주입·홍보식 反共教育을 개선, 형제적 측면을 인식시켜주고 대화시대의 반공논리를 심어주는 統一·安보教育으로 전환키로 했음.

<1月 10日>

정부, 南北韓 化學武器 拋棄 提議

- 崔浩中외무장관은 화학무기금지를 위한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한 쌍방이 무력분쟁 수단으로서의 화학무기사용을 포기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을 제의했음.
- 崔장관은 화학무기 사용포기 공동선언이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증진과 東北亞지역의 평화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25년 제네바의정서에 빠져있는 화학무기 생산·비축금지 및 이를 위한 엄격한 현장검증등 새로운 규정을 명기한 포괄적인 국제 화학무기 금지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은 이에 가입할 것임을 다짐했음.

<1月 12日>

정부, 南北韓 體育交流 積極推進

- 정부는 南北韓 체육교류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기로 하고 서울과 平壤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체육행사에 南北韓의 동참을 적극 추진키로 했음.
- 체육부는 또 南北韓의 체육교류를 위해서는 양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친선교환경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南北韓을 잇는 驛傳마라톤대회를 비롯, 南北韓 대표팀 수준이 엇비슷한 축구와 아이스하키등의 친선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했음.
- 이와함께 체육부는 北韓측이 지난해말 우리측에 제의해온 90년 北京아시안게임 南北韓단일팀 구성을 적극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단일팀 구성에 필요한 선수선발전을 서울과 平壤에서 교환개최하자고 北韓측에 제의키로 했음.

<1月 12日>

北韓, 韓國産 컬러TV 5万臺 注文

- 북한이 처음으로 한국측 기업과의 직접상담을 통해 한국産 컬러TV 5만대를 수입하겠다고 주문, 상담이 진행중임.
- 북한의 우리 공산품 수입은 지난 83년 북한이 제3국 무역상사와 국내상사의 해외지사를 통한 간접교역방식으로 흑백 TV 8만대를 OEM(주문자상품부착생산)방식으로 수입하는 등 간접교역에 의해 부분적으로 실시됐으나 북한이 한국기업과의 직접상담을 통해 수입주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임.

<1月 14日>

北韓, 韓國記者에 첫 「取材비자」發給

- 朝鮮日報가 北韓의 최근 변화하는 모습을 현장취재 보도하기 위해 급파한 田溶種 특파원이 北韓의 取材 비자를 발급받고 平壤서 텔렉스를 통해 送稿했음.
- 美州조선일보 기획위원인 田특파원은 지난 2일 中國에 들어가 北京등에서 1주일을 머문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입국 査證」(비자)를 받았음.
- 종래 한국여권을 소지한 기자가 訪北한 것은 「관광」이나 「이산가족재회」등을 위해서만 가능했던 것인데 취재목적으로 북한당국이 비자를 발급한 것은 처음있는 일임.

<1月 17日>

北韓, 南北總理會談 豫備接觸 수락

- 북한 정무원총리 延享默은 姜英勳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 정부가 구랍 28일 제의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수락, 오는 2월 8일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을 열자고 제의해왔음.
- 북한측은 그러나 남북경제회담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군사회담이 마련되면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것」이라고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며,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자가 대행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해 당분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

<1月 17日>

言勞聯, 南北言論人 交流 提案

- 전국 43개 언론사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전국노동조합연맹(言勞聯 위원장 權永吉)은 남북한간에 상대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적 분단에서 비롯된 사고방식의 차이를 극복해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의 하나로 남북한 言論人교류를 제안하고, 이를 전체 언론인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기로 했음.

<1月 17日>

統一院, 南北韓間 「3通協定」 推進

- 李洪九 통일원장관은 盧泰愚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2월중으로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한 「단계별 南北관계개선 종합정책」을 제시하고 南北협력체제구축을 위해 南北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협상태세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이를 위해 李長官은 南北韓間의 통행·통신·통상협정 등 분야별 교류협력방안을 연구,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또 民間次元의 多角的인 人的·物的 交流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중심의 분야별 교류협력협의회 구성」 「통일원내에 南北 교류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설치」 「각종 北韓자료 및 직능단체별 교류요원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1月 17日>

北韓, FM 放送 새 對南攻勢

- 북한의 「平壤人民 FM방송」전파가 남한의 중부지역까지 날아와 청소년층을 파고들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중임.

- 관계당국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북한은 금년 1월 1일부터 FM음악방송을 개설, 주파수 92.5와 105.2MHZ, 출력 20kw로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8시간씩 평양과 개성에서 각각 송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1月 17日>

政府, 北韓物品 무분별 搬入 規制

- 정부는 그림·서적등 공산주의이념이 담긴 북한물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사전협의 를 거쳐 반입을 승인하고 농산물·광산물등 국내농어민과 광산업계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협의후 남북한 교역추진 대책방안에서 검토한 뒤 승인해 주기로 했음.

<1月 17日>

盧泰愚大統領, 年頭記者會見

- 盧泰愚大統領은 17日 年頭記者會見에서 「멀지않은 장래에 南北韓정상회담을 실현하여 민족문제 해결에 획기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히고 「中·蘇·東歐사회주의국가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증진, 통일환경을 성숙시키는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할것」이라고 말했다.
- 盧대통령은 또 南北문제에 대해 「南北韓간에 교류와 교역의 길을 트는 것은 물론, 멀지않은 장래에 南北韓정상회담을 꼭 실현하여 민족문제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北韓을 문제해결의 동반자로 보는 새로운 對北觀에 입각, 현실성 있는 統一방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月 19日>

大韓醫學協會, 北韓에 醫學交流 提議

- 대한의학협회(회장 金在油)가 통일원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당국에 순수의학 교류를 제의했음.
- 金회장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경제·군사적 이념을 초월한 의료계의 참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제, 「40여년간 분단되어 각기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남북한 의학을 서로 접목시켜 공동발전을 도모, 주민의 보건의료와 건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의학교류를 제의했다」고 말했음.

<1月 19日>

北韓, 南韓 古考·民俗學者 招請

- 南韓의 고고학·민속학 전공학자 10여명이 오는 5월중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밝혀졌음.
- 이들 학자의 북한 방문은 북한을 방문한 재미학자 피터 현(하와이대 교수)씨가 북한쪽에 남북한 전통문화 및 고고학 연구자의 학술교류를 제의한 데 대해 북한쪽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락, 남한 학자들의 방문비용 일체와 편의를 제공하겠다고면서 학자들을 초청함으로써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음.

<1月 20日>

「金剛山 開發」案 72년에 極秘 마련

- 정부는 이미 지난 72년에 金剛山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과 도로망계획, 개발추정비용등



이 망라된 金剛山개발계획을 극비리에 수립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 「金剛山·雪嶽山지역 觀光道路 構想」이라는 제목의 이 資料에는 金剛山과 雪嶽山을 연결 개발하여 세계적 觀光地로 건설하는 계획과 이에 필요한 交通·土地 利用·費用등이 제시돼 있음.

<1月 21日>

大韓教聯, 南北教師交流·修學旅行 推進

- 南北韓간의 초·중·고 교사 상호 교류와 학생수학여행단교환이 추진될 예정임.
- 大韓教聯(회장 尹享燮)은 政策開發 協議會, 理事會를 열어 남북교사교류 방침을 확정한 뒤 「南北教育者交流研究委員會」(가칭)를 따로 구성해 구체적인 대상·인원·시기·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해 나갈 방침임.

<1月 21日>

全大協, 北側에 「平壤祝典」 參加 答信.

- 全國大學生 代表者 協議會는 20일 오는 7월초 平壤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하겠다는 답신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와 축전준비위원회에 전해줄 것을 요청했음.

<1月 21日>

全民聯, 汎民族大會 開催 受諾

- 在野의 民衆運動圈 統一組織인 全國民族民主運動聯合(이하 全民聯)이 21日 정식출범

했음.

- 全民聯은 이날 결성대회를 갖고 지난해 말 北韓이 제의한 범민족 대회를 수락키로 하고 오는 3월 1일 정오 板門店 평화의 집에서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음.

#### <1月 22日>

##### 鄭周永氏, 訪北出國

- 鄭周永現代그룹 명예회장이 許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정치국원·前외교 부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21일 출국했음.
- 鄭會長은 출국에 앞서가진 記者會見에서 金日成 면담이 예정돼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으며, 이와 관련 남북문제의 한 전문가는 「鄭회장이 金日成을 만날때 우리측 고위 당국자의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고위 당국자의 친서전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음.

#### <1月 23日>

##### 全民聯, 농산물 교역 北韓에 제의

- 全民聯 산하 전국농민운동 연합준비위원회와 전국 고추 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北韓측과의 농산물 직접교환을 제안했음.
- 위원회측은 성명서에서 「고추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국의 농민들은 美國의 강압적 對韓농산물수출과 盧정권의 반민중적 농업정책에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 우리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北韓농민들에게 농산물 물물교환을 제의한다」고 주장했음.

<1月 24日>

美紙, 韓國內 軍縮機構設置 보도

- 한국 정부는 국방부내에 한반도의 군축을 담당할 전문부서를 설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음.
- 이 신문은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목표로 하는 盧泰愚대통령의 정책에 의해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한국국방부에 긴장완화와 군비축소를 전담할 기구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음.

<1月 25日>

駐韓美軍 作戰權 移讓問題, 韓美兩國서 합동 검토 작업

- 韓國과 美國정부는 韓國軍에 대한 美軍의 작전권이양문제등에 관해 양국 합동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24日 美 의사당에서 열린 韓美의회·정부·업계 지도자들간의 세미나에 참석한 美國 고위 관계자가 밝혔음.

<1月 25日>

韓赤, 北赤에 南北赤十字會談 개최 제의

- 대한적십자의 金相浹총재는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孫成弼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3월 28일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平壤에서 갖자고 제의했음.
- 金총재는 이 서한과 함께 우리측 이산가족들로부터 접수한 「尋人의뢰서」를 토대로 작성한 4천3백46명의 가족·친척의 명단을 북한측에 전달했음.

<1月 26日>

美, 北韓과 外交接觸

- 美國과 北韓은 지난해 美國이 對北韓 규제를 완화한 이래 최근 두차례 실질적 외교 접촉을 가졌다고 미국무성이 밝혔음.
- 美國무성의 「레드먼」대변인은 양쪽은 中國이 주선한 두번의 접촉에서 韓半島에 있어서의 정치·안보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음.

<1月 27日>

「南北交流協議會」 정식발족

- 각계 원로 11명으로 구성된 「南北 교수·학생교류추진협의회」자문위원회가 27일 첫 모임을 갖고 민간차원의 南北 교수·학생교류 협의기구로 정식 발족했음.
- 자문위원회는 또 南北학생교류와는 별도로 교수 및 학술교류를 추진할 「南北 교수·학술교류추진위원회」도 추후 구성키로 했음.
- 이에 따라 「南北 교수·학생 교류추진협의회」는 자문위원회와 학생교류추진위원회, 교수·학술교류추진위원회 등 3개 분야로 조직됨.
- 자문위원회는 南北교류에 대한 국민과 대학인의 여론을 수렴하고 각 추진위원회의 기본업무와 교류활동에 대한 자문및 지도를 맡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1月 27日>

北韓兵力 1百萬 돌파

- 美國정부는 북한이 軍병력을 1백만명이상 수준으로 증강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26일 워싱턴 포스트紙가 보도했음.

- 이같은 북한병력은 지상군의 경우 작년 11월보다 7만5천명이 증가한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美國의 종전평가보다 16만명이 늘어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1月 29日>

南北韓 경제각료 첫 會同

- 남북한경제고위관리들은 스위스 다보스市에서 처음으로 회동, 한국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북방정책과 관련, 남북한 당국간의 화해증진과 교역문제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음.
- 다보스市에서 열리고 있는 제19회 세계 경제지도자회의에 참석중인 趙 淳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북한측 대표단장 蔡喜正합영공업부장과 만나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방안에 대해 환담하면서 두대표가 따로 만나 구체적 대화를 갖자고 제의했음. 이에 대해 蔡대표는 회담에 임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金恒德 油公 사장과 북한측 조총련계 기업인간의 회동으로 양측 경제협상을 대신하자고 요청했음.
-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29일 양측 기업인간의 민간 경제협상을 갖고 남북한 교역문제와 油田개발 및 승승사업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갖기로 했음.

<1月 29日>

農民運動聯, 南北農民會談 提案

- 전국 고추생산지역 대책위원회와 전국농민운동연합 준비위원회는 「우리측의 고추와 北韓측 농작물을 교환하자」며 이를 위해 남북농민회담을 열것을 제의했음.

<1月 31日>

北韓, 許鎔명의 편지 政治人·在野에 발송

- 북한측은 「남북정치협상회의」 준비위원장 許鎔명으로 4당총재 및 金壽換추기경, 文益煥목사, 白基玩씨등 우리측 인사 7명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왔음.
- 이날 서한은 지난 연초 金日成이 신년사를 통해 제의한 남북정치협상에 관한 것이며, 내용이 3가지로 相異한 것으로 주로 南韓의 政治人·在野를 북한에 초청하는 내용임.

<1月 31日>

北韓, 韓·美·日 합영 대상 거부

- 스위스 다보스市の 세계경제지도자회의에 참가한 북한의 蔡喜正 合營공업부장은 「한국은 물론 미국·일본도 북한에 비우호적 국가이므로 합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음.
-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한국·미국·일본과의 합영은 외부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긴 싫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음.

<1月 31日>

蘇학자, 한국북방정책 긍정 평가

- 「고르바초프」 蘇聯공산당서기장의 외교정책 설계자로서 韓蘇관계개선 주역중의 하나로 알려진 소련의 「게오르기·아르바토프」 美·캐나다 연구소 소장은 중앙일보와의 회견에서 韓國의 北方정책에 대해 「韓半島 긴장완화에 손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이며 「현재상황을 정상화시키고 부분적인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한 蘇聯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이 남북한 동시유엔가입과 4者회담의 필요성을 지지한데 대해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기 위해선 北韓과 韓國 양측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남북한간 異見이 좁혀지지 않으면 통일구상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1月 31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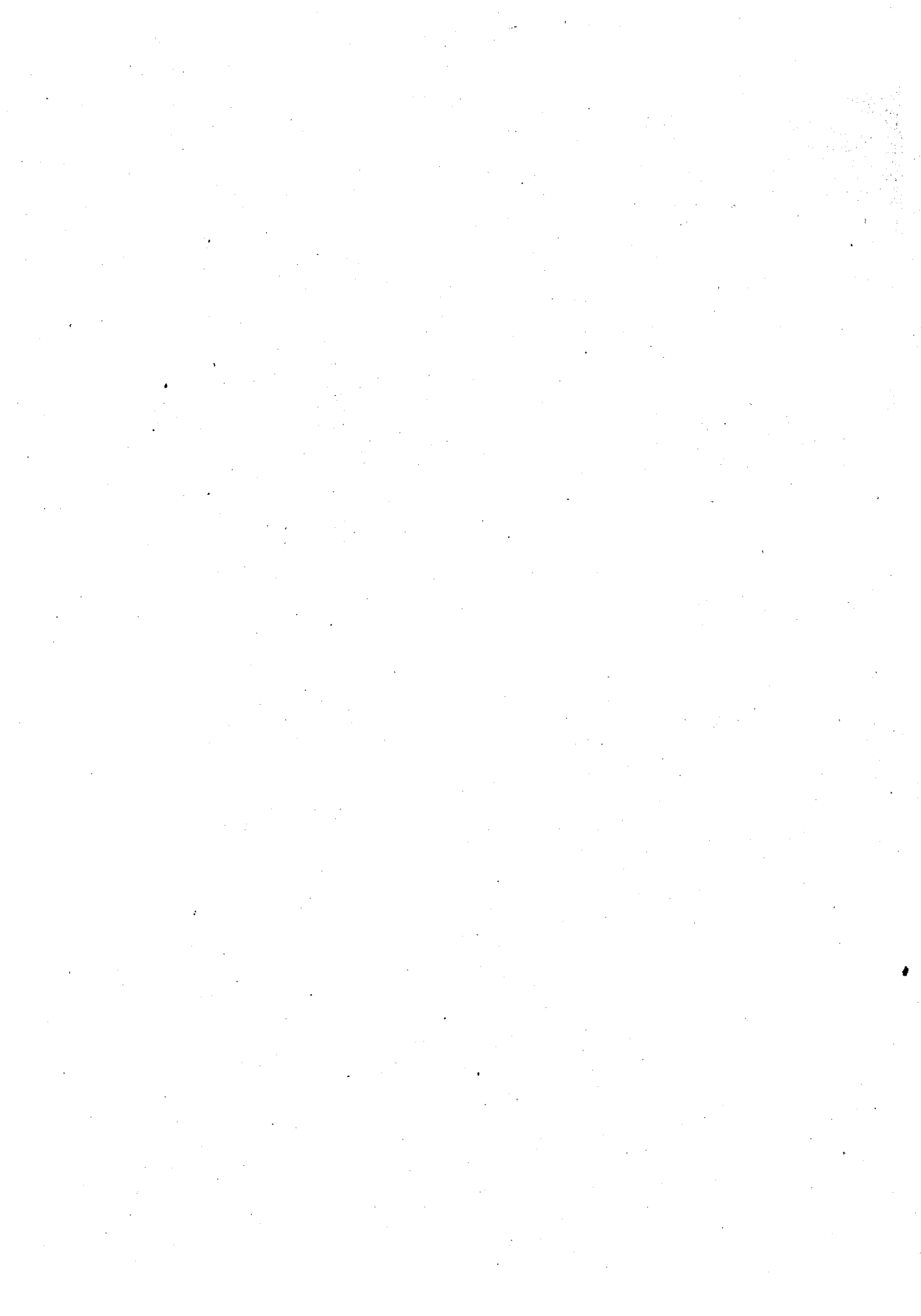
南北學生交流委 發足

- 南北大學生交流 推進委員會는 31일 하오 발족모임을 갖고 檀國大 鄭鎔碩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음.
- 추진위원으로는 尹桂燮(서울대 교수), 朴明光(경희대 교수) 등이 선임됐음.





# 2月動向



| 日  | 字   | 主 要 內 容                      |
|----|-----|------------------------------|
| 2月 | 2日  | 북한 무연단, 인천항에 2만톤 荷役          |
| 2月 | 2日  | 韓·헝가리 국교 수립                  |
| 2月 | 2日  | 政府, 對北韓 FM 방송 계획             |
| 2月 | 2日  | 金剛山관광 年內 실현가능성               |
| 2月 | 4日  | 政府, 南北 常設 대화채널 가동            |
| 2月 | 4日  | 우리측, 南北當局者 豫備會談 대표 확정        |
| 2月 | 4日  | 政府, 金강산 관문 설치 예정             |
| 2月 | 8日  | 南北高位當局者 1차 예비회담 개최           |
| 2月 | 8日  | 국무총리, 북한에 대한 지나친 기대 자제 요청    |
| 2月 | 9日  | 소련·북한, 合同軍事訓練 실시             |
| 2月 | 9日  | 북한, 국회회담준비접촉 연기선언            |
| 2月 | 10日 | 南北交流特別法 제정 예정                |
| 2月 | 10日 | 한국소설가협의회, 南北小說家交流 제의         |
| 2月 | 11日 | 대학신문기자, 남북교류 제의              |
| 2月 | 11日 | 蘇外務部, 建設的 南北對話 支持            |
| 2月 | 11日 | 閣議, 남북교류협력 특별법 의결            |
| 2月 | 14日 | 民族宗教團體, 국토종단 계획              |
| 2月 | 16日 | 全民聯, 「남북범민족대회」 예비회담 代表·議題 발표 |
| 2月 | 18日 | 한국정치학회, 북한 학자 초청             |
| 2月 | 19日 | 北韓, 民族文學作家會議 제의 동의           |
| 2月 | 20日 | 黨政, 南北學生交流 자을추진 방침           |
| 2月 | 21日 | 美亞·太 차관보, 한국 북방정책 긍정 평가      |
| 2月 | 21日 | 상공부, 國際道路聯 서울총회에 북한대표 초청     |

| 日 字    | 主 要 内 容                   |
|--------|---------------------------|
| 2月 21日 | 辯協, 「남북교류법안」 관련 의견서 제출    |
| 2月 23日 | 全大協, 북한에 평양축전 관련 회담 개최 제의 |
| 2月 24日 | 중국, 한국에 10억불 차관 요청        |
| 2月 25日 | 6個 教團, 「민족평화대회」 추진        |
| 2月 25日 | 남북대학생 교류위, 북측에 全大協 서신 전달  |
| 2月 25日 | 美國, 한국의 北方政策 지지표명         |
| 2月 27日 | 金日成, 통일여건 낙관              |
| 2月 27日 | 韓·美 頂上會談 개최               |
| 2月 27日 | 소련, 남북한 정상회담 지지           |
| 2月 28日 | 북한, 범민족대회관련 판문점 접촉 수정제의   |

<2月 2日>

北韓 무연탄, 仁川港에 2萬톤 荷役

- 南北분단후 44년만에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처음으로 직수입된 北韓産 무연탄 2만1천 t을 실은 파나마선적 화물선 콘치號가 2일 오후 5시 仁川港에 도착할 예정임.
- 이는 분단후 남북한간에 이루어진 첫 직교류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2月 2日>

韓·헝가리 國交樹立

- 한국과 헝가리 양국정부는 1일 대사급 공식외교관계를 수립했음. 우리나라가 공산권 국가와 공식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月 2日>

政府, 對北韓 FM 放送 計劃

- 정부는 北韓의 「平壤人民 FM방송」 전파가 南韓의 중부지역까지 날아와 청소년층을 파고들고 있음을 증시, 이에대한 대책으로 對北FM 대응방송을 송출기로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月 2日>

金剛山관광 年内 實現可能性

- 북한을 방문했던 鄭周永現代그룹 명예회장은 1일 「南北韓이 금강산을 공동개발하고,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조사작업을 함께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오는 4~5월 쯤 다시 북한을 방문, 구체적인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음.

- 또한 그는 「북한측이 금강산관광개발 계획에 관해 적극적 자세를 보여 금강산과 잇달아 있는 元山の 명사십리로부터 通川の 시중호및 총석정, 금란지구를 개발대상지로 확정, 남북한이 공동개발키로 합의했다]고 말했음.

<2月 4日>

政府, 南北 常設 對話채널 가동

- 정부는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북한방문 등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 움직임과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연계시켜 올해 10월 경,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킨다는 방침 아래 최근 북한 쪽과 여러차례 막후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의 한 소식통은 「朴哲彦 청와대 정책보좌관이 싱가포르에 머물면서 북한의 고위당국자와 비밀리에 접촉,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한 쌍방의 입장조정, 금강산 공동개발 등 정 회장이 합의한 3개 사업의 승인 및 향후의 사업추진방향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소식통은 또 「남북간의 막후 직접 대화는 지난해 11월 등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 상설대화 채널이 마련돼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정 회장의 방문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같은 막후대화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조정한 바탕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月 4日>

우리측, 南北 當局者 豫備會談 代表확정

- 정부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南北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의 수석대표로 宋漢虎동 일원차관을 임명하는등 대표명단을 확정, 北측에 통보했음.
- 대표를 보면 金三勳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龍永一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장, 姜根鐸 대통령정책보좌관실 비서관, 金保鉉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심의관 등임.

<2月 4日>

政府, 金剛山 關門 設置예정

- 정부는 금강산개발과 관련, 오는 4월말이전 강원도 高城郡소재의 휴전선지역에 남북 한 내왕객 전용의 관문을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鄭周永회장의 訪北시 우리측 관광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휴전선을 통한 금강산 관광특구의 왕래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바 있음.

<2月 8日>

南北高位當局者 1次 豫備會談 開催

- 南北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첫예비회담이 8일 오전 板門店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됐음.
- 80년대 들어 양측 당국자간의 첫 회담인 이날 예비회담에서는 양측간에 「南北고위당국자회담의 회담명칭」, 「대표단 구성」, 「회담일시 및 장소」, 「회담의 운영절차」 등 회담의 절차문제와 의제에 관해 논의했음.

- 양측은 다음 접촉을 3월 2일 갖기로 하고 회담을 끝냈음.

<2월 8일>

국무총리, 北韓에 대한 지나친 기대 自製 要請

- 姜英勳 국무총리는 7일 한국일보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최근 鄭周永현대그룹명예회장의 「平壤방문·金剛山 개발합의」로 국내가 다소 들떠있는 분위기와 관련, 「北韓이 최근들어 병력을 크게 늘리고 새로운 장비를 대거 도입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오히려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北韓이 이같이 근본적인 자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만큼 우리국민도 北韓에 대해 지나친 기대감을 자제하고 그들의 진정한 저의가 무엇인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姜총리는 南北통일 방안에 대해 언급,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기 위해선 그전 단계로 南北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평화공존 상태를 유지시켜 나가는 이른바 「체제연합」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가 마련중인 새로운 통일방안이 「체제연합」을 근간으로 한 것임을 확인했음.

<2월 9일>

蘇·北韓, 合同軍事訓練 실시

- 蘇聯의 모스크바 방송은 4일 蘇·朝해군이 1년에 한번씩 동해안에서 1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군사연습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이 방송은 소련해군 부총사령관인 아나톨리 구스민 중장과의 인터뷰기사에서 「소련해군은 조선해군과 함께 군사연습을 위한 일부행사를 실시하면서 침략자들이 상륙하는 경우에 그것을 격퇴하는 행동을 연마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사는 「蘇·朝 두나



라 근해에서 1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진행되며 협소한 전술적 성격과 방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2月 9日>

北韓, 國會會談 準備接觸 延期宣言

- 北韓은 8일 성명을 통해 오는 10일 판문점에서 개최기로 합의한 南北國會會談을 위한 第8次 실무접촉을 팀스피리트 훈련이 끝난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2月 10日>

南北交流特別法 制定 예정

- 政府와 民正黨은 9일 黨·政정책조정회의를 갖고 北方政策 및 南北交流를 일관성 있게 추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南北交流에 관한 特別法」을 제정키로 하고 이 법안의 대강을 마련했다.
- 이 법안은 南北간의 인적-물적교류 및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령으로 정부는 통일원주관으로 법안을 확정,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月 10日>

韓國小說家協議會, 南北小說家交流 提議

- 韓國小說家協議會(會長 金東里)는 최근 남북한 소설가 교류 및 남북 소설가회의 개최를 북한측에 공식제의했다.

- 소설가 협의회 이번 제의에 앞서 지난해 민족문학 작가회의,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등이 대북제의를 한 바 있음.

<2月 11日>

大學新聞記者, 南北交流 提議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소속 97개 대학학보사 기자 3백여명은 10일 '전국대학신문기자총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
  - 세계청년학생축전 때 남북 대학신문이 공동기자단을 구성해 취재, 보도할 것
  - 남북 대학신문간의 학술·정보·자료 교환
  - 대학신문기자들의 남북상호방문을 통한 실상보도 등을 북한쪽에 제의했음.

<2月 11日>

蘇外務部, 建設的 南北對話 支持

- 소련외무부 대변인 겐바디 게라시모프는 9일 南北對話問題에 언급, 소련은 남북한 사이의 건설적이고 평화적 對話를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 접촉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음.
- 이날 그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첫 예비회담 논평에서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북남간의 대화의 길에 새로운 障礙를 조성하지 않는 것이며, 접촉을 계속하기 위한 분위기를 유지토록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음.

<2月 11日>

閣議, 「南北交流協力 特別法」 의결

- 政府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南北韓間의 人的, 物的 交流와 協力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法的 뒷받침을 하기 위해 南北韓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南北韓의 주민은 國土統一院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토록 하는 한편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관세 · 방위세 및 기타 수입부과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案」을 의결했음.

<2月 14日>

民族宗教團體, 國土縱斷 계획

- 甌山道 · 大倣教등 민족종교신자 · 대학생들이 최근 「전국민족운동 대학생총연합회」를 구성하고 「한민족 청년학생 국토종단대장정」을 계획하고 있음.
- 5월 2~12일까지 漢拏山에서 白頭山에 이르기까지 대장정을 벌이면서
  - 민족통일 대토론회
  - 남북의 통일국사교과서 편찬을 위한 남북교수 · 학생 역사학술제
  - 한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민족동질성 회복의 마당이 될 민족문화공연제등을 남북 · 해외의 한민족 청년학생이 하나가 되어 진행하겠다는 것이 대장정의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음.

<2月 16日>

全民聯, 「南北汎民族大會」豫備會談 代表·議題 發表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李在五)는 15일 오는 3월 1일 정오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제안했던 남북한 범민족대회 예비회담의 전민련측 10명의 대표단과 의제를 발표했다.
- 전민련은 이날 예비회담의 의제로 범민족대회 대표단 구성 및 해외동포 참가문제등의 6개항을 제시하고, 예비 회담대표로 단장 吳忠一 목사(전민련 공동의장) 등 10명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2月 18日>

한국정치학회, 북한학자 초청

- 해방이후 최초로 北韓의 학자들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 초청될 예정임.
- 한국정치학회(회장 韓興壽 延世대교수)는 18일 오는 7월 24~28일 서울에서 「民族공동체와 南北韓간의 국가발전」이라는 국제공동학술회의를 개최기로 하고 北韓의 사회과학원 소속 정치학자와 국사학자 각 1명씩을 초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月 19日>

北韓, 民族文學作家會議 提議 同意

- 북한은 17일 한국의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남북및 해외동포작가회의」를 열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시기적절한 발기로 인정하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2月 20日>

黨政, 南北學生交流 自律推進 방침

- 政府와 民正黨은 20일 黨政會議를 열고 南北學生交流에 따른 대책을 논의, 오는 3월로 예정된 南北학생 板門店예비접촉등 앞으로의 모든 南北학생교류는 되도록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학생단체와 「南北交流 教授·學生 推進委」(위원장 鄭鎔碩교수)와 「南北학생교류자문위」(위원장 徐燮珏학술위원장)의 협의·자문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2月 21日>

美 亞·太 次官補, 韓國 北方政策 肯定 평가

- 美 國무성의 개스턴·시거 東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는 20일 한국의 北方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그러나 특히 정치적인 관계개선은 매우 점진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시거차관보는 이날 부시 美대통령의 한국방문에 앞서 한국일보기자와 가진 단독회견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소련과 중국·東歐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전제, 「그러나 정치적인 단계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특히 소련과 東歐국가들에 대한 기술이전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음.

<2月 21日>

상공부, 國際道路聯 서울總會에 北韓代表 招請

- 상공부는 오는 4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1차 국제도로연맹 세계총회를 앞두고 韓國도

로공사가 신청한 북한도로협회 신봉은회장의 남한초청을 승인했음. 이에 따라 道公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도로연맹본부를 통해 금주중 공식초청장을 북한측에 전달할 계획임.

<2月 21日>

辯協, 「南北交流法案」 관련 意見書 提出

- 대한변협(회장 文仁龜)은 20일 국회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북한당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반국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두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일괄 심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음.

<2月 23日>

全大協, 北에 平壤祝典관련 會談 開催 提議

- 全大協은 23일 平壤청년학생축전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南北 실무회담을 3월 16일 오전 11시 板門店에서 개최하자」고 北韓조선학생위원회에 제안했음.
- 全大協은 또 平壤축전 참가를 위해 全大協준비위·사회각층의 자문위·교수단·시민참관인단등 4개 준비기구를 구성하고 3월 11일 서울등 5개 도시에서 全大協과 정부·정당·사회단체 대표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음.

<2月 24日>

中國, 한국에 10억弗 借款 要請

- 최근 중국이 한국에 10억달러 이상의 차관을 요청했다고 정부의 관계 소식통이 밝혔음.
- 이 소식통은 이같은 문제 등 韓中양국간 경제교류확대방안을 협의키위해 한국의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고문 金復東씨가 지난주 중국 북경을 방문해 중국최대의 기업그룹인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와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2月 25日>

6개 教團, 「民族平和大會」 推進

-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ACRP) 韓國委員會는 28日 天主教·基督教·佛教·圓佛教·天道教·儒教등 6개 종단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민족평화를 위한 종교인 평화 대회」를 열고 「민족화해 종교인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임.
- 5개항의 민족화해방안을 담은 선언문은 南北종교인간의 상호방문과 평화회담 개최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月 25日>

南北大學生交流委, 北側에 全大協 書信 傳達

- 鄭鎔碩 南北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은 全大協측이 지난달 20일 북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편지를 북한의 최룡해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냈음.

- 全大協측의 이날 서신은 오는 7월의 제13차 平壤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다는 뜻과 북측에 대해 이번 축전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음.

<2月 25日>

美國, 한국의 북방정책 지지 표명

- 「부시」美대통령은 공산권과의 관계증진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盧泰愚대통령의 北方정책을 지지하고 헝가리외에 더 많은 국가들이 韓國과 경제적 유대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전면적인 정치·외교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駐韓美軍철수주장을 일축, 「駐韓美軍을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駐韓美軍은 「韓國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한, 그리고 그 존재가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한 韓國에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다짐했음.
- 「부시」대통령은 盧대통령이 작년 10월 유엔총회연설에서 제의한 韓半島문제에 관한 6者회담개최안에 대해 「창의적이고 前向的인 구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러한 회담개최에는 「세심한 준비와 모든 당사국들의 협조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해 6者회담의 실현은 시기상조임을 시사했음.

<2月 27日>

金日成, 統一與件 樂觀

- 北韓의 金日成은 韓半島 재통일과 관련된 제반여건이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美國등의 장애요인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고 北韓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東京에서 취취된 이 통신은 金日成이 지난 25일 저녁 北韓을 방문한 「피에르부야」



부룬디총리를 위해 베푼 만찬석상에서 韓半島의 재통일과 관련해 이렇게 평가했다고 보도했음.

<2月 27日>

韓·美 頂上會談 개최

- 盧泰愚대통령과 「조지 부시」美國대통령은 27일 靑瓦臺에서 韓美정상회담을 갖고 韓美양국간의 우의와 유대를 더욱 긴밀히 강화해 나가자는데 합의했음.
- 양국 정상은 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은 현상태에서 駐韓美軍의 철수와 감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 노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에 우리의 북방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혈맹으로서의 한미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자고 역설했음.
- 미국측은 한미안보협력강화를 역설하고 노대통령의 북방정책 및 통일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月 27日>

蘇, 南北韓 頂上會談 支持

- 히로히토 日王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日本을 訪問중인 「로가초프」 蘇聯외무차관은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蘇聯은 「南北韓정상회담개최를 비롯한 대화 확대와 긴장 완화를 바란다」고 말했음.
- 또한 그는 對韓경제교류에 관해서는 지난해 연말 日本과 필리핀방문을 마치고 귀로에 平壤에 들른 「세바르드나제」의상이 「경제교류는 추진하되 외교관계는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金日成과 金永南 등에게 설명,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음.

<2月 28日>

北韓, 범민족대회관련 板門店접촉 수정제의

- 北韓의 안병수조국평화통일위 서기국장은 지난 25일 李富榮 全民聯공동의장앞으로 보낸 전통문을 통해 「28일 하오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쌍방대표 2명 씩이 만나 범민족대회 추진을 위한 실무문제를 협의하자」고 수정제의해 왔음.
- 한편 全民聯측은 27일 범민족대회추진과 관련해 28일 하오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북한측의 수정제의에 대해 「이를 수용해 28일 조국통일위원회 상임간사인 趙誠宇, 權亨澤씨등 2명을 실무예비회담 대표로 판문점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음.

# 3月動向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3月 1日  | 崔秉烈 문공장관, 「전민련」관련 성명 발표    |
| 3月 3日  | 남북고위당국자회담 2차 예비회담 개최       |
| 3月 4日  | 국방부, 팀스피리트훈련 발표            |
| 3月 4日  | 美·北韓, 본격 학술교류              |
| 3月 4日  | 민족문학작가회의, 남북작가회담 예비모임 제의   |
| 3月 4日  | 천도교청년회, 남북공동 창도기념식 제의      |
| 3月 8日  | 통일원, 남북 체육회담 대표단 명단 발표     |
| 3月 10日 | 日사회당, 북한노동당 초청             |
| 3月 11日 | 정부, 남북교류 특별지침 마련           |
| 3月 12日 | 全青協, 평양축전 참가의사 표명          |
| 3月 14日 | 목회자 正平協, 「통일의 종」 북한 전달 제의  |
| 3月 14日 | 북한, 동계아시안게임 단일팀 제의         |
| 3月 14日 | 대학생 교류추진위, 남북학생교류회담 제의     |
| 3月 15日 | 전민련, 남북한 범민족대회 재개 제의       |
| 3月 16日 | 북한, 南北作家會談 예비접촉 동의         |
| 3月 16日 | 趙紫陽, 4月 北韓訪問 예정            |
| 3月 17日 | 全大協, 평양축전 참가 사실상 불가        |
| 3月 17日 | 북한,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 제의 조건부 수락 |
| 3月 18日 | 미·일, 한반도문제 소련참여 유도 주장      |
| 3月 21日 | 외무부장관, 북방교류 성급한 진출 자제 요구   |
| 3月 21日 | 미·북한, 3차 접촉                |
| 3月 21日 | 다케시타 日수상, 對北 4개항 견해표명 예정   |
| 3月 21日 | 교황, 북한방문 적극 검토             |

| 日 字    | 主 要 内 容                 |
|--------|-------------------------|
| 3月 23日 | 남북작가회담 대표 5명선정          |
| 3月 25日 | 북한, 남한과 대화 계속 의지 밝혀     |
| 3月 25日 | 문공부, 남북작가회담 예비회담 불허     |
| 3月 25日 | 우리국민, 남북교류중 「경제」에 가장 관심 |
| 3月 26日 | 文益煥목사, 돌연 평양방문          |
| 3月 27日 | 文목사 平壤行에 각계반응 민감        |
| 3月 27日 | 작가 黄皙暎씨도 방북             |
| 3月 28日 | 문목사 방북관련 4黨 성명 발표       |
| 3月 28日 | 문목사, 김일성과 면담            |
| 3月 28日 | 문목사, 북한 24개 사회단체 대회에 참석 |
| 3月 28日 | 통일원 장관, 문목사 방북 관련 성명발표  |
| 3月 28日 | 남북체육회담 2차회담 개최          |
| 3月 29日 | 政府, 南北經濟交流 전면 재검토       |
| 3月 29日 | 북한, 문목사 방북 계기로 대대적 평화공세 |
| 3月 29日 | 黄皙暎씨, 방북전 방북의사 피력       |
| 3月 30日 | 통일원장관, 문목사 방북관련 정부입장 발표 |
| 3月 30日 | 「南北文化交流協」발족             |
| 3月 30日 | 다케시타 日수상, 북한 國名 공식 사용   |
| 3月 31日 | 盧泰愚대통령, 통일추진 일원화 강조     |
| 3月 31日 | 북한, 종교단체를 대화통로로 이용      |

<3月 1日>

崔秉烈 문공장관, 「全民聯」 관련 성명 발표

- 정부대변인 崔秉烈 문공부장관은 28일 「全民聯」의 「범민족대회」추진과 관련, 성명을 통해 「全民聯이 끝내 범민족대회 실무회담을 강행하려 한다면 정부는 부득이 이의 저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정부는 앞으로 全民聯을 비롯한 어떤 단체도 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北韓측과 접촉하고자 하는 활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3月 3日>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2次 豫備會談 開催

-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성사를 위한 제2차 예비접촉이 2일 오전 板門店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으나 제1차 회담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측이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문제를 회담진행의 전제조건화하는 바람에 실질문제 토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났음.
- 양측은 4月 12日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3차 예비접촉을 갖기로 하고 이날 회담을 마쳤음.

<3月 4日>

국방부, 팀스피리트 훈련 발표

-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팀스피리트 89연습'이 오는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된다고 3일 발표했다.
- 이번 팀스피리트 훈련의 규모와 관련, 국방부는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 국방부

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3月 4日>

美·北韓, 본격 學術交流

- 美·북한간의 학술교류계획에 따라 미국을 방문중인 북한사회과학원 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 宋효경은 2일 「美·북한간 학술교류는 남북한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스탠퍼드대와 북한사회과학원은 지난 87년부터 교류를 시작, 같은해 12월 宋부소장과 李형철연구원이 미국을 방문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루이스박사등 미국학자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月 4日>

民族文學作家會議, 남북작가회담 예비 모임 제의

- 민족문학작가회의(회장 金廷漢)는 4일 북한의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 3월 27일 또는 그 직후에 판문점이나 일본 또는 기타지역에서 남북작가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3月 4日>

천도교 청년회, 남북공동 창도기념식 제의

- 천도교 청년회(회장 김호성)는 성명을 발표, 「내년 4월 5일 천도교 창도기념일 행사를 남북천도교 청년이 함께 서울중앙대교당에서 갖자」며 「이를 위해 올 8월 14일 예



비접촉을 갖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양쪽이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자」고 제의했음.

<3月 8日>

통일원, 남북체육회담 대표단 명단 발표

- 통일원은 오는 3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될 체육회담 남북한 대표를 발표했음.
- 남측 代表團에는 수석 대표에 장충식(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표에는 이학래(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임태순(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장병조("), 박수창(")이며 북측 代表團에는 수석대표에 김형진(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표에 장응(북한올림픽위원회 서기장), 김세진(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허혁필(") 김삼복(") 등임.

<3月 10日>

日 社會黨, 北韓勞動黨 招請

- 일본 사회당은 오는 30일부터 와타나베 마코토(渡邊誠)前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정식 결정했음.
- 사회당대표단은 이번 訪北에서 金日成등 북한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자민당대표단의 북한방문을 타진하는 한편 북한 노동당대표단의 訪日을 초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月 11日>

정부, 南北交流 특별지침 마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 정부는 이에 따라 국무총리훈령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지침」을 마련, 특별법이 제정될 때 까지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음.

<3月 12日>

全青協, 평양축전 참가의사 표명

- 오는 7月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를 위한 공청회」가 전대협을 비롯해 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 전국청년단체 대표자 협의회(전청협)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음.
- 재야 17개 청년단체의 모임인 전청협(의장 이범영 민청련 의장)은 이날 기초발제를 통해 「평양축전에 학생대표와 함께 참가하겠다」고 밝혔음.
- 정용석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장도 「교류추진위가 전대협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대협이 축전참가에 있어 전청협을 받아들이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음.

<3月 14日>

목회자 正平協, 「통일의 鐘」北韓 전달 제의

- 전국목회자 정의평화 실천 협의회는 13일 북한의 조선기독교도 연맹(위원장 고기준 목사)에 보내는 제안서를 채택,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 모금, 제작한 「통

일의 중」을 오는 4月 10日 판문점을 통해 조선기독교연맹에 전달키로 했다」고 발표  
했음.

<3月 14日>

北韓, 冬季아시안게임 단일팀 提議

- 북한이 현재 진행중인 北京아시안게임 단일팀구성 협의와는 별도로 먼저 열리는 삿  
포로 동계아시안게임(90년 3월) 단일팀구성을 제안해 왔음. 89세계 주니어 스피드스  
케이팅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북한 대표팀 김세준 감독이 이같은 제안을 한국팀 임원  
들에게 비공식으로 제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한국의 張明熙 비상연맹 부회장은 「종목이 단순하고 선수 개개인의 기록  
이 명확한 빙상은 단일팀구성에 별 문제가 없어 당국과 협의가 끝나는대로 북한측  
담당자들과 본격적인 단일팀 구성방안을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3月 14日>

大學生交流推進委, 「南北學生交流會談」 提議

- 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 鄭鎔碩위원장(檀國大교수)은 13일 北韓측의 제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 朝鮮준비위원회 위원장(崔룡해)과 朝鮮학생위원회 위원장(김창룡) 앞  
으로 서신을 보내 北韓측이 초청의사를 밝혀온 우리대학생들의 축전참가문제를 구체  
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학생교류회담을 3月말이나 4月초 북한측이 지정하는 날  
짜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제의했음.

<3月 15日>

全民聯, 南北韓 汎民族大會 再開 提議

- 전국민족민중운동연합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李在五)는 15일 범민족대회와 관련, 北韓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許談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오는 4月 7日 예비회의를 다시 열것을 제의했음.

<3月 16日>

北韓, 南北 作家會談 예비접촉 동의

- 북한의 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16일 한국의 민족문학작가회의가 남북작가회담 예비 회담을 오는 27일 판문점서 열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찬의를 표시하고 이 회담에 5명의 대표를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음.

<3月 16日>

趙紫陽, 4月 北韓 訪問 예정

- 조자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오는 4월중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북경의 소식통들이 밝혔음.
- 한 서방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최근 한국과 무역관계등 비공식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 趙紫陽의 북한방문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對北韓 우호자세를 확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음.

<3月 17日>

全大協, 평양축전 참가 사실상 불가

- 오는 7월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등 대학생 대표가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
- 그동안 전대협 등 대학생쪽과 북한쪽의 연락·조정역할을 해온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는 16일 「북한쪽이 전대협과의 직접회담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므로 더 이상의 조정노력을 포기한다」고 밝혔음. 이로써 전대협과 북한쪽의 공식적인 연락선은 끊기게 됐음.

<3月 17日>

北韓,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 제의 조건부 수락

- 北韓은 16일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 崔룡해 위원장과 조선학생위원회 金창룡 위원장 명의로 지난 13일 우리측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가 제의한 대학생교류회담을 조건부로 응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음.
- 北韓측은 이 서신에서 「우리와 全大協간의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귀단체와도 회담을 갖지않을 것」이라고 전제, 「귀단체와의 회담은 3월말이나 4월초에 갖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주장했음.

<3月 18日>

美·日, 韓半島 문제 蘇聯참여 유도 주장

- 美國과 日本의 대외정책전문가들은 17일 蘇聯이 韓半島문제등 아시아域內 분쟁해결

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 美國의 유엔협회와 日本의 아시아·태평양협회는 「고르바초프의 아시아정책, 美國과 日本의 對蘇정책 재편」이라는 제목의 공동연구보고서를 통해 蘇聯의 아시아 긴장완화 정책에 대해 美日이 공동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문제 해결에 蘇聯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3月 21日>

외무부 장관, 북방교류 성급한 진출 자제요구

- 崔浩中 외무장관은 16일 「북방경제정책은 민간주도, 정경분리 원칙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민간협력을 정부간 공식관계로 유도하며 과도하고 성급한 진출기도는 민·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음.
- 그는 또 「북방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시각은 북방정책을 경제적으로는 시장다변화의 일환으로, 정치적으로는 외교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음.

<3月 21日>

美·北韓, 3차 접촉

- 美國과 北韓외교관들은 美國의 최근 對北韓유화조치이후 세번째로 지난달 28일 北京에서 접촉을 가졌다고 국무성의 한 대변인이 밝혔음.
- 美國과 北韓외교관들은 지난해 10월 31일 美國의 對北韓 유화조치 발표후 12월 6일과 1월 24일 北京에서 각각 접촉을 갖고 3자회담에 관한 제안과 답신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月 21日>

다케시타 日수상 對北 4개항 견해표명 예정

- 다케시타(竹下登) 日本수상은 사회당대표단의 평양방문을 앞두고 27日 北韓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다케시타」수상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 지난 1월 발표한 정부의 기본입장에 따라
  -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 일본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 일본의 과거행위 반성은 남북한에 적용된다.
  - 제18후지산호 문제는 조기 해결되어야 한다는 등의 4개 항목을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3月 21日>

教皇, 北韓訪問 적극 검토

-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오는 10월 韓國에서 개최되는 세계성체대회기간중 北韓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로마 교황청에 정통한 런던의 한 소식통은 교황이 오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韓國에서 열리는 세계성체대회 참석차 訪韓하는 동안 北韓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막바지에 가서야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3月 23日〉

南北作家會談 代表 5名 선정

- 민족문학 작가회의는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작가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 접촉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로 高銀(시인, 同회의 부회장겸 행사 준비위원장) 申庚林(시인) 白樂晴(문학평론가) 玄基榮(소설가) 김진경(시인) 등 5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3月 25日〉

北韓, 南韓과 對話 계속 의지 밝혀

- 북한의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23일 로마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北韓은 南韓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허담은 북한이 현 국제정세에 맞춰 화해와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統一의 核心問題는 남한으로부터 美軍의 撤收라고 주장했다.
- 그는 또 소련이 추진중인 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거나 우리정책을 개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3月 25日〉

문공부, 南北作家會談 예비회담 불허

- 문공부는 민족문학작가회의(회장 金廷漢)가 27일 판문점에서 접촉하기로 한 남북작가회담 예비회담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 문공부 당국자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위원회를 통해 남북 문인들이 회담할 것을 요청했음.

<3月 25日>

우리 國民, 南·北交流中 「經濟」에 가장 관심

- 韓國응용통계연구소와 MBC TV가 실시한 「南北交流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남북교류추진과정에서 경제교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며 정부와 경제계의 對北정책변화에 따라 北韓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통일에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일부에선 갑작스런 교류추진으로 對北인식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月 26日>

文益煥목사, 돌연 平壤訪問

- 국토통일원 崔炳輔 대변인은 25일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5일 저녁 文益煥목사가 그 일행과 함께 북경을 경유해 항공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음.
- 崔대변인은 이 방송이 文목사가 「金日成주석을 면담하기 위해 북한을 찾아왔다」고 방문목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고 말했음.
- 崔대변인은 「정부당국은 지금까지 文목사로부터 북한방문과 관련, 사전에 아무런 협의의 한바 없으며 그의 방문을 허용한 바도 없다」고 밝혔음.
- 북한 중앙통신은 김일성주석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창하여 남조선의 유명인사를 평양에 초청한 바 있는데 그 초청을 받아 文목사가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음.

<3月 27日>

文목사 平壤行에 各界 반응 민감

- 26일 전격적으로 전해진 文益煥목사 北韓방문소식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음.
- 많은 시민들은 文목사의 통일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나 정부와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訪北한 것은 통일논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망상이며 민주화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고 불안해 했음.
- 北韓문제전문가들도 文목사의 平壤방문은 北韓의 통일선전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반면 재야등 일부에서는 「文목사의 平壤방문은 정부의 통일논의 독점기도에 썩기를 박는 패거」라고 말하고 「통일을 향한 민중의 염원을 담은 文목사 訪北을 계기로 통일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음.

<3月 27日>

作家 黃皙暎氏도 訪北

- 日本의 교도통신은 작가 黃皙暎씨가 文益煥목사의 北韓방문을 전후, 平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3月 28日>

文목사 訪北관련 4黨 성명 발표

- 與野 4黨은 27일 文목사의 방북과 관련 주요당직자및 간부회의를 열어 당입장을 정리하고 이 사건이 미칠 정국에의 영향 및 대책을 논의 했음.
- 民正黨은 文목사의 訪北을 「越北」으로 규정, 「문목사의 월북과 그의 언동은 민주세력

임을 가장한 일부인사들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4천만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배신·반역행위]라고 규탄했음.

- 平民黨은 「문목사의 북한행은 통일에의 염원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충정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사전에 정부와 협의가 없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民主黨은 「현시점에서 문목사가 金日成면담을 위해 방북한 것은 그 진의가 무엇이든 국민을 당혹케하고 민족통일에 혼선을 빚게 하는 행위」라고 우려의 시각을 표명했음.
- 共和黨은 「文목사의 평양방문은 정부의 무원칙한 對北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문목사의 이번 행동은 통일문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음.

<3月 28日>

#### 文목사, 金日成과 면담

- 평양을 방문중인 문익환목사와 그 일행이 27일 김일성을 만난 것으로 북한방송이 보도했다고 통일원이 발표했다.
- 발표문에 따르면 金日成은 이 자리에서 「올해 新年辭에서 내놓은 南北政治協商會議 소집에 文목사가 호응하여 平壤을 방문한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며 「北측이 내놓은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립방안은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金은 또 「조국통일은 온민족의 거족적인 위업인 만큼 누구든지 통일문제를 위해 찾아오겠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음.
- 북한의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 따르면 「참석한 일행이 정경모, 유원호, 황석영이며 배석한 사람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鄭浚基, 尹基福」이라고 보도했음.

<3月 28日>

문목사, 북한 24개 사회단체 대회에 참석

- 訪北중인 文益煥목사는 27일 北韓의 24개 정당·사회단체 연합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대회는 남북대화에 관한 5개항의 연합성명을 채택 「北南대화를 쌍방 당국사이 에도 하고 민간급에서도 폭넓게 진행하여야 한다」면서 「남조선과 해외의 개별적 인 사들이 민족공동의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하여 아무때나 공화국 북반부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며 환영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北韓의 중앙방송이 보도했음.

<3月 28日>

통일원장관, 문목사 訪北관련 성명발표

- 李洪九통일원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文益煥목사의 訪北에 언급
  - 현재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진행중이고
  - 북한이 최근 내외정세를 나름대로 판단, 현정권 퇴진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일련의 정치심리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  
「개인이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남북 정치협상에 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남북관계 에 적지 않은 혼선을 일으킬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북의 입장을 강화시켜줄 위험 이 있다고」 말했음.

<3月 28日>

南北體育會談 2次 會談 開催

- 제11회北京아시안게임 단일팀구성을 위한 제2차 南北體育會談이 28일 오전 10시 板門店 北韓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양측대표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음.
- 쌍방은 단일팀 구성을 위한 10개항 토의를 하고 쌍방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4月 18日 3차 회담에서 토의를 하기로 하고 회담을 끝냈음.

<3月 29日>

정부, 南北經濟交流 全面 재검토

- 정부는 文益煥목사 訪北을 계기로 南北경제교류 문제를 전면 재검토기로 했음.
- 관계당국에 따르면 文益煥목사의 訪北으로 南北경제교류 분위기가 냉각되자 지금까지의 對北개방 일변도의 경제교류를 재검토, 선별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음.
- 이와 관련, 정부는 4月末로 예정된 鄭周永현대그룹 명예회장의 訪北도 연기키로 하는 등 경제인교류도 당분간 억제할 것이며 北韓産 무연탄 및 명태반입도 당분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月 29日>

北韓, 文목사 방북계기로 대대적 平和攻勢

- 北韓의 조선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祖統委등 24개 정당사회단체대표들은 27일 文益煥목사의 入北을 계기로 연석회의를 갖고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 5개항의 결의문 내용을 보면,

- 남북대화는 쌍방당국자사이에도 하고 민간급에서도 폭넓게 진행해야 한다.
- 남북대화는 평화와 통일, 민족 공동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한다.
- 朝鮮인민은 통일의 주체로서 누구나 통일문제를 놓고 서로 접촉하고 대화를 할 권리를 가진다.
- 남조선과 해외의 개별적 인사들의 방북을 언제라도 환영한다.
- 민간급대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등임.

<3月 29日>

黃皙暎氏, 방북전 訪北意思 피력

- 북한을 방문중인 작가 黃皙暎씨는 輿圜 관계자들에게 訪北의사를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李鍾贊민정당 사무총장은 28일 「지난 2월 23일 모야당 부총재와 만났을 때 黃씨가 동석했었다」고 밝히고 「그자리에서 黃씨가 남북작가회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느냐고 물은적이 있다」고 말했다.

<3月 30日>

통일원장관, 文목사 방북관련 정부입장 발표

- 李洪九 국토통일원장관은 29일하오 文益煥목사의 訪北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북한이 정치협상회의라는 이름하에 우리 재야인사를 북한에 불러들여 그들과 통일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한것은 우리의 통일논의 개방의 참뜻을 왜곡하여 우리사회의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음.

- 李장관은 이어 「南과 北이 화해와 협력관계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상호주의정신에 기초하여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우리정부가 「7·7특별선언」을 천명하고 南北정상회담을 제의했다」면서 「北韓은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환상을 버리고 생산적인 南北대화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3月 30日>

「南北文化交流協」發足

- 鄭大哲국회의원(평민, 문공위원장), 安東壹변호사, 金晉均서울대교수 등 정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출판계, 문화, 연구단체인사 83명은 29일 남북문화교류협의회(가칭)를 발족시켰음.
- 발기인들은 발기문에서 「남북문화 교류통로를 개설하여 남북문화교류를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 이같은 협의회를 발족시킨다」고 밝혔음.

<3月 30日>

다케시타 日수상, 北韓國名 공식 사용

- 「다케시타」(竹下登) 日本수상은 30일 北韓과의 과거관계에 언급, 「반성과 유감」의 뜻을 밝히는 가운데 北韓의 국명을 처음으로 공식사용, 對北韓 관계개선의 의지를 강력히 나타냈음.

<3月 31日>

盧泰愚大統領, 통일추진 일원화 강조

- 盧泰愚대통령은 「통일을 빙자하여 국가의 정통성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단호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통일논의는 개방하되 통일추진의 주체는 정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대통령은 또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경우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北韓을 다녀온만큼 자의로 국법을 위반, 北으로 가서 金日成과 회담한 文목사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음.

<3月 31日>

北韓, 宗教團體를 對話通路로 이용

- 북한은 기독교라는 종교단체를 이용, 한국은 물론 미국등 외국과 그들이 의도하는 새로운 대화의 통로를 열고자 하고있으며 지난 88년말 평양에 세워진 가톨릭성당과 신교예배당 각각 1개소는 이같은 목적에 따라 건립된 것 같다고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誌가 보도했음.



# 4 月 動 向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4月 1日  | 北韓, 文목사 사법처리관련 성명 발표     |
| 4月 1日  | 北韓, 「5·1節」 기념행사 공동개최 제의  |
| 4月 1日  | 북한, 日과 정치회담 用意 시사        |
| 4月 2日  | 美·北韓 非政治交流 활발            |
| 4月 3日  | 文목사, 허담과 공동성명 발표         |
| 4月 3日  | 政府, 文목사·허담 공동성명 논평       |
| 4月 3日  | 기독교계, 文목사 방북에 유감 표시      |
| 4月 4日  | 全民聯, 文·許 공동성명관련 기자회견     |
| 4月 4日  | 北韓 고위관리, 개방·개혁 불필요 주장    |
| 4月 4日  | 黨政, 북한과 개별 民間交流 불허       |
| 4月 5日  | 통일원장관, 對北政策 전면 재검토 부인    |
| 4月 5日  | 법무장관, 정부승인 없는 대북접촉 의법 처리 |
| 4月 5日  | 북한, 日의 관계개선 제안 환영        |
| 4月 6日  | 文목사, 동경서 기자회견            |
| 4月 11日 | 北韓,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일방연기      |
| 4月 11日 | 經協조사단, 訪蘇무기 연기           |
| 4月 12日 | 政府, 남북관계 개선 지속 추진        |
| 4月 13日 | 政府, 모든 남북대화 당분간 보류 예정    |
| 4月 17日 | 北韓, 日외교관 접촉 허용           |
| 4月 18日 | 北韓, 南北對話 일방연기            |
| 4月 20日 | 全大協, 평양축전 실무회담 개최 제의     |
| 4月 21日 | 蘇聯, 韓人문제 한국과 직접 협상 용의    |
| 4月 22日 | 政府, 「南北交流協力指針」마련         |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4月 25日 | 金日成, 趙紫陽과 회담            |
| 4月 25日 | 韓赤, 「北은 직통전화 政治이용 말라」   |
| 4月 25日 | 남북기독교인, 미국서 첫 합동 예배     |
| 4月 25日 | 黃哲暎氏,北韓과 남북공동 定刊物創刊에 합의 |
| 4月 26日 | 美國,對北韓 수출 허용            |
| 4月 27日 | 金日成, 趙紫陽과 2차회담          |
| 4月 28日 | 北赤, 書翰 선별접수 방침 비난       |
| 4月 29日 | 政府, 北方交流 기본지침 확정        |
| 4月 29日 | 北韓, 4당대표·재야 55명 평양축전 초청 |

<4月 1日>

北韓, 文曷사 사법처리 관련 성명 발표

- 北韓은 1일 韓國정부가 文益煥曷사를 사법처리할 경우 남북대화를 포함한 南北韓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날 北韓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韓國정부의 文曷사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反北대결정책으로 통일 기운을 말살하고 2개 조선을 조작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하고 또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文益煥曷사를 탄압하게 된다면 그들 스스로 우리와 대화도 하지 않고 통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4月 1日>

北韓, 「5·1節」 기념행사 공동개최 제의

- 北韓은 31日 「직업총동맹」(위원장 김봉주) 명의로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올해 5·1절(메이데이)에 남북한노동자들이 상호 방문,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음.

<4月 1日>

北韓, 日과 政治會談 用意 시사

- 북한 정치국원인 許鎔은 31日 일본자민당대표단의 평양방문, 북한노동당 대표단의 訪日, 후지산호문제 등 세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앞으로 정치회담 등을 통해 협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음.

- 교도통신은 許鏊이 일본사회당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중인 다나베 마코도(田邊誠) 前서기장과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 <4月 2日>

##### 美·北韓 非政治 交流 활발

- 美國과 北韓사이엔 非정치적 교류가 올해 들어 활기를 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31日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사회과학원 교수 박창곤 등 4명이 미국 4개 대학교의 초청으로 오는 4月 5日부터 5月 3日까지 이들 대학교를 방문, 관계 美교수들과 한반도와 東北亞 정세에 대한 세미나를 가질 것이라고 알려졌다.
- 북한은 또 종교인 4명을 美 NCC(전국 교회 협의회)가 오는 4月 23日부터 26日까지 4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통일정책회의에 참석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폐쇄정책으로 지금까지 북한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美학계는 북한학자 초청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측은 美대학교의 개별초청에 초청대학교를 순회 방문하는 포괄수락의 형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美국무성은 10·31조치에서 박헌바와 같이 美·北韓간의 학자, 문화, 스포츠 등 非정치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으로 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4月 3日>

##### 文목사, 허담과 공동성명 발표

- 北韓을 방문중인 文益煥목사는 1日 金日成과 두번째 면담을 가진데 이어 2日 北韓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간부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9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의 北韓방문을 끝냈다.

- 北韓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許鎔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文益煥목사 이름으로 서명된 이 공동성명은 통일과 관련해
  - 7·4南北성명의 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에 기초한 해결
  - 공존의 원칙에 입각한 연방제방식이 필연적인 통일방도라는데 견해의 일치를 본것으로 北韓방송들은 전했다.
- 한편 김일성은 1일 문목사 일행을 숙소로 방문, 면담하고 이 자리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와 관련, 4당 총재와 金壽煥추기경, 白基玩 씨 등에 대한 초청이 아직 유효하며 개별 혹은 집단방문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4月 3日>

政府, 文목사·허담 공동성명 논평

- 崔炳輔 통일원대변인은 북한조국평화통일위 위원장 許鎔과 文益煥목사의 공동성명에 대한 논평을 발표, 「북한은 일관된 통일전략노선을 되풀이함으로써 우리 재야인사를 對南정치공작에 이용해 또 하나의 무례한 망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북한이 對南책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와 평화와 통일의 길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4月 3日>

기독교계, 문목사 방북에 유감 표시

- 한국 기독교 남북문제 대책 협의회와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등 국내 15개 기독교 연합단체는 최근 물의를 빚은 문익환氏의 불법적 평양행이 한국 기독교 목사 전

체의 의사인양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 남북통일문제는 남과 북의 국민과 정부당국자의 체계있는 절차에 따른 대화와 상호이해 합의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범민족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4月 4日>

#### 전민련, 文·許 공동성명관련 기자회견

-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산하의 「문익환 선생 환영위원회」는 文益煥·許鏞 공동성명 발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성명은 7·4공동성명에서 확인된 통일원칙과 같은 것이며 또 현정권이 발표한 7·7선언의 내용과도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며 「文 목사의 공동성명 기본정신과 통일방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4月 4日>

#### 북한 고위관리, 개방·개혁 불필요 주장

- 북한은 소련의 글라스노스트(개방)나 중국식의 경제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언젠가는 밀려 있는 對서방부채를 청산할 방침이라고 북한의 한 고위관리가 밝혔다.
- 북한의 대외문화연락협회의 대변인 역을 맡고 있는 강종일은 북한은 다른 공산국가들의 개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발전하며 우리는 金日成주석이 설정한대로 우리의 독자적인 국가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月 4日〉

黨政, 北韓과 개별 民間交流 불허

- 정부와 民正黨은 文益煥목사의 訪北사건에 따라 지금까지의 對北정책을 재검토, 北韓 측이 文목사사건을 통해 南韓의 사회교란을 꾀하고 있다고 보고 개별적인 민간교류는 일체 不許하되 기존의 공식적인 대화창구만은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으며 그밖의 物的 교류도 정부로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원칙을 세웠음.
-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南北高位當局者會談 예비회담·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경제회담·체육회담 등 공식대화는 계속 유지되며 人的·物的 교류분야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정비될때까지 사실상 보류됨.

〈4月 5日〉

통일원장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부인

- 이홍구 통일원 장관은 문익환 목사의 방북의 여파로 정부가 남북회담 추진 등 대북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일부보도를 부인하고 「정부·여당 내에서 문익환 목사 방북 충격에 대한 국민감정을 고려, 대북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특별한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따라서 인적·물적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4月 5日〉

법무장관, 정부승인 없는 대북접촉 의법 처리

- 許亨九 법무부 장관은 문익환씨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정부는 文씨가 귀국하는 데

로 엄정하게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許장관은 또 「개인이 독자적 판단에 의해 함부로 對北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무정부상태를 초래하고 통일정책수행에 지장을 가져온다」며 「앞으로 정부의 승인없이 민간단체나 개인이 對北會談提議, 회담준비 등 對北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모두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음.

#### <4月 5日>

北韓, 日의 관계개선 제안 환영

- 북한의 김일성은 일본 정부의 對북한 관계개선 제안을 환영하면서 일본이 북한에 대해 비우호적 태도를 시정한다면 日·北韓 관계는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우노·소스케 일본외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정부가 다케시타 수상외의 관계개선 제의를 수락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반적으로 북한이 보다 전진적인 태도를 갖게 된 데 대해 우리는 신뢰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月 6日>

文목사, 동경서 기자회견

- 북한을 방문했던 文益煥목사는 5일 일본에 도착,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방북에 관한 입장과 金日成과의 회담내용을 상세히 밝혔음.
- 기자회견에서 文목사는 金日成과의 두차례에 걸친 면담내용을 설명하면서 金日成주석이 면담중 즉석에서 盧泰愚대통령이 단독으로 와도 좋다고 발표하라고 배석한 서기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고 오랜 숙제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月 11日>

北,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일방연기

-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북한측 白南俊단장은 12일로 예정된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을 위한 3차 예비회담을 오는 26일로 연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음.

<4月 11日>

經協조사단, 訪蘇 무기 연기

- 오는 14일 출발예정이던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소련공식방문이 최근 文益煥목사의 訪北파문등과 관련, 무기연기 되었음.
- 국내기업인 경협조사단의 訪蘇를 주관해 온 全經聯의 이같은 결정은 文목사 사건을 계기로 북방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정부측의 강경한 입장과 우리나라의 對蘇접근에 대한 미국측의 견제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4月 12日>

政府, 남북관계 개선 지속 추진

- 정부는 「文益煥씨가 북한에 불법으로 왕래했다고 해서 우리의 북방정책이나 통일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7·7선언에 입각하여 남북관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중국·소련 등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북방정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것」이라고 밝혔음.

<4月 13日>

政府, 모든 남북대화 당분간 보류 예정

- 정부는 文益煥목사에 대한 司法처리를 어느정도 일단락짓고 각종 南北대화를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한 당국자는 「北韓측이 12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을 연기 통고해 온 마당에 체육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너무 한가로운 일이며 우리가 굳이 필요성과 時宜性이 없는 회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정부는 北韓측이 오는 26일로 연기요청해 온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의 날짜를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月 17日>

北韓, 日 외교관 접촉 허용

- 北韓은 제3국에서의 국제회의나 파티에서 日本 외교관과의 접촉을 금지해오던 종래의 태도를 변경, 각국 재외공관에 日本외교관과의 접촉을 해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지(日經) 신문이 보도했다.

<4月 18日>

北韓, 南北對話 일방연기

- 北韓측이 17일 남북고위당국자 예비회담과 남북체육회담을 「세계청년학생축전」개최 이후로 연기하자고 일방통고해 옴으로써 남북대화가 상당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전통문을 통해 18일로 예정된 제3차 남북체육회담과 오는 26일로 수정제의해왔던 제3차 남북고위당국자 예비회담을 오는 7월18일과 7월12일로 각각 연기하자고 통보해왔음.

<4月 20日>

全大協, 평양축전 실무회담 개최 제의

-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연기된 제13차 세계청년 학생축전 실무회담을 오는 28일 오후 3시 판문점에서 갖자고 북한 조선학생 위원회에 공개 제의했음.
- 전대협은 이 회견에서 이번 실무회담의 의제 역시
  - 남북한 공동의 학술·문화·예술행사 개최 문제
  -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공동선언문 채택문제
  - 체육대회 교환개최 문제
  - 전대협의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방식 등 4개항으로 하자고 제의했음.

<4月 21日>

蘇聯, 韓人문제 한국과 직접 협상 용의

- 소련은 사할린잔류 한국인들의 가족재회 등 인적 교류를 위해 앞으로 한국과 직접대화를 틀 용의가 있다고 베라노소프 사할린공산당서기가 밝혔음.
- 베라노소프 서기는 일본 사회당 소속 이가라시·고조 의원과 회담한 자리에서 「장차 한국과 사할린이 힘을 합쳐 교류문제를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밝힘으로써 지금까지 일본을 중개로 한 이산가족 재회 및 교류방식을 전환할 뜻을 분명히 했다고 共同通

신이 보도했음.

<4月 22日>

정부, 「남북교류협력지침」 마련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1차회의를 열어 남북주민간 상호방문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하고 南北간 협력사업은 주무부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기본지침」을 마련했음.
- 이날 마련된 기본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남북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침에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구나 단체에 남북교류협력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음.

<4月 25日>

金日成, 조지양과 회담

- 북한의 김일성은 평양을 방문한 중국의 趙紫陽 당총서기를 위해 배운 만찬석상에서 「중국이 현재 추진중인 개혁 개방정책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 것으로 中國관영 新華社통신이 보도했음.
- 新華社통신은 金日成이 남북대화를 타개하고 민족화해를 실행키 위해 盧泰愚대통령의 訪北 및 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金日成은 이날 韓國의 盧泰愚대통령을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부르면서 盧대통령의 平壤방문을 초청했음.
- 金日成은 이어 韓半島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美國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美國에 대해 평화적 조치를 취하고 통일사업에 간여치 말것을 요구했다

고 이 통신이 전했음.

<4月 25日>

韓赤, 「北은 직통전화 政治이용 말라」

- 金相浹대한적십자사총재는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위원장 孫成弼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직통전화가 赤十字人 본래의 사명을 벗어나 남북간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논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편지나 전화통지문의 전달에 이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귀하의 협조를 요망한다」고 전하고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25일 귀측의 편지를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린다」고 통보했음.
- 북한측은 이보다 앞서 지난 22일 평양청년학생축전과 관련하여 25일에 서한을 보내겠다는 전화통지문을 보내겠다고 통보해왔음.

<4月 25日>

남북기독교인, 미국서 첫 합동예배

- 조국이 분단된 지 45년만에 남과 북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합동예배를 가졌음.
- 23日 미국의 수도 워싱턴 교외의 체비 체이스 4-H회관에서 개막된 「한국 / 조선의 평화·통일 협의회」에 참가한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KNCC)의 권호경 총무 일행과 조선기독교도연맹 고지준 서기장 일행은 회의장 근처의 연합감리교회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도하는」 예배를 올렸음.

〈4月 25日〉

黃皙暎氏, 北韓과 南北공동 定刊物 創刊에 합의

- 북한을 방문중인 黃皙暎씨는 남북한 문화예술인들이 조국 재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북한관영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합의문은 극예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은 물론, 북한의 작품과 남측의 진보적인 창작물이 같이 게재되는 정기간행물을 창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 양측은 이밖에도 남북한 문화예술인의 보다 심도있는 회동을 준비하기 위해 빠른시일안에 예비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4月 26日〉

美國, 對北韓 수출 허용

- 미국 상무부는 對北韓 수출규제규정을 일부개정, 기본적인 인도적 상품의 對북한상업수출을 허용했음. 미국 상무부의 이번 관계규정 개정은 작년10월 미국무부가 인도적 상품의 對북한상업수출 허용등을 포함하는 對북한 제재완화조치를 발표한데 따른 구체적 후속조치임.

〈4月 27日〉

김일성, 조자양과 2차회담

- 중국의 조자양 공산당 총서기는 김일성과의 두번째 회담을 가졌음.
- 이 회담에서 김일성 주석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연방제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종래의 주



장을 되풀이 했으며, 조자양 총서기도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해 남북한과의 3자회담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베이징 방송이 전했다.

<4月 28日>

北赤, 書翰 선별접수 방침 비난

- 北韓의 孫成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金相浹대한적십자사 총재앞으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 「세계청년 학생축전 준비위원회가 귀측에 보내는 편지를 28일 상오 11시 관문점중립국 감독회의실에서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24일 우리측이 밝힌 남북직통전화 선별운용방침을 강하게 비난했음.

<4月 29日>

政府, 北方交流 기본지침 확정

- 정부는 姜英勳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남북 및 북방교류 협력 조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확정했음.
-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 시행될 이번 지침은 그동안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제정 운용해 오던 對북방교류 관련 각종 규정 지침을 종합정비,
  - 북방교류협력은 국가안보·우방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해 추진하고
  - 국내거주 국민이 북방사회주의국가를 여행할 경우 외무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고
  - 해외여행중일 때는 재외공관장을 경유,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음.

<4月 29日>

北韓, 4黨 대표·재야 55명 平壤축전 초청

- 北韓측은 平壤방송과 중앙방송을 통해 오는 7월 개최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우리측 4黨대표와 在野인사 55명을 명예손님으로 초청한다고 방송했다고 통일원이 밝혔다.
- 초청대상인사는 金大中·金泳三·金鍾泌·朴浚圭씨 등 4黨 대표, 文益煥·白基玩·李富榮·高銀씨 등 재야단체 인사, 全大協 임시의장 任鍾皙 등 학생단체대표, 韓國신문협회회장 등 언론인대표, 서울大·延大·高大·西江大·朝鮮大·漢陽大 총장 등임.

# 5月動向



| 日  | 字   | 主 要 內 容                           |
|----|-----|-----------------------------------|
| 5月 | 2日  | 北韓, 美에 外交官접촉 格上요구                 |
| 5月 | 2日  | KNCC · 北 기독교聯, 서울 · 평양 상호방문 합의    |
| 5月 | 2日  | 安企部, 文목사 방북사건 수사발표                |
| 5月 | 3日  | 美國, 한국에 北韓과의 접촉 내용 설명             |
| 5月 | 5日  | 北韓, 文목사 일행 수사결과 비난                |
| 5月 | 7日  | 北韓, 세계청년학생축전 관련 남북 6개단체 회담 제의     |
| 5月 | 11日 | 美洲 民藝協, 북한과 문화교류 합의               |
| 5月 | 12日 | 黃皙暎氏, 남북한 상호인정 필요성 역설             |
| 5月 | 13日 | 남북대화 북한대표단, 文목사 석방등 요구            |
| 5月 | 14日 | 美헤리티지 재단, 한국에 혁신적 무기배치 제안         |
| 5月 | 16日 | 中 · 蘇 頂上會談 30년만에 개막               |
| 5月 | 18日 | 美國, 北韓과 4次 접촉                     |
| 5月 | 18日 | 고르바초프, 소련극동군 12만명 일방감축 제의         |
| 5月 | 18日 | 北韓, 무기수입 세계 3위                    |
| 5月 | 19日 | 외무부, 중소정상회담 논평                    |
| 5月 | 20日 | 美紙, 「부시재임중 주한미군 부분철폐」 예상 보도       |
| 5月 | 21日 | 北韓, 南北對話 불필요 역설                   |
| 5月 | 21日 | 北韓, 평양축전 예비회담 개최 수정제의             |
| 5月 | 23日 | 北韓學者, 美國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긴장완화 심포지엄에 참석 |
| 5月 | 25日 | 北韓, 남북역사학자회담 개최 제의                |
| 5月 | 26日 | 美관리, 對北 접촉내용 설명                   |
| 5月 | 26日 | 우리측,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제의               |
| 5月 | 29日 | 政府, 北方交流協力 指針 發令                  |

<5月 2日>

北韓, 美에 外交官 접촉 格上 요구

- 北韓은 작년말 이래 세차례에 걸쳐 北京에서 이루어진바 있는 美·北韓외교관 접촉의 格上을 美측에 要求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北韓은 참서관권으로 이루어진 접촉대신에 「전문가 회의」를 要求함으로써 회담격상을 제의하고 있다고 美국무성 고위관리들이 지난주 朴哲彦 대통령정책담당 보좌관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月 2日>

KNCC·北 기독교聯, 서울·평양 상호방문 합의

- 지난달말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南北韓평화통일협의회」에 참석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KNCC와 北韓의 조선기독교도연맹이 서울과 平壤을 상호방문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5月 2日>

安企部, 文목사 訪北사건 수사발표

- 국가안전기획부는 文益煥목사일행의 입북사건은 북한의 치밀한 사전계획아래 추진돼 온 정치공작이라고 발표했다.
- 安應模안기부 제1차장은 이날 「文益煥 등 밀입북사건 수사결과」를 발표, 북한은 최근 우리사회의 통일논의가 활성화되는 등 국내정세가 통일전선 형성에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 그들의 대남선전동전술을 적극화하기 위해 소위 「민중대표」와의 남북정치

협상이라는 미명아래 在日정치공작원 鄭敬謨씨를 포섭하고, 유원호씨를 연락공작원으로 하여 국내과격통일론자들을 밀입북시켜 꾸민 사건이라고 밝혔음.

<5月 3日>

美國, 한국에 북한과의 접촉 내용 설명

- 美國務部の 한 대변인은 朴哲彦 청와대 정책담당보좌관과의 접촉에서 작년 12월과 지난 1~2월에 각각 北京에서 가졌던 북한외교관들과의 접촉 내용에 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對북한접촉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朴보좌관은 이에 대해 이해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5月 5日>

北韓, 文목사 일행 수사결과 비난

- 북한은 文益煥목사일행의 방북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명의로 공동성명을 내고 이를 「날조된 반공모략각본」이라고 강조하면서 文목사의 입북이 「자신의 신념과 통일의지에 따라 그 자신에 의해 계획되고 준비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5月 7日>

北韓, 세계청년학생축전 관련 남북 6개 단체 회담 제의

- 북한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한국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등과 한국의 全大協·남북대학생 교

류추진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회담개최를 주장했음.

- 북한은 6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표회담을 오는 5월 20일 관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했음.

<5월 11日>

美洲 民藝協, 北韓과 문화교류 합의

- 美洲 민족문화예술인 연합회(民藝協)는 로스앤젤레스의 시몬스화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과 문화교류를 추진하기로 북한의 문학예술인총동맹(문예총)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주요내용은 북한과 해외동포간의 음악교류, 북한과 미주 예술인들의 공동문학예술작품집 발간, 북한 예술공연단의 미주공연 추진, 미국이나 제3국에서 북한과 해외문화 예술인의 만남의 추진 등임.

<5월 12日>

黃皙暎氏, 南北韓 상호인정 필요성 역설

- 일본에 체류중인 황석영씨는 아사히 신문의 기고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작가들이 먼저 북한에 가봐야 한다는 나의 신념때문에 모든 정치적 위험을 무릅썼다」고 설명하고 「남북한은 이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5月 13日>

남북대화 북한대표단, 문목사 석방 등 요구

- 남북대화의 북한대표들은 11일 평양에서 모임을 갖고 북한을 방문한 뒤 구속된 문목사 석방을 요구했다고 이곳에서 청취된 북한관영 <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중앙통신>은 이 집회가 「문목사와 기타 민주인사에 대한 남한당국의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으며 이 대회에서 윤기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남한당국이 문 목사를 무조건 조속히 석방할 것과 국가보안법을 지체없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음.

<5月 14日>

美 헤리티지 재단, 한국에 혁신적 武器 배치 제안

-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한 아시아문제 전문가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측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핵무기의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남침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하고 효율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무기「ET (Emerging Technologies)」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5月 16日>

中·蘇 頂上會談 30年만에 개막

- 중국을 방문중인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 의장은 15일 楊尙昆 중국국가주석과 30년만에 처음으로 中蘇정상회담을 가졌음.
-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이 회담에서 「지난 30년간 中蘇양국을 갈라놓은 냉전에는 소련

도 큰 책임이 있다」고 시인하고 「이같은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음.

- 이에 앞서 고르바초프는 15일 북경에 도착, 중소정상회담을 위한 방문일정에 들어갔음.

#### <5月 18日>

##### 美國,北韓과 4차 접촉

- 미국과 북한의 北京주재 중견외교관들이 지난 15일 4번째의 접촉을 가졌다고 외무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음.
- 이 당국자는 「미국측이 지난 15일 북경에서 북한외교관과 접촉을 갖기 직전 우리정부와 사전협의를 가졌으며, 접촉후에는 접촉사실과 그 내용을 전해왔다」고 밝혔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음.
- 그는 이번에 접촉을 가진 양측 외교관들의 직급에 대해서는 중견외교관이라고만 말했으나 참서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 <5月 18日>

##### 고르바초프, 소련 극동군 12万명 일방감축 제의

- 중국을 방문중인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은 17일 극동지방에 배치된 소련군 12만명을 90년말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에 상응, 미국도 주한미군 4만명을 철수하라고 촉구했음.
-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민주적 통일을 위한 북한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 한다」고 언명, 북한측 입장을 지지했음.
- 한편 고르바초프서기장은 이날 하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문제에 다시 언급 「남북한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 「이 대화에는 남북한과 中, 蘇, 미국, 그리고 일본도 당연히 참가해야 한다」고 말해 6자회담을 제의했음.

<5月 18日>

北韓, 무기 수입 세계 3位

- 국제평화연구소는 87년과 88년의 15大 무기수출입국의 무기수출입 현황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인도, 이라크에 이어 세계 제3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부상했다고 말했음.

<5月 19日>

외무부, 중·소 정상회담 논평

- 외무부 고위당국자는 中國을 방문하고 있는 「고르바초프」 蘇聯공산당서기장이 주한 미군철수를 주장한데 대해 「蘇聯이 北韓에 신예무기를 계속 공급하는 한 北韓의 남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음.
- 이 당국자는 이날 中蘇정상회담과 관련한 논평에서 「中蘇관계정상화가 아시아지역,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中蘇의 개방의지가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지켜보아가면서 7·7선언에 따라 우리의 北方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음.

<5月 20日>

美紙, 「부시 재임중 주한미군 부분철수」 예상 보도

- 駐韓미군의 부분적 철수가 궁극적으로 「부시」행정부기간중 개시될 것이라고 美國의

아시아문제 전문가들이 믿고 있다고 美로스앤젤레스 타임스紙가 보도했음.

- 한편 「에드윈·마이어」前 미육군참모장은 카네기 평화재단의 폴 H 크라이스버그 수석연구원과 함께 뉴욕 타임스紙에 공동기고한 글을 통해 韓國의 경제력·군사능력·정치활성화 등에 의한 自衛능력신장을 이유로 들어 주한미군의 부분삭감은 가능하고도 적절하다고 주장했음.
- 이어 그들은 「만일 남북한이 상호 신뢰구축 조치에 수반하여 상호감군에 합의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감축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5月 21日>

##### 北韓, 南北對話 불필요 역설

- 北韓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병수는 南北대화의 전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재로서는 대화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
- 平壤방송에 따르면 이날 안병수는 平壤에서 「최근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통보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韓國정부의 反共정책으로 南北關係의 분위기가 악화됐다고 비난한 뒤 「지금 상태에서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마주 앉을 수도 없으며, 마주 앉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해결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음.

#### <5月 21日>

##### 북한, 평양축전 예비회담 개최 수정제의

- 북한은 20일 남한의 3개 청년·학생단체에 대해 7월의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를 다시 제의했다고 도쿄에서 수신된 북한 <중앙방송>이 보도했음.
- <중앙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위원회는 이날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 등 3개 단체에 대해 오는 6월5일 서울이나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을 열자고 제의하고 이번 제의는 20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예비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데 따른 새로운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5月 23日>

北韓學者, 美國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긴장완화 심포지엄에 참석

- 북한학자 4명이 워싱턴에 카네기재단에서 개최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학자들의 이번 심포지엄 참석은 미국이 지난해 10월말 對북한 유화조치를 취한 후 하와이대학에서 개최된 2번의 회의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관한 회의에 이어 북한인들로서는 4번째 회의 참석이 되는 것임.

<5月 25日>

북한, 남북역사학자회담 개최 제의

- 북한은 미국에서 한반도 역사를 왜곡한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문제를 협의키 위한 남북 역사학자 회담을 오는 6월15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음.
- <평양방송>과 <중앙방송>에 따르면 이 공개 서한의 수취인은 박영석(국사편찬위원장), 안병욱(한국 역사연구회장), 김원룡(서울대 교수)씨로 돼 있으며 북한쪽 발신인은 전영률(북한 역사학회장), 김석형(사회과학원 교수), 박시형(김일성대학 교수) 등으로 알려졌다.

<5月 26日>

美관리, 對北 접촉내용 설명

- 美국무부의 한 관리는 北京에서 있던 4차례의 美·북한 외교관접촉에 대한 한국내 일부의 우려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알고 있으며, 결코 거기에 말려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 이 관리는 「지금까지 4차례의 접촉을 통해 나타난 북한측 의도는 우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駐韓美軍철수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미국과의 직접 대화 채널을 가짐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을 소외시키고 韓·美관계에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이 관리는 이어 「지금까지 4차례의 접촉에서 진전이 이뤄진 것은 없다」고 거듭 확인하고 「여기에 진전이 있으려면 우선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북한측에 되풀이 해 강조했으며, 이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음.

<5月 26日>

우리측,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제의

- 南北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의 蔡汶植수석대표는 北韓측 단장 全琴哲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6월 중순 板門店 평화의 집에서 제8차 준비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음.
- 蔡수석대표는 이 서한에서 지난해 12월 29일 관문점 통일각에서 제7차 준비접촉을 가진 이후 北韓측의 일방적 연기선언으로 5개월이 지나도록 제8차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86년초에 이어 또다시 준비접촉 자체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귀측의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月 29日>

政府, 北方交流協力 指針 發令

- 정부는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국무총리훈령으로 발령했다.
- 이 지침은 국내거주국민이 中國, 蘇聯 등 14개 미수교 사회주의국가를 여행할 때는 외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부부장관은 대상국가를 자주 여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1년 범위내에서 복수여행을 허가하는 등 공산권국가와 관련한 여행, 통상 및 일반교류 협력사업 등을 규정해 놓고 있음.





# 6月動向



| 日 字    | 主 要 内 容                     |
|--------|-----------------------------|
| 6月 1日  | 한국국제정치학회, 통일논의 관련 학술회의 개최   |
| 6月 1日  | 北韓, 2次고향방문단 교환관련 실무대표접촉 제의  |
| 6月 1日  | 국방부, 民統線 대폭 北上조정            |
| 6月 2日  | 北韓學者들, 美·北韓 직접협상 주장 되풀이     |
| 6月 2日  | 金大協, 北에 平祝관련 6者회담 제의        |
| 6月 3日  | 北韓, 남북한 종교인 회담 제의           |
| 6月 3日  | 美, 북한학자와 한반도문제 의견 교환        |
| 6月 3日  | 美上院의원, 주한미군 萬명으로 삭감주장       |
| 6月 4日  | 북한, 일본 관계 개선 무성의 태도 비난      |
| 6月 5日  | 金大中 평민총재, 주한미군 감축문제 긍정검토 주장 |
| 6月 6日  | 訪蘇 金泳三총재, 6개국 의원협의체 再提案     |
| 6月 6日  | 美유학신부, 평양방문                 |
| 6月 7日  | 訪蘇 김영삼總裁, 韓蘇 政治交流 提案        |
| 6月 8日  | 北韓, 평측 대표단 군사분계선 통과 협의 제의   |
| 6月 12日 | 韓赤, 제 11 차 적십자 본회담 개최 제의    |
| 6月 13日 | 政府, 남북교류기본지침 시행             |
| 6月 14日 | 金泳三 民主總裁, 許鎔과 회담            |
| 6月 14日 | 통일원장관, 한반도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 주장   |
| 6月 15日 | 한국사학자, 역사학자 회담 의제 확대 제안     |
| 6月 16日 | 北韓, 金·許회담 긍정적 반응            |
| 6月 17日 | 北韓, 판문점 북측지역 일방개방 선언        |
| 6月 17日 | 金大中총재, 美軍 감축 검토 주장          |
| 6月 17日 | 金泳三총재, 주한미군 존속 주장           |

| 日 字    | 主 要 内 容                      |
|--------|------------------------------|
| 6月 17日 | 全大協, 평양축전참가 대표단 구성 당국에 일임.   |
| 6月 21日 | 北韓,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재개 제의        |
| 6月 21日 | 政府, 학생 평축참가 不許기로 최종 확정       |
| 6月 21日 | 일본, 아시아지역 안정위해 북한에 經援 제공 주장  |
| 6月 22日 | 北韓, 고향방문단 실무자회담 개최 제의        |
| 6月 22日 | 北韓, 平祝에 한국학생 참관단으로 초청        |
| 6月 23日 | 우리측,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수정제의        |
| 6月 24日 | 美상원의원, 주한미군 만명 감축안 제출        |
| 6月 24日 | 金大中총재, 통일문제 논의위한 汎國民會議 설치 제의 |
| 6月 25日 | 全大協, 平祝관련 북한대표와 통화           |
| 6月 26日 | 金鍾泌총재, 주한미군 유지 주장            |
| 6月 28日 | 평민당 徐敬元의원, 작년 8월 訪北          |
| 6月 29日 | 통일원, 徐의원 입북관련 논평             |
| 6月 29日 | 盧泰愚대통령, 밀입북 사건 철저 수사 지시      |
| 6月 30日 | 黨政, 남북관계 전면 재검토              |
| 6月 30日 | 全大協, 대표 1명 평양파견              |

<6月 1日>

한국 국제정치학회, 통일논의 관련 학술회의 개최

- 한국 국제정치학회는 1~2일 「통일논의에의 새로운 접근」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음.
- 이 학술회의에서 宋大晟국방부 연구개발실장은 「한반도 군축타당성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한반도 군축은 통일의 핵심과제라고 전제,
  - 상호무력 불사용
  - 내정불간섭
  - 상호비방 중지 등을 내용으로 한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양측에서 5~10명으로 구성되는 군사위원회를 구성, 군축문제를 공동연구해 본격적인 군축을 실천하자는 5단계 군축실현방안을 제시했음.

<6月 1日>

北韓, 2次 고향방문단 교환관련 실무대표 접촉 제의

- 북한측은 31일 對南서한을 통해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적십자실무대표 접촉을 오는 16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해 왔음.

<6月 1日>

국방부, 民統線 대폭 北上조정

- 국방부는 31일 휴전선부근의 민간인출입통제선(약칭 민통선)을 대폭 북상조정, 현재 출입이 통제된 민통선 북방지역 4억7천여만평 가운데 6천1백77만평을 6월1일부터 민

통선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 민통선은 지난 54년 2월3일 북한의 도발과 재남침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돼 그동안 이 지역내에서는 영농과 출입이 해당지역 軍當局의 통제를 받아 왔음.

<6月 2日>

北韓學者들, 미·북한 직접협상 주장 되풀이

- 美國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재단주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北韓학자들은 美·北韓평화협정체결, 美軍철수 및 핵무기협상 등 종전의 北韓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런 논의는 美·北韓간의 협상이어야함을 강조함으로써 美·北韓협상에서 韓國을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또다시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음.

<6月 2日>

全大協, 北에 평측관련 6者會談 제의

-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산하 평양청년학생축전 준비위원회는 평양축전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측이 오는 5일 열자고 제안한 전대협·전국 청년단체 대표자협의회, 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와 북한측의 조선학생위원회, 사로청(社勞靑) 중앙위원회, 조선 축전 준비위가 참가하는 6자 회담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연세대 1백주년 기념관에서 가질 것을 제안했음.
- 전대협은 이와함께 북측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10일의 6자회담 참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 제3국을 통해 입국토록하고 구체적인 입국경로를 오는 5일 이전에 알려줄 것」을 요구했음.

<6月 3日>

北韓, 南北韓 종교인 회담 제의

- 북한은 남북한 종교인회담을 6월 하순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했음.
- 북한 「종교인협의회」는 이날 한국종교인 협의회 앞으로 보내는 서한에서 「북과 남의 종교인들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는 것이 북남종교인들의 단합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위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쌍방 각각 7명씩의 대표로 남북종교인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月 3日>

美國, 北韓학자와 한반도 문제 의견 교환

- 미국무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관한 심포지움에 옵서버로 참석했던 국무부 관리들이 북한측 참석자에 대해 남북한간 직접대화의 재개를 촉구했다고 말했음.
- 이 심포지움에서 미국은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재개하지 않으면 「미·북한 정부간의 접촉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음.
- 한편 북한측은 미국에 북한이 87년 7월23일 제안한 3단계 10만명 수준으로의 감군안, 단계적인 미군철수와 핵 철거 등 5개안을 거듭 주장하면서 미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관계자회의 개최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6月 3日>

美上院의원, 駐韓美軍 万명으로 삭감 주장

- 레빈 美上院의원은 현재 4만3천명의 주한미군을 1개여단병력으로 단계적으로 삭감하

는 구체적인 美軍철수안을 제시했음.

- 「레빈」위원장은 韓國을 비롯한 極東순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美國은 對韓안보공약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에 충분한 병력을 잔류시키는 한, 규모를 신속히 조금씩 늘려나가는 撤軍을 개시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음.
- 「레빈」위원장은 단계적·부분적 철군의 경우 5년 정도를 제시했음.

#### <6月 4日>

북한, 일본 관계 개선 무성의 태도 비난

-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관해 이제까지 성의를 보여오지 않았다고 북한 외교부 관리들이 말했음.
- 그들은 일본이 북한과의 정부간 접촉을 바라고 있다는 희망을 표명해 왔지만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포기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개의 한국」을 지지하는 기존정책을 수정하고 한반도 재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책변화를 추구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음.

#### <6月 5日>

金大中 평민 총재, 주한미군 감축문제 긍정 검토 주장

-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美上院에서 제기되고 있는 駐韓美軍감축문제를 이제는 우리도 상당히 긍정적 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음.
- 金총재는 이어 「우리나라에 核무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남북평화체제를 확립하는 의미에서나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의미에서도 주한미군 및 核무기철수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음.



<6月 6日>

訪蘇 金泳三 총재, 6개국 의원 협의체 再提案

- 방소길에 오른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2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음.
- 방소중인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5일 소련 과학 아카데미에서의 특별연설에서 「작년 본인이 訪日때 제안했던 동북아 6개국 의원협의체, 또는 多者間 의원협의체에서 한반도안정과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축을 위한 정치·경제·군사·민간교류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 이에 앞서 그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련도 남북한에 대해 동서독과 같은 관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음.

<6月 6日>

美유학 神父, 평양 방문

- 美國 유학중에 있는 한국 카톨릭교회 전주교구청 소속의 文圭鉉신부가 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일본통신이 보도했음.
- 이 통신은 文신부가 공항에서의 도착 성명에서 「분열의 세대에 있어 통일은 모두의 소원」이라고 말하면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金日成주석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음.
- 문신부의 방북은 천주교 서울教區聽과 사전 논의 없이 단독결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6月 7日>

訪蘇 金泳三總裁, 韓蘇政治 交流 提案

- 방소중인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6일 소련공산당 중앙위를 방문 브루텐츠 국제부 수석부 부장을 만나 양국간 정치·경제분야의 交流增進 문제를 논의했음.
- 金총재는 이 자리에서 「한·소관계 개선은 경제협력과 정치 교류를 함께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브루텐츠 부부장은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기존 입장은 先經濟協力 後政治交流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金총재의 공산당 중앙위 방문 회담은 韓蘇간 정치적 접촉을 의미하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음.

<6月 8日>

北韓, 평축 대표단 군사분계선 통과 협의 제의

- 北韓의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 崔용해위원장은 李洪九통일원장관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귀하가 지난 5월25일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남조선 대학생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쌍방 당국이 군사분계선 통과절차를 협의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주목한다」며 「남조선 학생들의 平壤학생축전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통과문제를 北南사이에 협의, 해결할 것을 정식 제의한다」고 말했음.
- 이 통지문은 이를 위해 南北쌍방에서 2~3명의 당국자들이 오는 14일 상오 10시에 板門店에서 회담을 갖자고 제의해 왔음.
- 이에 대해 통일원대변인은 논평을 발표, 「통일원장관이 우리측 대학생들의 平壤집회 참가를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 절차 문제를 협의하자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측이 이번 제의에서 마치 통일원장관이 그같은 발언을 한 것처럼 왜곡날조

하고 있다]고 반박했음.

<6月 12日>

韓赤, 제 11차 적십자 본회담 개최 제의

- 金相煥韓赤총재는 北赤의 孫成弼위원장 앞으로 對北서한을 보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제11차 南北적십자 본회담을 오는 7월11일 平壤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음.
- 金총재는 이 서한에서 「北측이 제의한 실무대표접촉은 쌍방 적십자사가 이룩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사항을 외면하고 우리 법질서를 위반한 특정개인과 北측의 非적십자단체와 합의를 앞세워 지금까지 南北적십자인들이 기울여 온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음.
- 金총재는 이어 「11차 南北적십자본회담을 개최하여 이미 합의한 의제 5개항의 사업토의와 함께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원칙에 합의하고 그 구체적 시기·규모·방법 등 절차마련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음

<6月 13日>

정부, 남북교류 기본지침 시행

- 정부는 남북한간 인적왕래를 할 때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13일부터 적용키로 했음.
- 지난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행정부 내부지침으로 적용하게 되는 이 기본지침은 남북한간 물자교역은 상공부가 마련한 「남북물자운영교류제도」에 따라 시행하고 남북한간 협력사업은 남북교류협력추진 협

- 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 또 이 지침은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협력사업등으로 북  
한주민과 접촉코자 할 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지침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예정일 4주전까지 방문목적에  
따라 해당주무부처를 경유, 국토통일원장관에게 북한방문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  
절차 및 구비사항은 통일원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6月 14日>

金泳三 민주당 총재, 許鎔과 회담

-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방소중이던 지난 6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許鎔위원장  
과 회담을 갖고 남북통일 및 평화정착문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고 밝혔음.
- 그는 許와의 회담은 북한측의 요청과 소련측의 주선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회  
담에서는 아무런 합의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음.
- 이 회담에서 許는 북한 金日成주석의 金총재에 대한 평양방문 초청을 전달하면서 金  
총재의 「결심」을 거듭 촉구했으나 金총재는 「평양방문을 희망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  
니라고 판단한다」는 말로 이를 거절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촉구했다고  
金총재를 수행중인 朴寬用 민주당통일특위 위원장이 밝혔음.
- 이번 회담에는 북한측에서 許위원장 외에 전금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안  
병수 서기국장이, 민주당측에서는 金총재외에 金相賢 부총재·黃秉泰 정책위의장·朴  
寬用 통일특위위원장이 각각 배석했음.
- 金총재는 출국전 북한측과의 접촉 가능성과 관련, 盧泰愚 대통령과 협의한바 있다고  
밝혔음.

<6月 14日>

통일원 장관, 한반도 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 주장

- 李洪九 통일원장관은 「韓半島문제는 南北의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美·蘇 등 강대국들이 주도적으로 이에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그는 또 노태우 대통령이 6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일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李장관은 「고르바초프」 蘇聯공산당서기장의 아시아 평화제의를 환영하나 蘇聯이 北韓에 「구체적이고 눈에 띄는 긍정적 역할을 했을 때」 韓國정부는 그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6月 15日>

한국사학자, 역사학자 회담 의제 확대 제안

- 박영석 국사편찬위원장, 김원룡 한림대 교수, 안병욱 성심여대 교수 등 한국사학자 3인은 북한이 제의한 남북역사학자회담에 대해 자료교환, 상호방문답사 등으로 의제를 늘려 회담을 갖자는 내용의 답신을 작성, 북한쪽에 전달해 주도국 관계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月 16日>

北韓, 金·許 회담 긍정적 반응

- 북한은 김영삼 총재와 허담간의 모스크바 회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같은 접촉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과 견해를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 나라의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쌍방이 협조해 나가는 첫걸음으로 되었다」고 논평,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이어 북한은 「이번 金·許 회담이 南北간의 여러갈래 대화를 주동하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 개별접촉을 통한 협상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음.

<6月 17日>

北韓, 판문점 북측 지역 일방 개방 선언

- 北韓은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 23일부터 판문점 북쪽 지역을 일방적으로 개방하고 5백명정도의 우리 청년학생들이 평양축전에 참가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당국은 북한이 이번 제의를 해온 것에 대해 정부는 「검토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음.

<6月 17日>

金大中 총재, 美軍감축 검토 주장

-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U.S & World news誌와 가진 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해 「남북한 평화관계의 진전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駐韓미군문제가 남북간 평화체제확립에 있어 걸림돌이 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의 자주의식과 책임감을 보더라도 우리 힘으로 국방책임을 져야 하며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음.

<6月 17日>

金泳三총재, 駐韓美軍 存續 주장

-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미국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연설을 통해 주한 미군 문제에 관해 「駐韓미군의 존재는 韓美양국뿐 아니라 전세계 자유질서의 신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철수문제는 남북간의 경제·문화 등 각종 교류가 실현되고 불가침조약체결, 군사적 대치상태의 단계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6月 17日>

전대협, 평양축전 참가 대표단 구성 당국에 일임

- 평양축전 참가와 관련 그동안 독자적인 참가를 주장해 온 전대협은 입장을 바꿔 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이같은 입장변화는 평양축전에 관한 정부당국의 정책방향을 대폭 수용한 것임.
- 전대협의 한 간부는 이날 「만일 정부당국이 평양축전 참가를 보장한다면 정부쪽에 참가에 따른 주요문제를 일임하는 형태가 될지라도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6月 21日>

北韓,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재개 제의

- 북한측의 全琴哲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대표는 우리측의 蔡汝植국회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서한을 보내 지난해 12월29일 이후 중단상태에 있는 제8차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오는 28일 재개하자고 제의해 왔음.

<6月 21日>

정부, 학생 평축 참가 不許기로 최종 확정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는 평양축전에 전대협 등 대학생참가를 불허기로 최종 결정, 발표했다.
- 정부 고위당국자는 「北韓이 전반적인 南北대학생 교류는 외면한 채 全大協등의 平壤 집회 참가문제만을 부각시켜 우리정부와 학생을 이간질 해 왔으며 全大協도 이에 동조, 정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참가를 추진해 왔다」고 말하고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데다 平壤집회자체가 反韓·反美투쟁의 정치행사이기 때문에 참여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6月 21日>

일본, 아시아 지역 안정 위해 北韓에 經援 제공 주장

- 아시아포럼 일본회의에서 日本은 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中國 및 蘇聯과 함께 北韓에 경제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번 회의의 참석자들은 北韓과 이웃국가들과의 관계강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6月 22日>

北韓, 고향방문단 실무자 회담 개최 제의

-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孫成弼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 金相浹총재 앞으로 보내는 서신을 통해 오는 7월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적십자실무접촉을 갖고 8·15를 계기로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을 교환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음.

<6月 22日>

북한, 平祝에 한국학생 참관단으로 초청

- 북한은 평양축전 조선준비위 성명을 발표, 이 행사에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표단이 아닌 참관단으로 참가해도 무방하다고 말했음.
- 이 성명은 이와 함께 白基玩씨 등 재야인사들이 조직한 「평양축전 참가를 위한 지도 위원단」의 위원단들도 평양축전의 명예손님으로 정식 초청하는 한편 金在淳국회의장 등 55명의 각계인사들에 대해서도 「청년학생들과 함께 평양에 오기를 열렬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6月 23日>

우리측,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수정 제의

- 蔡汝植 南北국회회담 우리측 수석대표는 南北국회회담 제8차 준비접촉을 오는 7월11일 板門店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수정제의 했음.

<6月 24日>

美 상원의원, 駐韓美軍 만명 감축안 제출

- 駐韓美軍감축을 요구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美의회에 제출됐음.
- 「데일·범퍼즈」 등 5명의 상원의원은 오는 90년부터 92년까지 2년동안 주한미군 1만 명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음.

<6月 24日>

金大中 총재, 통일문제 논의 위한 범국민회의 설치 제의

- 金大中 평민당 총재는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與·野 및 재야단체를 포함한 일반국민대표가 참가하는 범국민회의를 설치, 통일문제를 논의케 한 후 여기서 도출된 통일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정부안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음.

<6月 25日>

全大協, 平祝 관련 북한대표와 통화

- 전대협 대표 任鍾皙군은 남북한 청년학생단체회담에 참석키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 체류중인 북한측 대표 조선축전준비위 위원장 李찬영과 30분간 국제전화를 통해 평양축전참가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 李는 통화에서 「24일부터 축전이 끝날 때까지 판문점 북쪽을 완전 개방하는 등 남한 학생들의 축전참가를 위한 모든 실무적 준비가 끝났다」면서 「판문점 통과가 불허될 경우 제3국을 통해서라도 축전참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대협측은 밝혔음.

- 이에 대해 任군은 「만일 축전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공동선언문 채택 등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대답했음.

<6月 26日>

金鍾泌 총재, 주한미군 유지 주장

- 김종필 공화당 총재는 미국에서 열린 제8차 월드포럼 세계전략문제 전체회의에서 「金日成의 남침위협이 믿을만큼 해소되거나, 南北간의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게 될 2000년대초까지는 美軍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며 절대다수 韓國 국민의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음.

<6月 28日>

평민당 徐敬元의원 작년 8월 訪北

- 국가안전기획부는 평민당 徐敬元의원이 작년 8월19일부터 2박3일간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 金日成, 許鎔과 회담을 가진 사실을 밝혀내고, 徐의원을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음.
- 안기부에 따르면 徐의원은 한국 카톨릭 농민회장 재직때인 85년 3월 벨기에에서 열린 「카톨릭 국제농촌청년연맹」의 국제회의에 참석차 유럽을 방문했을 때 서독 프랑크푸르트 교민인 정모목사를 통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북한의 해외파견요원 정모 등을 소개받고, 정에게 「남북농민교류와 통일문제를 논의키 위해 金주석님을 만나고 싶으니 주선힌 달라」고 요청, 응낙을 받았다는 것임.
- 徐의원은 7월20일 金日成별장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許鎔이 배석한 가운데 金日成과 만났음.

- 안기부에 따르면 徐의원은 金과의 회담에서 통일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6月 29日〉

통일원, 서의원 입북 관련 논평

- 崔炳輔 통일원대변인은 평민당 徐敬元의원의 入北사건과 관련, 「당국과의 사전 절차 협의가 없는 개인적 入北과 같은 행동은 북한의 對南심리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음.

〈6月 29日〉

盧泰愚대통령, 밀입북 사건 철저 수사 지시

- 盧泰愚대통령은 「지난번 文益煥목사 사건에 이어 이번 徐의원의 평양방문 사실은 불행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이 그 동기와 목적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명백하고 단호하게 법적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盧대통령은 이어 南北관계와 관련, 「북한이 아직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국내 인사들을 공작차원에서 밀입국시켜 만나고 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는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들의 오만에 의한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月 30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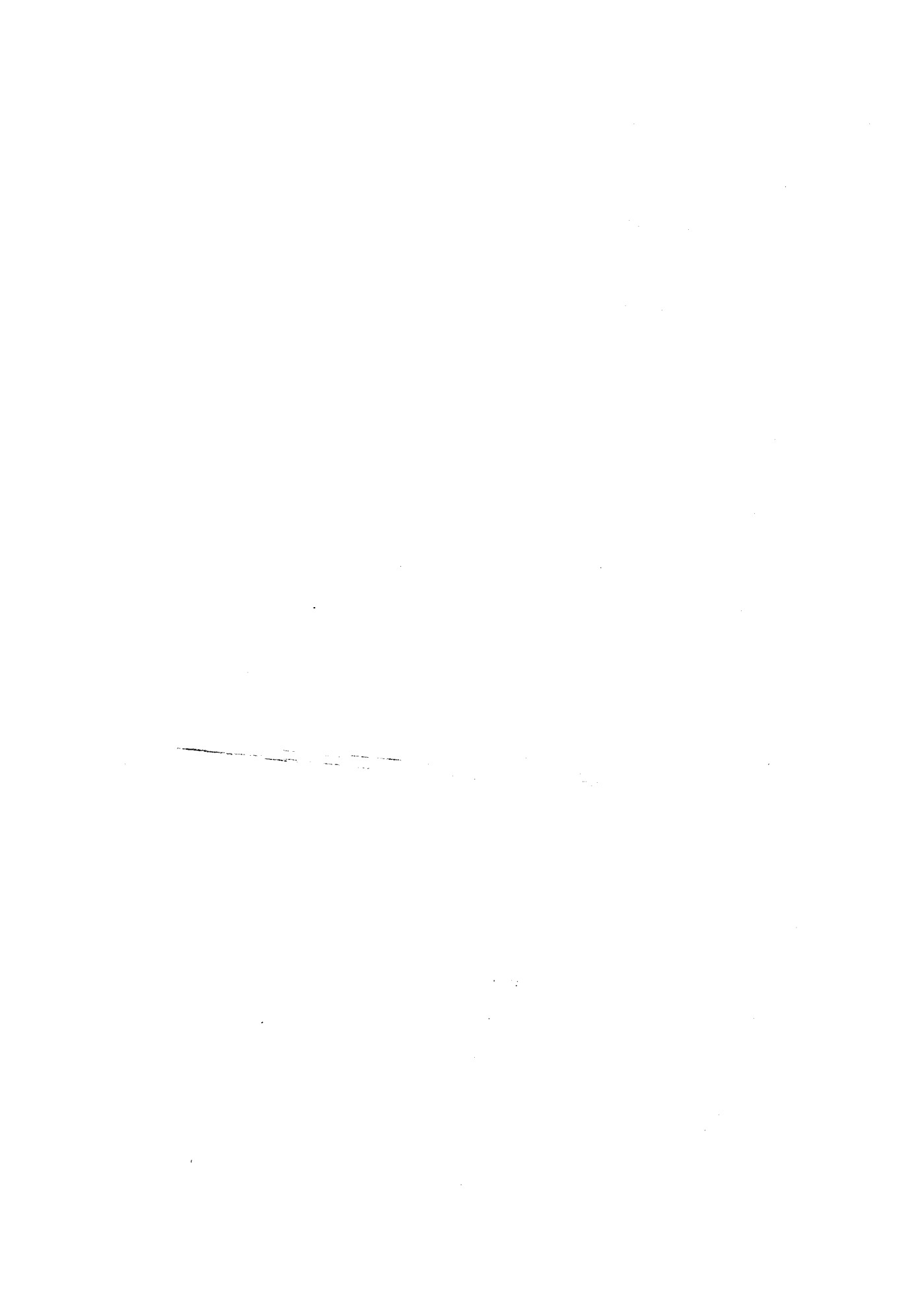
黨政, 남북관계 전면 재검토

- 정부와 민정당은 徐敬元의원 및 林秀卿양 등 밀입북자가 속출하고 북한연계세력의 사회각계침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점을 중시, 북방정책 및 좌익세력대처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기로 했음.
- 정부와 민정당은 특히 북한의 대남정치공작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회회담 등 각급 남북대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 남북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盧泰愚대통령의 7·7선언을 주체적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당분간 남북대화를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6月 30日>

全大協, 대표 1명 평양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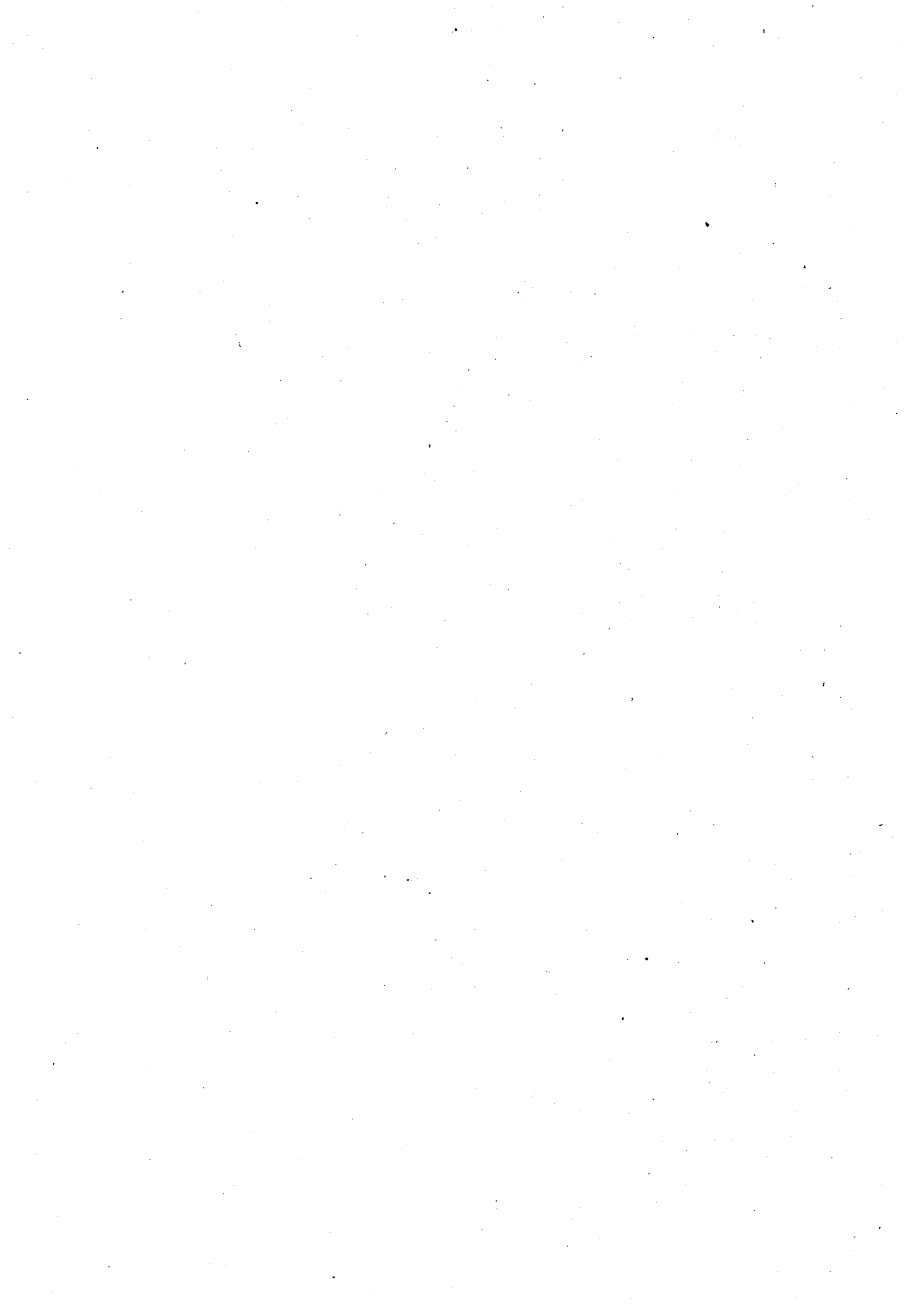
- 전대협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외국어대 불어과 4년 林秀卿양을 평양축전 남한대학생 대표로 파견했다」고 발표했다.
- 전대협은 林양이 평양축전에 참가하는 남한 학생측 공식대표 자격으로 갔다고 주장했으며 「林秀卿학우의 평양행은 비공개적이었으나 7천만 겨레의 통일염원을 담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임양의 방북은 전대협 의장 임종석 군이 지난 20일 임양을 만나 전대협 대표 자격과 평양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협조 요청서」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이를 전달받은 임양은 평양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21일 서울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

# 7月動向

---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7月 1日  | 訪北 林秀卿양, 평양서 기자회견           |
| 7月 4日  | 訪北 林秀卿양, 평양서 2차 기자회견        |
| 7月 4日  | 民正黨 李鍾贊사무총장, 북방정책 전면 재검토 주장 |
| 7月 5日  | 統一院長官, 각종 南北會談 무기연기 시사      |
| 7月 5日  | 黨政, 7·7선언 사실상 수정            |
| 7月 5日  | 全大協, 南北共同宣言文 발표             |
| 7月 6日  | 외무부, 北方外交와 對北정책 분리추진 검토     |
| 7月 6日  | 우리측, 국회회담 준비접촉 무기연기 통보      |
| 7月 7日  | 北韓, 文益煥목사 석방 촉구             |
| 7月 7日  | 北韓, 全大協제의 「宣言文」 동의          |
| 7月 7日  | 北韓, 소련 개혁정책 찬양              |
| 7月 8日  | 남북학생 공동선언문 관련 統一院 논평        |
| 7月 8日  | 盧泰愚대통령, 7·7선언 1주년 기념 연설     |
| 7月 8日  | 文公長官, 북한의 폭력혁명 포기 촉구        |
| 7月 8日  | 美國, 美상품 對北韓 수출 첫 허용         |
| 7月 9日  | 北韓, 徐의원 사법처리 관련 논평          |
| 7月 10日 | 政府, 當局者會談 연기                |
| 7月 11日 | 北韓, 범민족대회 개최 제의             |
| 7月 12日 | 北韓, 美·日과 관계개선 용의 표명         |
| 7月 12日 | 言論勞聯, 남북기자교류 특위 구성          |
| 7月 13日 | 韓赤, 南北赤十字 실무대표접촉 수락         |
| 7月 14日 | 黨政, 공청회 제시할 민정당 통일방안 검토     |
| 7月 15日 | 우리측, 南北體育會談 연기 통보           |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7月 17日 | 美 國 武 裝 官, 주한미군정책 불변 언급                    |
| 7月 19日 | 美 副 總 統, 주한미군 주둔정책 불변 밝혀                   |
| 7月 19日 | 美 海 리 티 지 재 단, 주한미군 철수 반대                  |
| 7月 19日 | 韓 · 蘇 무 역 사 무 소 에 영 사 과 설 치                |
| 7月 21日 | 政 府, 在 日 목 사 訪 北 첫 허용                      |
| 7月 21日 | 美 國, 북 한 에 核 安 全 協 定 체결 촉구                 |
| 7月 25日 | 政 府, 임 수 경 양 관 문 점 통과 불허 방침                |
| 7月 25日 | 北 韓, 체 육 · 적 십 자 회 담 개최 제 의                |
| 7月 27日 | 세 계 교 회 협 의 회 (WCC), 한국 통일 정책 건 의 서 채택     |
| 7月 27日 | 정 의 구 현 사 재 단, 文 奎 鉉 신 부 평 양 파 견           |
| 7月 27日 | 美 紙, 주한미군 감축시 남북한 核 强 化 가능성 시사             |
| 7月 29日 | 소 련 서 기 장 군사 고 문, 한 반 도 내 軍 事 的 위협 상 존 언급  |
| 7月 30日 | 韓 赤, 남 북 적 십 자 회 담 실 무 대 표 접 촉 무 기 연 기 통 보 |
| 7月 31日 | 蘇 聯 學 者, 한 반 도 통 일 방 안 제 안                 |

<7月 1日>

訪北 林秀卿양, 평양서 기자회견

-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전대협 대표로 평양에 도착한 임수경양은 기자회견을 갖고 「차로 4시간이면 오는 이곳(평양)을 비행기로 10일이나 걸려 왔다. 더많은 사람이 이대회에 참가하려 했으나 섭섭하게도 나 혼자만 왔다」고 말했다.
- 林양은 자신의 入北목적이 平壤축전 참가와 함께 北韓학생들과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땅에 온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했다.
- 平壤방송에 따르면 林양은 板門店을 통한 귀환문제와 관련, 「어떠한 죽음을 각오한 투쟁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月 4日>

訪北 林秀卿양, 평양서 2차 기자회견

- 全大協의 대표 자격으로 입북한 林秀卿양은 3일 2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철수 및 휴전협정의 平和協定에로의 대체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한편, 자신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의 국토종단 대행진에 참가하며 27일 판문점을 경유 남한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7月 4日>

民正黨 李鍾贊 사무총장, 北方政策 전면 재검토 주장

- 李鍾贊 民正黨사무총장은 정부의 7·7선언 등 北方政策 推進問題에 언급, 「최근 文목사·徐의원 밀입북사건에서 보듯 北韓이 對南工作的 차원의 의도를 더욱 노골화 하

는등 어떠한 자세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북방정책은 수정내지 유보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그는 북방정책의 원칙은 일관성이 유지돼야 하나 접근방식과 운영방법등은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7월 5일>

統一院長官, 각종 南北會談 무기연기 시사

- 李洪九 통일원장관은 7·4공동성명 17주년과 7·7선언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는 南北對話가 재개돼야 하지만 지금은 北韓의 반성과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 李장관은 또 「南北國會會談과 고위당국자예비회담등 정치성회담은 北韓태도의 변화가 있을때까지 연기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논리」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적십자회담등은 우리가 일관성있게 재개를 촉구해온 것이니 만큼 가까운 시일내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 <7월 5일>

黨政, 7·7선언 사실상 수정

- 정부와 민정당은 남북한 관계와 관련, 盧泰愚대통령의 7·7선언 추진을 위해
  - 정치, 통일, 군사문제는 정부주체의 원칙
  - 교류는 상호주의 원칙
  - 기타문제는 정부사전승인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3개항의 실천원칙을 제시했음.
- 이날 제시된 3원칙은 「민족화해와 협력에 기여하는 각종 조치등을 아무 조건없이 일

방적으로 강구해 남북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선의의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킨다]는 7·7선언의 정신을 사실상 수정, 복측이 이들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정부가 일방적인 화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

<7月 5日>

全大協, 南北共同宣言文 발표

- 전대협은 「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문」의 전대협쪽 초안을 공식 발표했음.
- 이 초안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초안)」이라는 제목으로 전대협과 조선학생위원회의 공동선언 형식으로 돼 있음.
- 이 선언문 초안은 남과 북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합해 통일 국가를 건설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모두 8개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일의 원칙과 방법등을 밝히고 있음.

<7月 6日>

외무부, 北方外交와 對北정책 분리 추진 검토

- 정부는 7·7선언 1주년을 맞아 북방정책의 개념을 재정립, 북방외교를 對北政策과 구분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외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방외교와 對北政策의 구분은 통일문제와 북방외교의 연계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 南北對話가 외교문제일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7月 6日>

우리側, 국회회담 준비접촉 무기연기 통보

-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 蔡汝植수석대표는 북한 全琴哲단장에게 보내는 전언통신문을 통해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은 대표들이 만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므로 우리측이 7월 11일로 제의한 남북국회회담 제8차 준비접촉 개최일자를 무기연기한다」고 통보했음.

<7月 7日>

北韓, 문익환목사 석방촉구.

- 北韓 조국 평화통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全琴哲은 南韓 당국이 밀입북 혐의로 구속한 文益煥목사를 석방한다면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일련의 남북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또 南韓 당국이 平壤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全大協대표 林秀卿양을 체포한다면 앞으로의 회담은 더욱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음.

<7月 7日>

北韓, 전대협 제의 「선언문」 동의

- 북한의 「학생위원회」는 全大協에 보내는 방송통지문을 발표, 全大協이 이른바 「남북 청년학생공동선언문」을 채택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밝혔음.
- 북한의 學生委는 이 공동선언문이 「민족적 화해와 평화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겨 나가려는 우리 새 세대 열혈청년들의 불굴의 기개와 드팀없는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

하는 획기적인 사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찬양했음.

<7月 7日>

北韓, 소련 개혁정책 찬양

- 북한은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추진하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을 찬양하고 나섰음.
- 당기관지 로동신문은 소련과 북한이 61년 상호원조협정의 정신과 사고로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페레스트로이카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논평한 것으로 알려졌음.

<7月 7日>

남북학생 공동선언문 관련 統一院 논평

- 崔炳輔 통일원대변인은 「남북학생 공동선언」에 관한 논평을 통해 「이미 정부와 온국민이 예상하고 우려했던대로 全大協을 대표하여 密入北한 林秀卿이 서명한 소위 남북학생 공동성명은 駐韓美軍철수, 당국주도의 대화반대등 北의 對南宣傳論理를 그대로 복사한것으로 한마디로 우리의 백만학도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작한 한낱 정치적 책략의 산물」이라고 말했음.

<7月 8日>

盧泰愚대통령, 7·7선언 1주년 기념 연설

- 盧泰愚대통령은 7·7선언 한돌을 맞아 「7·7선언은 통일의지를 담은 對北韓政策으로 앞으로도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음.

- 盧대통령은 「남·북한간의 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전진은 양측 정부나 그 위임을 받은 책임있는 대표들 사이의 대화와 협상에서 출발해야 하며, 성실한 책임당국자간의 대화만이 민족분단 문제를 푸는 열쇠」라며, 북한측의 성실한 당국자간 대화자세를 촉구했음.

#### <7月 8日>

##### 문공장관, 北韓의 폭력혁명 포기 촉구

- 정부대변인 崔秉烈문공장관은 7·7특별선언 1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 「정부는 주변정세의 흐름과 북한의 태도변화를 내다보면서 7·7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화해와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인내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崔장관은 「정부는 또 南北의 소모적 대결외교를 지양하면서 우방과의 기존 협력관계의 토대위에서 평화통일 환경조성을 위한 북방외교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갈것」이라며 「북한은 우리의 참뜻에 호응하여 하루빨리 對南暴力革命路線을 버리고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의 길에 동참해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음.

#### <7月 8日>

##### 美國, 美상품 對北韓 수출 첫 허용

- 최근 北韓에 대한 美國의 상업베이스 무역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美國정부가 지난 4월 24일 敵性國 교역법관계규정을 개정, 人道的 상품에 한해 상업베이스의 對北韓수출을 허용한 이래 美상무성은 美업자의 對北韓수출신청 2건을 허용했다고 관계자가 밝혔음.



<7月 9日>

북한, 徐의원 사법처리 관련 논평.

- 북한은 서경원 평민당원의 밀입북 사건관련 7월 8일 「조국평화통일위 성명」을 발표하고 서의원의 평양방문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시될 수 없는 정당한 방문」이라고 비호하고 나섰음.
- 북한은 이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서경원의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체포 구속하고 북남 사이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격분을 나타낸다」고 밝혔음.

<7月 10日>

정부, 당국자 회담연기

- 남북고위당국자 예비회담 우리측 宋漢虎수석대표는 북한측 白南俊단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3차 예비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통보했음.

<7月 11日>

北韓, 범민족대회 개최 제의

- 북한 조국평화통일 위원회위원장 허담은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참가하는 이른바 「범민족대회」를 내년 8월 15일 판문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음.

<7月 12日>

北韓, 美·日과 관계개선 옹의 표명

- 북한은 미국, 일본을 포함한 자본주의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북한 외교부의 田仁徹 副部長이 말했다.
- 그는 「북한의 대외관계는 자주, 평화, 우의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있는 만큼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판단하에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7月 12日>

言論勞聯, 남북기자교류 특위 구성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남북 언론인교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남북 언론인 교류 특위의 운영안을 마련했다.
- 특위의 사업과 활동방향은
  - 남북언론인 교류를 위한 북쪽과의 교섭
  - 언론인 상호교류
  - 남북언론인 교류차원의 각종 심포지엄·세미나 등의 개최
  - 기사·프로그램 교환
  - 교류상황에 대한 홍보활동
  - 연례보고서 발간등임.

<7月 13日>

韓赤, 南北赤十字 실무대표접촉 수락.

- 대한적십자사 金相浹총재는 북한측에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오는 8월 2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음.
- 金총재는 이 서한에서 「이번 실무대표접촉은 쌍방적십자 단체사이에 이룩해 온 합의와 노력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 회담제의 수락이 文목사 방북과 관계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음.

<7月 14日>

黨政, 공청회 제시할 민정당 통일방안 검토

- 정부와 민정당은 黨·政協議를 갖고 오는 20-21일 국회통일정책특위가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李世基 黨統一特委委員長이 제시할 통일방안에 관해 논의했음.
- 이날 협의과정에서 궁극적인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여야 하며 그과정에 이르는 중간단계로서 南北이 민족통일협회의의 또는 南北調節委등을 구성, 통일헌법을 마련하고 이를 남북한 주민이 국민투표로 확정해야하며,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단일정부와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7月 15日>

우리측, 남북체육회담 연기통보

- 南北體育會談 우리측 대표단 張忠植수석대표는 北韓측 대표단장 김형진에게 제3차 南北體育會談을 무기연기한다고 통보했음.

- 張수석대표는 「北韓당국이 우리내부를 교란·파괴할 목적으로 자행한 일련의 불순한 책동을 비호하는가 하면 北韓측 회담대표가 공공연하게 제3차회담 가능성을 부정하는 등 회담의 성사에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부당한 자세가 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담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7月 17日>

美國務長官, 주한미군 정책 불변 언급

- 美國은 유럽주둔미군감축과 상응하는 조치를 장차 太平洋지역에서 검토할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駐韓美軍에 관한 美 政策에는 변화가 없다고 「제임스·베이커」美國무장관이 말했다.
- 그러나 그는 유럽주둔 미군의 20% 감축이 실현되면 태평양주둔 병력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럴경우 주한미군에 관한 美 정책변화가 장차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7月 19日>

美 부통령, 駐韓美軍 주둔정책 불변 밝혀

- 덴·퀘일 美부통령은 「미국은 한국정부와의 협의없이 결코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그는 「부시행정부는 지난해 美합참본부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북한군사력의 우세와 소련극동군의 증강추세하에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결론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 부시대통령이 訪韓時 한국민이 원치않는 한 주한

미군의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기본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月 19日>

美해리티지 재단, 주한미군 철수 반대

-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은 최근 美의회 일각의 駐韓美軍감축 주장에 대해 언급, 「이는 잘못된 가정을 근거로 한것]으로 「駐韓美軍 감축은 韓半島뿐 아니라 아시아에 있어 美國의 이해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이 자료는 韓國에 대한 잘못된 가정으로
  - 다수의 韓國人이 미군주둔을 원치않고
  - 韓國측의 공동방위비 부담이 지나치게 적으며
  - 韓國의 경제력 및 인구규모로 보아 北韓의 도발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열거했음.

<7月 19日>

韓·蘇 무역사무소에 영사과 설치

- 우리나라와 소련이 서울과 모스크바에 설치한 양국의 무역사무소에 영사과를 두어 양국정부의 공식적인 영사업무를 각각 수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국의 외무부관리가 각각 상대방국가에 파견돼 영사활동을 하는것 자체가 준외교관계 수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번의 경우 빈협약을 완전히 수용한 형태가 아니므로 편법적인 준외교관계 수립이라 볼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음.

<7月 21日>

정부, 在日목사 訪北 첫 허용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최근 방북허용을 신청해 놓고 있는 일본거주李大京목사에게 방북을 허용키로 결정했음.
- 李목사에 대한 방북허용은 남북교류협력지침이 마련된 후 첫 허가조치로서 정부에는 대해 「李목사의 訪北목적이 순수하게 종교적인 것이며 다른 民團목사들과 동행한다는 점을 고려, 7·7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7月 21日>

미국, 북한에 핵 안전협정 체결 촉구

-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9일 미국이 그 동안 북한의 핵개발과 핵안전수칙 준수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시설들을 국제감시하에 두도록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수칙협정에 대해 조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 북한은 85년에 소련의 촉구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으며 이 조약규정에 따라 18개월 내에 모든 핵시설을 IAEA의 현장검사를 받게하는 안전수칙협정에 조인토록 돼 있음.

<7月 25日>

정부, 임수경양 판문점통과 불허 방침

- 李洪九 통일원장관은 임수경양의 판문점통과 귀환문제와 관련, 임양의 판문점통과는

북한이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정치공작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板門店 통과 합의는 南北關係改善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할 뿐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므로 林양의 板門店 통과를 불허한다는 방침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 <7月 25日>

北側, 체육·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孫成弼은 대한적십자사 金相浹총재에게 「오는 8월 2일 오전10시에 판문점 중립국감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해왔음.
- 또한 北韓은 23일 韓國측이 남북체육회담을 무기연기한데 대해 비난하고 3차회담을 오는 8월 10일 板門店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음.

#### <7月 27日>

세계교회협의회(WCC), 한국통일정책 건의서 채택

-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전체회의를 갖고 여기에서 8개항의 「평화와 한국의 통일을 위한 WCC정책 건의서」를 채택했음.
- 한국의 김준영 목사와 북한의 고기준 목사도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WCC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정책건의서의 내용은
  - 미국은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 남북한은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 군사무기의 감축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등 8개항임.

<7月 27日>

정의구현 사제단, 文奎鉉신부 평양파견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평양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대표자격으로 참가한 林秀卿양의 귀환에 동행하도록 이 단체소속 文奎鉉신부를 북한에 파견했다고 발표했다.
- 사제단은 文신부의 평양파견에 대해「그리스도교인으로서- 신앙적 양심에 입각한 결단이며 곤경에 처한 林양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文益煥목사, 林양, 徐敬元의원등의 방북에 따른 탄압적 공안정국에 대한 경고와 통일논의의 진전 및 확산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7月 27日>

美紙, 駐韓美軍 감축시 남북한 核강화 가능성 시사

-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紙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美國의 駐韓美軍 감축론에 대해 美國의 일방적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駐韓美軍 감축은 韓·美 양국의 상호조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도 했다.
- 이어 워싱턴紙는 「만일 美國이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미 70년대에 핵무기 제조 기술을 획득한 뒤 지금은 멈추고 있는 한국이나, 현재 그 기술을 얻는 중인 北韓이 모두 그러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려 들 것」이라고 전했다.



<7月 29日>

소련 서기장 군사고문, 한반도내 군사적 위협 상존언급

- 방미중인 소련 공산당 서기장 군사고문 세르게이 아호로메예프는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입장 표명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군사력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음.
- 그는 미·소 양국은 상호신뢰의 회복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7月 30日>

韓赤, 남북적십자 회담 실무대표접촉 무기연기 통보

- 대한적십자사의 金相浹총재는 남북적십자 회담과 관련, 오는 8月 2日로 예정돼 있던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무기연기한다고 발표했다.
- 金총재는 성명에서 「林秀卿양과 文奎鉉신부등을 앞세운 판문점 농성과 이를 정치선전에 이용하고 있는 北韓당국의 행위는 쌍방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의 분위기를 더욱 흐리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쌍방 적십자간의 실무대표접촉이 사실상 어려울뿐 아니라 설령 접촉을 갖는다 하더라도 생산적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실무대표접촉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7月 31日>

蘇聯學者, 한반도 통일방안 제안

- 소련 과학아카데미 東洋學연구소 티호미로프부장은 韓半島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韓國과 北韓의 통일문제와 관련, 국제대표회의의 설치등 4개항의 새방안을 제시했음.

- 티호미로프부장은 이날 私見임을 전제, ①美·中·蘇·日에 유럽도 참가한 韓半島문제 국제대표회의설치 ②휴전선에 中立zone을 만들어 中立國의 군대를 완충역으로 배치 ③주한미군을 상징적 존재의 수준까지 삭감하고 南北쌍방 모두 군사력의 배치를 최소한으로 감축 ④南北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정책은 취하지 않으며 건설적인 제안은 받아들인다는 등 4개항을 밝혔음.

---

# 8月動向

---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8月 1日  | 北韓, 남북적십자회담 실무대표접촉 재개 촉구      |
| 8月 1日  | 在美同胞 법타스님訪北                   |
| 8月 3日  | 訪北 林秀卿양, 판문점귀환 허가 촉구          |
| 8月 6日  | 崔浩中外務長官, 駐韓美軍 減縮問題 協議意思 表明    |
| 8月 7日  | 黨政, 남북환경회담 제의 예정              |
| 8月 8日  | 北韓, 對話進行위해 現政府 퇴진 주장          |
| 8月 8日  | 美 軍縮局, 南·北韓등 탄도미사일·보유현황 밝혀    |
| 8月 9日  | 北韓, 林양 귀환 관련 회담 제의            |
| 8月 9日  | 우리측, 남북체육회담 무기 연기             |
| 8月 11日 | 韓赤, 林양 귀환 관련 北側 회담제의 거부       |
| 8月 11日 | 北韓, 환경회담제의 비난                 |
| 8月 11日 | 韓赤,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제의             |
| 8月 12日 | 美學者, 영세중립국식 한반도통일형태 주장        |
| 8月 14日 | NYT紙, 北韓의 역사왜곡 폭로             |
| 8月 14日 | 주한 美軍사령관, 주한미군 90년대 불필요 언급    |
| 8月 15日 | 盧泰愚대통령, 8·15 경축사 발표           |
| 8月 16日 | 미국무부,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논평           |
| 8月 16日 | 林秀卿양·文奎鉉신부, 판문점 통과 귀환         |
| 8月 16日 | 통일원장관, 林양등 귀환관련 대북 성명 발표      |
| 8月 16日 | 8·15통일염원 범민족 축전 본부, 범민족 선언 발표 |
| 8月 18日 | 북한 방송, 북한 세습 반대 투쟁 인정         |
| 8月 20日 | 헝가리, 脫共產主義선언                  |
| 8月 23日 | 北韓, 平祝後 思想 동요                 |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8月 25日 | 美하원의원, 韓·日등 방위비 분담 촉구  |
| 8月 26日 | 北韓, 南北對話再開提議           |
| 8月 26日 | 美大學대표단, 북한 방문          |
| 8月 27日 | 北韓, 남한 기독교신자 초청        |
| 8月 29日 | 蘇聯, 한반도 긴장완화 관련 새방안 제시 |
| 8月 30日 | 中國, 對韓經協協商 중단 요청       |
| 8月 30日 | 美國, 北韓과 직통전화 검토        |
| 8月 31日 | 國會, 통일정책 공청회 개최        |

<8月 1日>

北側, 남북적십자회담 실무대표접촉 재개 촉구

- 북한은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무기연기 한데 대해 비난하고 이 접촉을 오는 12日 오전 10時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음.

<8月 1日>

在美同胞 법타스님 訪北

- 재미동포 승려인 법타스님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個人資格으로 북한을 방문, 북한 불교지도자들을 만나 남북불교 교류문제를 논의하고 온 사실이 밝혀졌음.
- 법타스님은 지난 5월 미국 LA총영사관에 북한방문 신고를 했고, 6월 하순 서울에서 관계기관과 자신의 방북문제를 협의한 다음 일본을 거쳐 入北했다고 밝혔음.

<8月 3日>

방북 임수경양, 판문점귀환 허가 촉구

- 전대협대표로 평양축전에 참가했던 林秀卿양은 金相浹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편지를 보내 판문점을 통한 귀환을 요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분간 北韓에 머무를 뜻을 시사했음.

<8月 6日>

崔浩中外務長官, 駐韓美軍 減縮問題 協議意思 表明

- 崔浩中의무장관은 5일 정례기자회견에서 美議會의 주한미군 감축계획보고 법안과 관련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음.
- 그는 또한 「미국이 주한미군감군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해 올 경우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에서 협의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8月 7日>

黨政, 남북환경회담 제의 예정

- 정부와 民正黨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의 대화창구 유지를 위해 기존의 정치적 대화가 아닌 환경문제를 다룬 남북환경회담을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와 민정당은 북한과의 환경회담을 중국·일본·대만·홍콩·남·북한등 6개국으로 구성되는 東北亞 녹색협력기구 (ECO)창설의 일환으로 제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月 8日>

北韓, 對話進行 위해 現政府 퇴진 주장

- 北韓은 南北對話問題에 언급, 韓國정부가 「분열을 추구하는 대화」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 하면서 南北간의 대화와 협상을 민족의 통일염원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 駐韓美軍철수 및 美國의 對韓半島 간섭정책의 종식
  - 韓國의 現정부 퇴진이 실현돼야 한다.

<8月 8日>

美 軍縮局, 南·北韓등 탄도 미사일 보유현황 밝혀

- 美·蘇·中等 군사 강국 소수에 국한됐던 탄도미사일이 제3세계에도 확산, 南北韓을 포함한 16개 개도국들이 이를 보유 또는 개발하고 있다고 美國의 軍縮局이 밝혔음.
- 北韓이 특히 蘇聯製미사일의 중개 공급자로 부상, 이집트·이란·이라크·리비아·南 예멘·시리아등은 미사일을 蘇聯 또는 北韓으로부터 입수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음.
- 韓國은 地對空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의 일부를 地對地미사일(SSM)로 개조하는 한편 이 미사일의 유도체제의 일부를 개선했다고 이 보고서가 밝혔음.

<8月 9日>

北韓, 林양 귀환 관련 회담제의

- 북한측은 李洪九 통일원장관과 金相浹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林

秀卿양 판문점통과문제 협의를 위한 회담을 오는 11일과 14일 판문점에서 개최하고자 제의했음.

- 북한측은 이날 서한에서 11일에는 쌍방 적십자간의 실무대표회담을, 14일에는 우리측 통일원과 북한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간의 실무회담을 열어 林양의 안전귀환문제와 판문점통과절차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음.

### <8月 9日>

우리측, 南北體育會談 무기연기

- 남북체육회담 한국측 대표단의 張忠植수석대표는 회담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측의 반성과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오는 90년 北京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차 회담의 재개를 사실상 무기연기했음.

### <8月 11日>

韓赤, 林양 귀환관련 北側 회담제의 거부

- 대한적십자사 金相浹총재는 최근 북한이 林秀卿양 판문점 귀환문제를 논의키 위해 11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것과 관련, 북측에 거부의 뜻을 통고했음.

### <8月 11日>

북한, 환경회담제의 비난

- 북한은 민정당이 북한·中國·日本등 6개국으로 구성된 동북아 녹색협력기구 (ECO) 창설을 제의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북한에 환경회담을 제의한다

는 방침을 세운데 대해 이는「나라의 현 분열상태를 고착시키고 우리와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8月 11日>

韓赤,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제의

- 金相浹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와 이산가족문제협의를 위해 9월 중 남북적십자간의 접촉을 갖자고 北韓적십자측에 제의했음.

<8月 12日>

美學者, 영세 중립국식 한반도 통일형태 주장

- 美國 조지타운大의 도널드 맥도널드 교수는 韓半島통일은 국제조약의 보장을 받는 오스트리아 방식의 중립국가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그는 통일 초기단계에는 南北韓사이 비무장지대에 어떤 형태로든 국제적 존재를 배치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는 駐韓美 2사단을 대체하며 統一韓國의 내부상황이 안정되면 中國 및 蘇聯과의 국경지대로 이동될수 있다고 주장했음.
- 통일된 韓國이 주변열강의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고 정치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확고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中立化를 주장한 맥도널드교수는 2차대전후 美·英·佛·蘇등 戰勝 4대국이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을 보장한 「주권회복을 위한 국가조약」과 같은 조약에 의해 韓半島중립통일의 보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음.

<8月 14日>

NYT紙, 北韓의 역사왜곡 폭로

- 北韓은 50년 韓國전쟁이 美國과 南韓의 북침으로 시작된 것으로 왜곡하고 있고 이에 따라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南北韓 긴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음.
- 이 신문은 北韓에서 역사는 학문이라기 보다는 정치의 영역이며 사회과학의 범주에 있지 않고 선전도구의 범주에 속해 있어,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南韓의 북침설을 담은 교과서만이 통용되고 있다고 전했음.

<8月 14日>

주한미군사령관, 주한 미군 90년대 불필요 언급

- 韓半島에서 韓國軍현대화등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90년대 중반이후엔 韓國에 美軍을 주둔시킬 군사적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루이스 매네트리 주한 美軍사령관이 말한 것으로 보도됐음.
- 매네트리 사령관은 그러나 「전쟁억지력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제한된 美軍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美軍이 北韓의 공격시 韓國에 대한 美國의 책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공격을 억제하는 美軍의 공헌은 병력숫자에 비해 훨씬 크다고 말했음.

<8月 15日>

盧泰愚대통령, 8·15경축사 발표

- 盧泰愚대통령은 광복절 제44주년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민족통일에 관한 3대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남과 북은 통일을 이루는 중간단계로 우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공존공영하면서 개방과 교류,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盧대통령은 이어 「나는 책임있는 남북당국자간의 정상적인 통로를 통한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 걸친 폭넓은 교류와 관계를 개선하는 다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盧대통령은 「북한은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우리와 한민족공동체로서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 盧대통령은 이어 「북한측이 그동안의 그릇된 대화자세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각종 남북대화를 당장이라도 전면 정상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月 16日>

美國무부,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논평

- 미 국무부는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한 미군이 필요없을 것이라는 메네트리 주한 미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부시대통령의 지난 2월 訪韓때의 다짐을 되풀이 하면서 미

국의 철수계획은 없으며 미군은 한국주둔이 평화에 도움이 되는 동안 한국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미국의 정책은 남북간 직접대화를 통한 화해를 촉진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진전을 촉진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對韓안보 공약을 전폭적으로 유지할것」이라고 말했음.

<8月 16日>

林秀卿양·文奎鉉신부, 판문점 통과 귀환

- 전대협 평측대표 임수경양이 입북 47일만인 8月 15日 오후 2시 20분 문규현신부와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환했음.
- 임양등은 이에 앞서 오후 1시 30분쯤 북측 판문각에 나타나 金琴哲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수 북한적십자사 대변인과 조선 청년학생위원회 소속의 학생들의 환송식에 참석한뒤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며, UN군측도 이들의 판문점 통과를 제지하지 않았음.

<8月 16日>

통일원 장관, 林양등 귀환관련 대북성명 발표

- 李洪九 통일원장관은 林秀卿양과 文奎鉉신부의 板門店귀환 강행과 관련한 對北韓성명을 발표, 「北韓측이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板門店을 불법통과토록 한것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내외의 기대를 저버린 고의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음.
- 李장관은 또 「林양등을 板門店군사분계선을 임의로 통과시키는北韓의 불법적 행동은 韓半島의 휴전체제 자체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휴전체제유지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며 결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이용될 수 없다]고 강조 했음.

<8月 16日>

8·15통일염원 범민족 축전 본부, 범민족 선언 발표

- 전민련·전대협등 재야 단체로 구성된 8·15 통일염원 범민족축전 추진 본부 (공동위원장 계훈제)는 「조국의 자주 통일과 평화를 위한 범민족선언」을 발표 했음.
- 이 선언의 내용은
  - 7·4공동성명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입각한 조국통일 실현
  -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불가침선언 채택
  - 반통일적 악법·기구 철폐 및 구속인사 석방
  - 핵무기 철거 및 단계적 군비축소, 주한미군 철수등 8개항으로 구성돼 있음.

<8月 18日>

북한 방송, 북한 세습 반대 투쟁 인정

- 북한의 공식보도기관인 평양 방송이 북한내의 金日成·金正日 세습 반대 투쟁을 처음으로 논평했음.
-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反김일성·김정일의 움직임이 이따금 전해지기는 했으나 공식 보도기관이 이를 논평한 적은 한번도 없었음.
- 따라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내에 최근 심각한 反金正日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8月 20日>

헝가리, 脫共產主義 선언

- 헝가리 집권공산당은 헝가리의 현재 위기는 공산당의 失政에 기인한 것이며 이제 혼합경제 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당을 「인권사회당」으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선언 했음.
- 공산당은 「黨 체질 개선 정책안」을 통해서 「국가사회주의는 헝가리를 궁지로 몰아 넣었으며 이제 黨은 스탈린주의와 작별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8月 23日>

北韓, 平祝後 思想동요

- 북한은 평양축전 개최이후 자본주의 사상의 사회내부 침습에 대한 경고를 연일 기관지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어 평양축전에 따른 주민사상동요 방지에 부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음.
- 북한은 평양축전 이후 당 기관지 로동신문을 비롯한 주요 선전 기관에 주민 사상 강화문제와 관련,
  - 자본주의 사조와 부르조아 생활 양식의 침습방지
  - 사회주의의 우월성 주입
  - 金日成 부자에 대한 충성 강화등의 내용을 집중 보도 했음.
- 북한은 이같은 보도는 평축 이후 주민들의 의식이 잠재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음을 내 비친 것으로 볼 수 있음.



<8月 25日>

美하원 의원, 韓·日등 방위비 분담 촉구

- 韓國과 日本등 아시아 국가들은 美軍의 주둔을 계속 원할 경우 미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美하원 군사위원회의 패트리샤 슈뢰더 위원이 말했다.
- 그는 「미국이 자유세계의 방위비를 전액 부담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한국등의 방위비 분담을 촉구했음.

<8月 26日>

北韓, 南北對話 재개 제의

-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北韓측 대표단장 全琴哲은 우리측 蔡汝植수석대표 앞으로 전 회통지문을 보내 작년 12월 중단된 제8차 국회회담준비접촉을 오는 9월중순 재개할 것을 제의했음.
- 한편 북한적십자사는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시위 회의실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의 실무 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왔음.

<8月 26日>

美大學 대표단, 북한방문

- 美하와이 주립대학의 엘버트·사이먼총장과 徐大肅한국문제 연구소장을 포함한 미국 대학 대표단이 북한의 金日成大學과 학술교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북한방문길에 올랐음.
- 사이먼 총장은 방북길에 앞서 「한반도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경제적 사

회적으로는 언젠가 재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기때문에 북한의 학술기관과 전진적인 관계를 맺는것이 하와이주는 물론 하와이주립대학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밝혔음.

<8月 27日>

북한, 남한 기독교신자 초청

- 북한 기독교연맹과 미국 남캘리포니아주 기독교 협의회는 10월 17일 부터 27일까지 기독교 평양 복음화 대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남한 기독교 신자 2백여명을 초청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발표했음.

<8月 27日>

蘇聯, 한반도 긴장완화관련 새방안 제시

- 韓半島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蘇聯이 北韓에 대한 무기공급을 감축하고 美國이 駐韓 美軍을 감축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美蘇정상회담등 고위회담을 열어 韓半島 또는 아시아의 지역분쟁에 관한 「특별성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蘇聯공산당의 해외홍보용 잡지 노비미르가 최신호에서 밝혔음.
- 이 잡지는 「한반도의 정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美蘇가 南北 및 한반도 전체에 관한 상대방의 조치를 무조건 반대해 온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꿀때가 되었다」고 전체, 「美蘇양국이 남북의 대표와 전문가들로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으로 균형있는 남북의 직접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음.
- 소련측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임.

<8月 30日>

中國, 對韓 經協協商 중단 요청

- 한국과 중국간의 民間經協委 구성과 무역사무소 개설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여 짐.
- 중국의 對韓協商 창구인 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는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한국의 국제민간경제협의회 (IPECK)실무대표단에게 韓中間의 민간경제협력위원회 구성 협의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청, 사실상 두나라의 비공식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

<8月 30日>

美國, 北韓과 직통전화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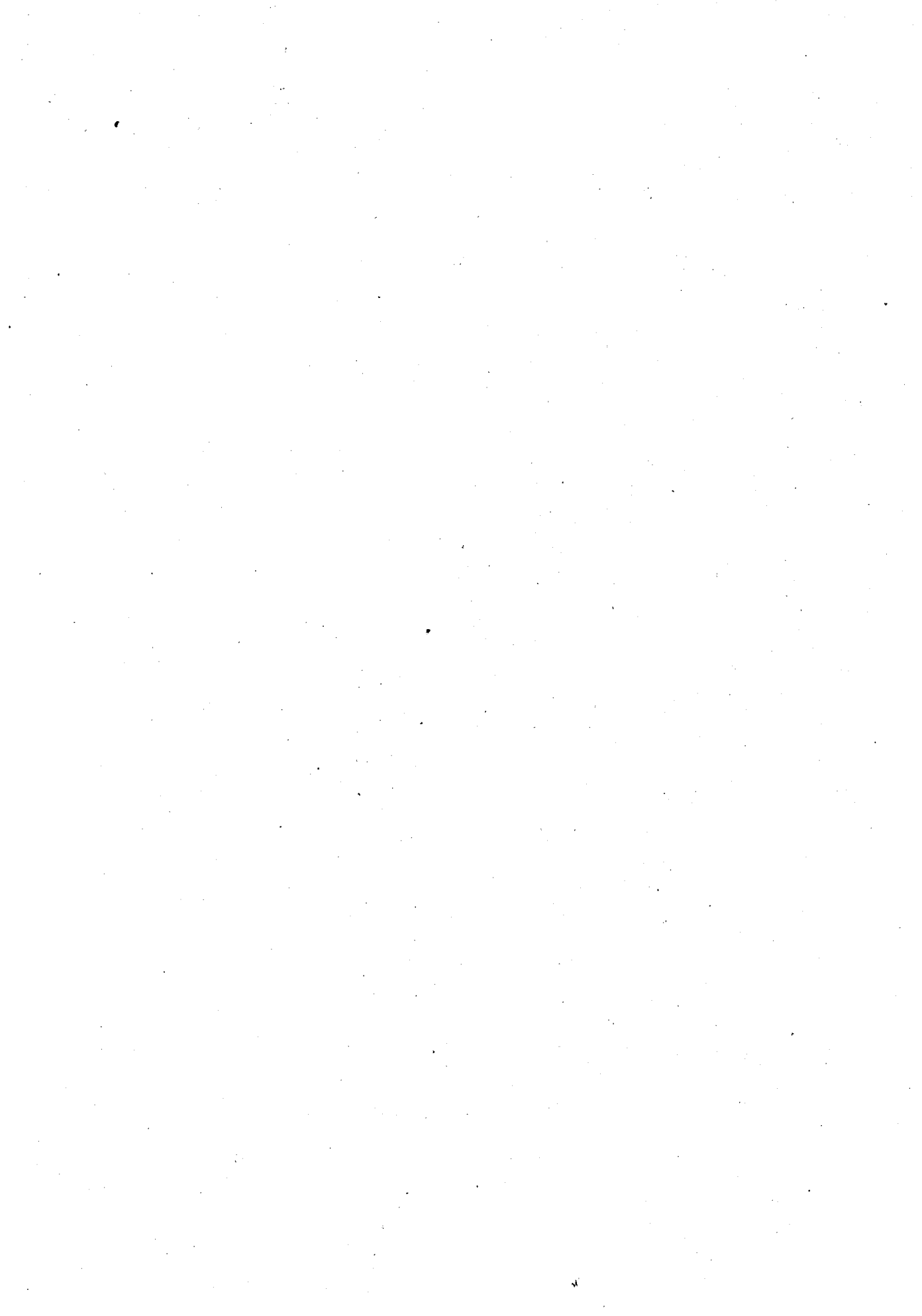
- 미국정부는 부시대통령과 盧泰愚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남북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對北韓政策緩和 조치로 美·北韓간 직통전화개설등 교역 및 문화학술·스포츠분야의 교류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 라고 美국무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술기관의 담당자들이 밝혔음.
-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 관계자도 「미국의 對外정책을 다루는 백악관안보위원회에서 對북한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말하고 「이번 완화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1단계 조치의 후속으로 계속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8月 31日>

국회, 통일정책 공청회 개최

- 국회통일특위는 31일과 1일 이틀간 국회에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일정책공청회를 개최함.
-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부측이 마련한 통일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여야 4당이 각黨의 통일방안을 밝히고 全民聯동 진보적 재야단체와 자유총연맹등 우익단체, 이산가족재회추진위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 각각 통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대한 질의와 토론을 함.
- 공청회 첫날은 4당의 통일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이에 따른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음.
- 민정당은 8·15경축사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이미 밝힌바 있는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내 놓고 평민당은 평화공존 → 평화교류 →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했음.
- 민주당은 평화체제 구축 → 정치·외교분야 협력 강화 → 통일의 3단계 통일안을 제시하였음.
- 공화당은 현단계에선 통일방안 제시보다 통일여건 조성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9 月 動 向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9月 1日  | 國會, 통일정책 공청회 속개            |
| 9月 1日  | 정부, 남북교류 활성화 위해 민간기구 구성 추진 |
| 9月 2日  | 北韓, 체육·당국자회담 재개 제의         |
| 9月 4日  | 蘇정부기관지, 韓國과 국교 수립 지지 논문 게재 |
| 9月 5日  | 蘇聯, 韓國과 비공식관계만 유지 예정       |
| 9月 5日  | 韓赤, 南北赤十字會談 실무대표접촉 재개 제의   |
| 9月 7日  | 정부, 蘇·中과 항공교류 본격 추진        |
| 9月 8日  | 北韓, 주한미군 철수일정 제시 요구        |
| 9月 9日  | 美합참의장, 10년내 주한미군 감축가능성 시사  |
| 9月 9日  | IPU총회, 남북한 대표 연설           |
| 9月 9日  | 蘇聯, 韓半島 새 통일 제안 고려         |
| 9月 9日  | 6·25休戰회담 북한 부대표 李相朝氏 내한    |
| 9月 10日 | 정부, 「88년도 북한 경제 종합 평가」 발표  |
| 9月 11日 | 蘇前외무차관, 韓·蘇 정치관계 진전가능성 언급  |
| 9月 11日 | 蘇연구위원, 한·소 「經協委」 창설 제안     |
| 9月 11日 | 盧泰愚대통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
| 9月 12日 | 蘇, 남북한 교차승인 검토 시사          |
| 9月 12日 | 李相朝氏, 북한의 南侵說 주장           |
| 9月 13日 | 우리측, 남북체육회담 재개 제의          |
| 9月 15日 | 北韓,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거부        |
| 9月 16日 | 우리측, 남북고위당국자 예비회담 수정제의     |
| 9月 16日 | 新任駐韓 美大使, 주한미군 계속 주둔 언급    |
| 9月 18日 | 國防部, 미군철수시 방위비 소요액수 밝혀     |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9月 19日 | 政府, 南北大學生交流 제의 예정            |
| 9月 19日 | 7·7선언후 對北韓 수입량 증가            |
| 9月 19日 | 우리측, 남북 국회회담 준비접촉 재개 제의      |
| 9月 20日 | 美太平洋사령관, 주한미군 계속 주둔 언급       |
| 9月 21日 | 韓·美, 양국 공동관심사 의견 교환          |
| 9月 21日 | 美參議長, 주한군 감축 한국과 협의 다짐       |
| 9月 26日 | 政府, 세계성체대회 북한신도 초청 승인        |
| 9月 26日 | 蘇聯, 北韓에 經濟改革 강력 요구           |
| 9月 26日 | 佛敎界, 北韓 佛敎徒 초청               |
| 9月 27日 | 南北赤十字會談 제 1 차 실무대표 접촉        |
| 9月 27日 | 蘇의무부, 주한미군 철수시 남북대화 진전 기대 표명 |
| 9月 28日 | 美 국방장관, 韓半島 軍事力 北韓 우세 주장     |
| 9月 28日 | 北韓,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안              |
| 9月 30日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訪北신청서 제출        |
| 9月 30日 | 민족통일 불교협의회, 방북신청             |
| 9月 30日 | 통일원장관, 남·북한 통행협정 제의 예정       |
| 9月 30日 | 통일원, 민족통일 협상회의 제의 관련 논평      |



<9月 1日>

국회, 통일정책 공청회 속개

- 국회통일정책특위는 1일 국회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속개, 全民聯·민족통일 중앙협의회 민족통일 촉진회, 大韓辯協, 한국자유총연맹, 宋建鎬씨등 재야 및 각종사회 단체들의 통일정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질문을 벌였음.
- 전민련은 미북한 평화협정 체결 및 미군철수, 3자회담 연방제등의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통일안을 내놨으며 민족 통일촉진회는 평화공존 → 국가연합 → 연방국가 → 통일국가에 이르는 4단계 통일안을 제시했음.
- 민족통일 중앙협의회는 남북한간 교류와 개방을 통한 민족적 합의의 형성이 평화적, 민주적 통일에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大韓辯協은 평화협정의 체결과 보안법등의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음.
- 언론인 대표로 나온 宋建鎬씨는 남북한 체제를 그냥 존속시키는 상태에서 통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9月 1日>

정부, 남북교류 활성화위해 민간기구 구성 추진

- 정부는 일부 단체나 개인의 무분별한 對北접촉을 예방하면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부처별로 「민간교류추진협의기구」의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음.
- 姜英勳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밀입북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승인하에 남북 교류가 추진돼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면서 개별제외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자

올적 협의기구 구성을 촉진하라고 지시했음.

<9月 2日>

北韓, 체육·당국자 회담 재개 제의

- 북한측은 그동안 文益煥목사 密入北사건등으로 연기돼왔던 남북체육회담과 남북고위 당국자회담 예비회담을 각각 오는 13일과 18일에 재개하자고 제의해 왔음.

<9月 4日>

蘇정부기관지, 韓國과 國交수립 지지 논문 게재

- 蘇聯정부기관지 이즈베스티야紙는 「蘇聯은 지금이야말로 南韓과의 경제교류를 확대, 한반도에서 국가외교를 실행해야 한다」고 韓國과의 국교수립을 지지하는 논문을 처음으로 게재했음.
- 이 논문은 北韓이 주장하는 高麗聯邦制구상을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 北韓의 40여 년간에 걸친 통일에 관한 이니셔티브는 「실패로 끝났다」고 단언하는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혁명적 내용을 담고있음.

<9月 5日>

蘇聯, 韓國과 비공식 관계만 유지 예정

- 소련은 한국과 비공식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나 외교관계를 수립할 의도는 없다고 소련외무성 대변인이 밝혔음.
- 페르필리에프 대변인은 한국 문제와 관련, 「우리의 노선의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9月 5日>

韓赤, 南北赤十字會談 실무대표접촉 재개 제의

- 대한적십자사 金相浹총재는 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孫成弼위원장 앞으로 적십자회담 실무대표접촉을 오는 27일 오전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갖자고 수 정제의했음.

<9月 7日>

정부, 蘇·中과 항공교류 본격 추진

- 정부는 蘇聯·中國등 비수교국과 항공협정 체결등 航空交流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
- 金昌權교통부 장관은 우선 비수교국과의 항공 교류는 유럽지역 노선의 운항시간 단축을 위한 소련, 중국 영공통과 및 부정기 전세기 운항등을 시작한 다음 정부간 항공협정체결, 정기 노선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9月 8日>

北韓, 駐韓美軍 철수 日程 제시 요구

- 북한은 7일 남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한국은 적어도 주한미군의 철수 일정만은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음.
- 북한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반도로부터의 미군철수와 북한·미국간의

평화협정체결 및 남북한의 공동 불가침선언 등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과 남한이 북한 측과 회담할 것을 요구했음.

<9月 9日>

美합참의장, 10년내 주한미군 감축가능성 시사

- 윌리엄 크로 美합참의장은 「앞으로 10년 안으로 駐韓美軍이 감축될 가능성은 매우 뚜렷하다」고 밝히고 감축규모를 말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지만 駐韓 美軍事力の 구조와 성격·병력규모축소 조정을 요구하는 압력은 대단하다고 말했음.
- 그러나 그는 한국에 美軍事力を 유지하기위한 美國의 기본적인 열망은 계속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9月 9日>

IPU총회, 남북한 대표 연설

- IPU(국제의회연맹)총회에 참석중인 한국대표단의 朴定洙단장은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측 7·7선언에 대한 北韓의 호응을 거듭 촉구하고 한반도문제는 어디까지나 南北韓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할 우리자신의 문제인만큼 제3자에 의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北韓측의 3者會談 주장등을 일축했음.
- 이에 앞서 북한 대표단장 楊亨燮(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은 미국 의회와의 접촉을 공식제의 하였는데 그는 고려연방제, 駐韓美軍 및 核무기철수, 南北韓 및 美國 간의 3者會談개최등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보장 문제를 놓고 美 議會와도 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9月 9日>

蘇聯, 韓半島 새 통일 제안 고려

- 蘇聯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北韓의 제안을 지지해 왔으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확고히 할 어떠한 「다른 제안」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외교정책 입안자인 게오르기 아르바토프 박사가 밝혔음.
- 또한 아르바토프 소장은 한국기업이 대 소련 진출에 주저하고 있는데 대해 소련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상황은 韓蘇 상호 이해강화를 통해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9月 9日>

6·25 休戰회담 北韓 부대표 李相朝氏 내한

- 6·25 휴전회담 북한측 부대표를 지낸 前 인민군 부총참모장 李相朝씨가 고향의 친척 방문차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음.
- 서울에 체류중인 이상조씨는 朴哲彥정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6·25는 金日成의 명령으로 北韓측이 도발한 것이며 필요하다면 증언대에 설 수도 있다」며 「6·25 북침 설은 北韓측의 허무맹랑한 거짓주장」이라고 말했음.

<9月 10日>

정부, 「88년도 북한 경제 종합평가」발표

- 통일원이 발표한 「88년도 북한 경제 종합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GNP 규모는 2백6

억달러, 1인당 GNP는 9백80달러로 나타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공식적인 군사비는 GNP의 21.1%에 해당하는 44억2천만 달러로 나타나 북한은 어려운 경제사정하에서도 여전히 많은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북한의 지난해 무역고는 51억5천4백만달러이고 외채는 52억 달러로 무역 규모를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9月 11日>

##### 蘇前외무차관, 韓·蘇 정치관계 진전가능성 언급

- 소련극동담당 외무차관을 지낸 미하일·카피차 蘇과학원 동양학연구소장은 「韓蘇관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전제, 「경제를 중심으로 여러분야에서의 교류관계를 확대해 나간다면 정치관계의 진전도 이룰수 있을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그는 「남북한 관계도 양측이 성의있는 대화를 한다면 궁극적으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이어 그는 동북아지역 안보를 위해 美·日·蘇 3국 협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소련, 중국, 일본, 남북한등 다국간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 했음.

#### <9月 11日>

##### 蘇연구위원, 韓·蘇 「經協委」창설 제안

- 韓國·蘇聯경제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연례 정기회담을 갖는 비정부 차원의 「蘇聯경제협력위원회」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소련의 빅트르스판다리안 수석연구원이 제안했음.

- 그는 또 韓蘇간 경제협력강화를 위해서는 駐모스크바 大韓무역진흥공사(KOTRA)와 駐서울 蘇聯상공회의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蘇聯의 선진기술과 韓國의 세계시장진출 능력을 합친 기술협력의 개발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음.

<9月 11日>

**盧泰愚대통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 盧泰愚大統領은 11일 제147회 정기국회 개회에 즈음한 특별연설에서 6공화국의 새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음.
- 盧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남북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하여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한다」며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 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한다」 천명했음.
- 盧대통령은 새 통일방안에서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할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음. 그는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정부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 평의회를 설치, 인도,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분야 등의 민족 문제를 협의 조정하고 통일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한 통일 헌법을 기초하게 된다고 밝혔음.
- 盧대통령은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통일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盧대통령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 盧대통령은 또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고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가는 돌파구를 열어야 겠다」고 말했다.
- 평민, 민주, 공화 3야당은 盧泰愚대통령의 새통일 방안 발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새통일방안에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음을 지적해 비판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9월 12日>

蘇, 남북한 교차승인 검토 시사

- 방한중인 소련의 아르바토프박사는 「소련은 남북한 교차승인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 김영삼총재 주최의 만찬에 아르바토프와 같이 참석한 카피차 소련 前외무차관도 「남북한 교차승인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말해 2~3년내 교차승인이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12日>

李相朝氏, 북한의 南侵說 주장

- 소련 거주중 가족 방문차 일시 입국한 전 북한 인민군 부총참모장 李相朝씨는 기자회견을 갖고 6.25는 김일성의 남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 그는 「그러나 北韓에서는 북침설을 포함, 공식적으로 쓰고있는 역사책에 많은 역사 왜곡을 하고있다」며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金日成의 가짜설에 대한 질문에서 「滿洲에서 활동한 金日成임은 사실이나 北韓에서 선전하는 전설적인 존재로서의 金日成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9月 13日>

우리측, 남북체육회담 재개 제의

- 張忠植남북체육회담 우리측 수석대표는 북한측 김형진대표단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그동안 무기연기되었던 제3차 남북체육회담을 오는 10월 20일 오전10시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제의했음.

<9月 15日>

北韓,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거부

- 北韓은 盧泰愚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합리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
- 북한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의 두 체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면서 고려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거듭 주장했음.

<9月 16日>

우리측, 남북고위당국자 예비회담 수정제의

- 宋漢虎 남북고위 당국자 예비회담 우리측 수석대표는 白南俊 북측 단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한이 지난 1일 3차 예비회담을 18일 열자고 한데 대해 10월 12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수정제의 했음.

<9月 16日>

新任駐韓 美大使, 주한미군 계속주둔 언급

- 도널드·그레그 신임 駐韓美大使는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韓美 양국의 「충분하고 성숙한 협의」의 결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음.
- 그는 이어 「주한미군은 양국국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한 한국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언급 했음.
- 그는 또한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관련, 미국은 한국국민의 통일염원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盧泰愚대통령의 북방정책과 對북한 대화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음.

<9月 18日>

國防部, 美軍철수시 방위비 소요액수 밝혀

-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현재의 전력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는 5년동안 매년 52억달러 상당을 투자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음.

<9月 19日>

정부, 南北大學生교류 제의 예정

- 정부는 앞으로 남북한간의 국어 이질화극복을 위한 남북대학생 토론회와 통일문제 심포지엄 개최 및 남북대학생 고적답사단, 수학여행단 교류를 북한측에 제의하기로 했음.
- 남북대학생교류 추진위원회 (위원장 鄭鎔碩)는 전국민족운동대학생총연합 등 학생 단체가 신청한 조국순례 대행진, 국토종단 대장정등의 교류사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남북 교수 및 학술교류 추진위를 발족해 남북한간의 유물, 유적, 한국 고대사, 비무장지 대동식물등에 대해 공동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9月 19日>

7·7선언후 對北韓 수입량 증가

- 지난해 7·7선언 이후 지금까지 南北韓간의 교역량은 우리측에서 1천8백89만9천달러 어치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금년 2월 북한에 6만9천달러어치의 단일품목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9月 19日>

우리측,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재개 제의

- 국회는 그동안 중단돼온 제8차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 板門店에서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北韓측에 제의했음.

<9月 20日>

美太平洋사령관, 주한미군 계속주둔 언급

- 헌팅턴 하디스티 美太平洋사령관은 駐韓美軍은 현재 임무수행에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美國은 駐韓美軍에 대해 변화를 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
- 하디스티 사령관은 北韓의 위협이 있는한 주한미군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駐韓美軍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의사는 없으나 美軍의 지위, 수준에 대해서는 항상 정기적으로 검토·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 美軍의 韓國駐屯 향방에 대해 유보적인 단서를 붙였음.

<9月 21日>

韓·美, 양국 공동관심사 의견 교환

- 盧泰愚대통령은 케일 美부통령의 예방을 받고, 韓·美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케일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美國의 對韓방위공약은 확고하다는 부시美대통령의 메시지를 盧대통령에게 전하고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서 부시대통령 자신은 찬성하지도, 허용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음.
- 그는 또 盧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및 北方政策에 대한 美측의 지지의사도 표명했음.

<9月 21日>

美합참의장, 주한군 감축 한국과 협의 다짐

- 美國의 새 參議長에 지명된 콜린 파월장군은 국제안보환경변화와 美국방예산감축으로 앞으로 4~5년내에 美군사력 및 전략의 再編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駐韓美軍의 감축 및 재편은 한국정부측과의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月 26日>

정부, 세계성체대회 북한 신도 초청 승인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金壽煥 세계 성체대회 준비위원장이 신청한 북한 천주교신자 초청 요청을 승인 했음.
- 이에따라 천주교는 오는 10월 4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성체대회에 朴경수 平壤 장충성당 회장등 북한천주교신자 20여명을 공식초청할 수 있게 됐으며 북한 측도 로마교황청을 통해 우리측의 초청에 응할 뜻을 전해와 북한 천주교신자의 서울 방문이 성사될 전망으로 보임.

<9月 26日>

蘇聯, 北韓에 經濟개혁 강력 요구

-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 경제연구소의 바실리 미키에프박사는 지금까지의 북한·소련간의 경제교류가 정부간 교류였음을 상기시키고 이제부터는 기업간의 간접적인 경제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체제를 즉각적이고 획기

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月 26日>

佛敎界, 北韓 佛敎徒 초청

- 불교계는 다음날 14일 열리는 「한민족 대화합 남북평화통일기원 漢江 연등대법회」에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朴泰浩위원장등 북한불교도 30여명을 초청키로 결정하고 통일원에 이들의 초청신청서를 제출했음.

<9月 27日>

南北赤十字會談 제1차 실무대표접촉

- 지난 85년 12월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이후 3년 10개월만에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이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재개됐음.
-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에서는 宋榮大수석대표를 비롯한 대표 3명, 북한측에서는 박영수 단장을 비롯한 대표 3명이 참석했음.
- 이 회담에서 북한은 문익환목사, 임수경양 등 회담외적 문제를 들고 나와 실질 문제 토의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쌍방은 2차 실무대표접촉을 10월 6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열기로 합의하고 회담을 마쳤음.

<9月 27日>

蘇 외무부, 주한미군 철수시 남북대화 진전 기대 표명

- 만약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한반도와 주변국가들을 감싸고

있는 긴장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며 나아가 남북한 대화에도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련 외무부 대변인 바딤 페르필리에프가 밝혔다.

- 그는 소련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최근 마치 북한이 한국에 대해 일종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양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한국 문제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9月 28日>

##### 미국방 장관, 韓半島 軍事力 北韓 우세 주장

-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은 소련은 주요군사력 감축발표에도 불구하고 극동 및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북한의 계속적인 對韓 군사위협은 중대하다」고 말하고 「현재 전반적인 韓半島 군사력 균형은 계속 北韓에 우세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 또한 그는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火力, 기동력, 군수지원 개선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명백히 증가되고 있는 蘇·北韓 군사 협력은 특히 우려 된다」고 지적 했다.

#### <9月 28日>

##### 北韓,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안

- 북한은 28일 남북한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남 북한 당국·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민족통일협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 북한은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의하는 이유와 관련해 「고려연방제만이 우리 민족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통일방도가 된다고 확신하지만 서로 화해하고 존중하며 양보하는 입장에서 다른 통일방안들에 대해서도 허심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며,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누구의 것이라도 폭넓게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 동안 고려연방제만이 민족통일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고수해 온 종전의 태도와 커다란 차이를 보였음.
- 북한은 이 제의와 함께 「남조선 당국과 정당단체들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했는데 이 편지에서 「민족통일협상회의」를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되 그 첫번째 회의는 오는 1990년 2월 20일 평양에서 진행하자고 밝히고 대표 구성과 관련해서 남북한의 지도급 인사들을 비롯해 모두 60여명의 대표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음. 또 의제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정당·사회단체들이 내놓은 통일방안들을 광범위하게 협의하고 통일방도에 관한 「민족공동선언」 발표에 대한 것과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들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9월 30日>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訪北신청서 제출

-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사제단 소속 신부 15명의 派北과 관련, 북한 주민접촉 승인서를 통일원에 제출 했음.
- 이 신청서에서 사제단은 北韓방문기간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이며, 방문목적은 미사집전 및 천주교 관련단체 방문이라고 밝혔음.
- 이에 대해 통일원의 한 고위당국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訪北신청 목적은 순수한 종교활동이라고 하지만 정의구현사제단이 천주교 전체를 대표하고 있지 않으므



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9月 30日>

민족통일 불교협의회, 방북 신청

- 불교단체인 민족통일불교협의회가 지난 20일 교계 각 종단 총무원장급 중진 승려·신행단체장·불교학자 및 신도회장급 인사 등 불교인 30여명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국토통일원에 내고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음.
- 이에 대해 통일원은 「종교인 교류는 대표성을 갖춘 기반위에서 실현돼야 하며 북한의 초청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9月 30日>

통일원장관, 南北韓 통행협정 제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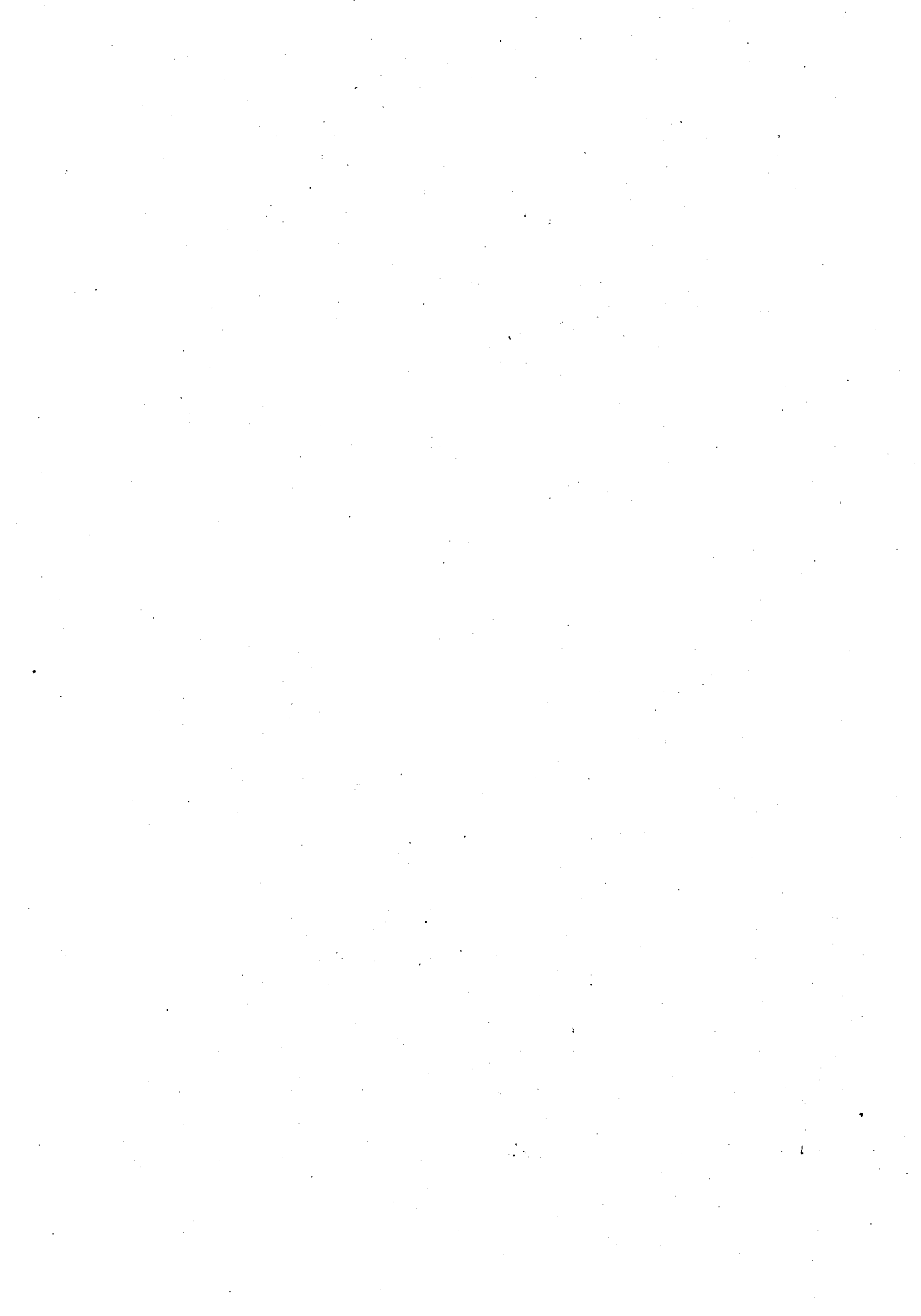
- 정부는 민간차원의 南北교류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南北간의 통행안전 보장 등에 필요한 南北간의 기본합의가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판단아래 그 성사를 북한측에 적극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李洪九통일원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南北교류가 보다 보편적인 원칙하에 이루어지려면 통행, 통신협정등 南北간의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직십자회담이나 당국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등에서 이를 적극 거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9月 30日>

통일원, 북한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 관련 논평

- 崔炳輔통일원 대변인은 북한측의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와 관련, 이는 북남정치협상회의의 再版으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논평했음.
- 崔대변인은 「통일문제협상은 대화의 주체가 분명히 당국이 되어야함에도, 북측이 이번에도 각계각층 대표를 망라한 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한 것은 사실상 생산성 있는 대화를 하지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 「저들의 통일방안은 고려연방제 하나일 수 밖에 없고, 우리측에는 상이한 통일방안이 있는 양 주장하면서 우리정부의 통일방안을 각계의 통일방안과 병렬시키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음.

# 10月動向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10月 1日  | 北韓, 통일협상회의 관련 준비회담 제의     |
| 10月 2日  | 政府, 海外留學生 北韓접촉 첫 허용       |
| 10月 2日  | 蘇聯, 남북대화 관련 남북한 태도 비판     |
| 10月 2日  | 北韓·蘇聯, 합동군사훈련 실시          |
| 10月 3日  | 延·高大, 定期戰에 북한학생 초청        |
| 10月 4日  | 北韓, 金信氏 密入北 공작            |
| 10月 5日  | 北韓, 「민족통일협상회의」 관련 우리 단체指名 |
| 10月 5日  | 政府, 北韓과 협력사업추진 첫 승인       |
| 10月 6日  | 北韓軍 1백만명 돌파               |
| 10月 6日  | 南北赤十字會談 2차 실무접촉           |
| 10月 6日  | 在美 奇大圓스님 派北               |
| 10月 6日  | 美國, 對北韓 禁輸 완화 조치          |
| 10月 8日  | 北韓, 佛教徒 초청 수락             |
| 10月 9日  | 北韓, 金壽煥추기경에 電文 전달         |
| 10月 9日  | 헝가리, 공산당통치 종식             |
| 10月 11日 | 圓光大, 北韓學者 3명 초청           |
| 10月 12日 | 蘇聯, 東歐共產黨 변신 허용           |
| 10月 12日 | 南北高位當局者 3차 예비회담 개최        |
| 10月 12日 | 奇大圓스님, 방북내용 설명            |
| 10月 13日 | 駐日 美대사, 주한미군 지위 재검토 시사    |
| 10月 14日 | 盧泰愚대통령, 美軍駐屯 관련 美紙와 회견    |
| 10月 14日 | 불교회담, 北韓 불참으로 霧散          |
| 10月 17日 | 南北赤十字 3차 실무대표 접촉          |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10月 18日 | 韓·美 정상회담 개최              |
| 10月 19日 | 美 亞·太 차관보, 주한미군 일부 철수 시사 |
| 10月 19日 | 慶熙大, 訪北 신청               |
| 10月 19日 | 盧泰愚대통령, 美議會서 연설          |
| 10月 20日 | 소련,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긍정 반응    |
| 10月 20日 | 남북체육회담 3차 회담 개최          |
| 10月 21日 | 평양 대학가에 經濟政策 비난 大字報 등장   |
| 10月 23日 | 北韓, 두만강 哈山島에 경제특구 건설착수   |
| 10月 23日 | 延大·모스크바大 학술교류 협정체결       |
| 10月 23日 | 蘇 研究員, 한·소 외교관계 언급       |
| 10月 24日 | 美 WP紙, 주한미군 철수문제 언급      |
| 10月 24日 | 정부, 원광대의 北韓學者 초청 승인      |
| 10月 24日 | 民主黨, 韓·蘇議員會議 구성 제의       |
| 10月 24日 | 美 국무장관, 미소 냉전관계 종식 선언    |
| 10月 24日 |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우리대표 1명 교체   |
| 10月 25日 | 北韓, 對美접촉 공식화 추진          |
| 10月 25日 | 蘇, 나토·바 機構 동시 해체 용의 표명   |
| 10月 25日 | 남북국회회담 제 8 차 준비접촉        |
| 10月 26日 | NATO, 나토·바 기구 해체제의 거부    |
| 10月 26日 | 고려대, 남북학생 교류추진           |
| 10月 26日 | 북한군사력, 남한의 1.5배          |
| 10月 27日 | 생물공학회, 북한학자 초청 신청        |
| 10月 27日 | 元炳昨교수, 철새서식 연구목적 북한방문 신청 |

| 日 字     | 主 要 内 容                   |
|---------|---------------------------|
| 10月 27日 | 北韓, 核협정 서명 거부             |
| 10月 28日 | 政府, 학술교류 3건 북한접촉 승인       |
| 10月 28日 | 美, 북한과의 교류확대 희망           |
| 10月 29日 | 시거, 金日成과 南北韓問題 논의         |
| 10月 29日 | 蘇, 한국 UN가입시 거부권 불행사 강력 시사 |
| 10月 31日 | 시거, 청와대방문 방북결과 설명         |

< 10月 1日 >

北韓, 통일협상회의 관련 준비회담 제의

- 워싱턴 포스트紙는 북한외교부 제1副部長 姜錫柱가 북한은 그들이 내년 2월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 남·북한 「통일협상회의」 준비를 위해 남·북한간 비공식회담을 즉각 갖기를 제의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음.
- 강석주는 이 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측이 일반적으로 선호해 온 남·북한 양측 정부 고위관리들의 회담 제안에 대해서 한국의 야당과 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月 2日 >

정부, 海外留學生 北韓접촉 첫 허용

- 정부는 지난 7월 박사학위논문자료 수집을 위해 프랑스 파리駐在 北韓대표부측과의 접촉을 승인해 달라고 신청한 파리유학생 鄭成長씨(파리 제10대학 정치학)의 北韓 접촉승인 요청을 최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전하고 「鄭씨의 경우 北韓접촉 목적이 순수한 학술 목적인데다 실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6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지침에 따라 이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 10月 2日 >

蘇聯, 남북대화관련 남북한 태도 비판

- 蘇聯의 노보스티通信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盧泰愚대통령의 제안이 「시기적으로 현



실적인 것이며 실현가능한 것]이라고 최근 논평했음.

- 이 칼럼은 南北韓의 완고한 입장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南韓에 대해선 팀스피리트 訓練 중단을, 美國에 대해선 北韓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北韓에 대해선 「서울측이 제의했던 6개국 당사자회담에 조그마한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간접 비판했음.

### < 10月 2日 >

#### 北韓·蘇聯, 합동군사훈련 실시

- 북한과 소련이 9월에 동해상에서 대규모 海·空軍합동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했다고 日本 산케이(産經)신문이 고위군사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음.
- 이 소식통은 「북한은 현재 공개리에 실시하고 있는 韓·美합동훈련(팀스피리트)을 北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번 북한·소련의 합동군사훈련을 극비리에 붙이고 있음은 주목할만 한 일」이라고 지적했음.

### < 10月 3日 >

#### 延·高大, 定期戰에 北韓學生 초청

- 延大와 高大게시판에 「北韓의 청년학생들을 9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延高祭에 초청하자」는 내용의 대자보가 나붙었음.
- 연대의 경우 「연고제에 우리반쪽 북녘 학우를 초대합시다」라는 대자보를 통해 89정기 延高민족해방제에 북녘학우를 초청, 南北學生交流의 새 章을 열자고 주장했음.
- 고대의 경우도 「조국의 자주와 하나됨을 염원하는 法大 88·89학번」 명의로 된 대자보를 통해 같은 제의를 했음.

< 10月 4日 >

北韓, 金信氏 密入北 공작

- 北韓이 지난 6월말 林秀卿양 밀입북과 거의 같은 시기에 金九선생의 아들인 金信씨 (前교통부장관)를 밀입북시키기 위해 誘引工作을 시도했으며 金씨의 입북에 대비하여 平壤에서 대대적인 환영군중집회까지 준비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음.
- 북한의 김신씨 유인공작은 이 사실을 미리 포착한 안기부의 사전조치로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음.

< 10월 5日 >

北韓, 「민족통일협상회의」관련 우리 단체 指名

- 북한은 자신들이 제의한 「민족통일협상회의」와 관련, 방송을 통해 이 회의에 참석할 우리측의 19개 당국 정당단체를 지명하고 이들 단체들에 보내는 편지내용을 공개했음.
- 그들이 지명한 단체를 보면 대한민국 국무총리,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진보정치연합, 전국민중민주운동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운동연합,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기독교협의회,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 천도교중앙총국 등 19개 당국·정당·단체임.

< 10月 5日 >

정부, 北韓과 협력사업 추진 첫 승인

- 정부는 第3國에서 北韓과의 수산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北韓企業 관계자와의 접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東邦원양개발공사대표 尹基元씨의 협력사업 사전승인 신청을 최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月 6日 >

北韓軍 1백만명 돌파

- 런던의 국제 전략 연구소(IISS)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1백 4만명의 병력을 갖고 있으며 지난 한해동안 소련제 미그29 신예전투기 34대를 작전에 투입하는 등 군사력을 대폭 증강한 것으로 밝혀졌음.
- 이날 밝혀진 남북한 군사력 현황을 보면 군병력은 남한 65만, 북한 1백 4만으로 북한이 39만명이나 많은데 특히 육군 병력에 있어 남한 55만, 북한 93만으로 38만명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10月 6日 >

南北赤十字會談 2차 실무접촉

-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와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2차 실무접촉이 6일 오전 10시 板門店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음.
-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접촉에는 쌍방에서 각각 3명씩의 대표가 참석, 제11차 적십자

본회담의 개최시기 및 의제와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환시기·규모 등에 대해 절충을 벌였음.

- 회담 벽두에서 북측은 문익환목사, 임수경양 등의 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 실무절차 문제의 토의 진행에 난관을 조성하고 방문단규모 등에서도 쌍방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의 보지 못한채 3차 접촉을 10월 16일 다시 갖기로 하고 2차 실무대표 접촉을 끝냈음.

<10月 6日>

在美 奇大圓스님 派北

-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민족화합 한강연등대법회」에 북한 불교신자들을 초청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徐義玄 조계종 총무원장)는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미국 하와이 大圓寺주지 奇大圓스님을 북한에 파견했음.

<10月 6日>

美國, 對北韓 禁輸 완화조치

- 美國정부의 허가를 받아 88년 한해동안 北韓에 수출된 美國상품은 1만달러도 채 못되며 北韓측의 계속된 外貨부족으로 작년 10월 對北韓 禁輸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美·北韓간의 교역관계는 지극히 한정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로버트 모스배커 美상무 장관이 밝혔음.
- 모스배커 장관은 美의회에 「외교정책목적상의 수출금지 조치에 관한 보고」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해 내고 국제테러에서 손을 떼게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극히 완만한 禁輸 해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음.

< 10月 8日 >

北韓, 佛敎徒 초청 수락

- 北韓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한강연등회와 대법회에 北韓불교도 대표들을 초청한데 대해 수락의사를 표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에 관한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음.
- 한편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孫成弼위원장은 이날 金相浹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전화 통지문을 보내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북측 불교도연맹 위원장에게 보내는 초청편지를 판문점을 통해 전달받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이를 거부하고 남측이 먼저 민족통일협상회의와 관련해 남조선당국, 정당, 단체들에 보내는 북측의 편지를 전달해줄 것을 촉구했음.

< 10月 9日 >

북한, 김수환 추기경에 電文 전달

- 김수환 추기경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北韓이 지난 7일 조선천주교도연맹 명의로 자신에게 장문의 전문을 보내와 南北관계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과 함께 밀입북으로 수감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해 줄것을 촉구해온 바 있었다」고 밝혔음.

< 10月 9日 >

헝가리, 共産黨통치 종식

- 헝가리는 전후 45년간 계속되던 공산당통치를 7일 마감하고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역사의 새 장을 열었음.
- 지난 6일 개막된 헝가리 공산당인 사회주의 노동자당 전당대회에서 개혁파들은 스탈

린식의 국가사회주의 종식과 다당제에 입각한 의회 민주주의의 추구, 시장 경제의 도입 등 당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헌장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의 공산당 통치를 마감하고 민주사회주의 건설을 선언했음.

< 10月 11日 >

圓光大, 北韓學者 3명 초청

- 원광대부설 馬韓百濟文化研究所(소장 金三龍 원광대총장)는 제 10 회 마한백제문화학술회의에 북한학자 3명을 초청하겠다고 문교부에 초청승인신청서를 냈음.
- 원광대가 초청승인 신청을 낸 북한학자는 주영현(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부소장), 채회국(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과 부교수), 김신숙(조선중앙역사박물관장)으로 모두 古代史를 전공하고 있음.

< 10月 12日 >

蘇聯, 東歐共產黨 변신 허용

- 미에치스와프 라코프스키 폴란드 공산당 서기장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蘇聯공산당 서기장이 헝가리와 폴란드 공산당이 黨名과 강령등을 변경, 새로운 당으로 변신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밝혔음.
- 그는 고르바초프와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당의 형태와 조직은 전적으로 해당국가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10月 12日 >

남북고위당국자회담 3차 예비회담 개최

- 南北韓 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제 3 차 예비회담이 12일 오전 10시 板門店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南北 각각 5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개됐음.
- 지난 3월 2차 예비회담에서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회담 결렬을 선언한지 7개월만에 다시 열린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은 1, 2차회담에서 南北 간 견해차를 보여온 본회담의 명칭·의제·개최장소·대표단구성등에 대한 종전의 우리측 제의를 北韓측이 수락할 것을 촉구하고, 「北韓측이 현재 벌이고있는 대남공작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말했다.
- 이에 앞서 북한측은 문익환목사, 임수경양등의 석방문제등을 거론하고 나와 실질문제 토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측은 4차접촉을 11月 15일에 갖기로 하고 회담을 끝냈음.

< 10月 12日 >

奇大圓스님, 방북내용 설명

- 한강 연등제에 북한불교대표를 초청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기대원 스님이 11일 귀국했음.
- 大圓스님은 平壤에 체류하는동안 두차례에 걸쳐 北韓의 조선불교도연맹 朴泰浩위원장과 만나 「한강연등제에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南北불교도가 함께 참가하는 한강연등제를 순수한 종교행사로만 치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음.

< 10月 13日 >

駐日 美대사, 주한미군 지위 재검토 시사

- 미국방부는 駐韓美 2사단의 규모와 역할 조정등 駐韓美軍의 장래에 대한 검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아머코스트 駐日 美대사도 美軍의 시설·위치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美행정부가 駐韓美軍의 지위에 대한 변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음.
- 한편 주한미군 재검토 문제와 관련 美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紙는 미국방부는 90년대 중반 韓國의 방위력이 충분해질 것으로 평가하며 그때가 되면 駐韓美 2사단을 더이상 韓國방위에 필수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음.

< 10月 14日 >

盧泰愚대통령, 美軍주둔 관련 美紙와 회견

- 한국의 盧泰愚대통령은 美 뉴욕타임즈紙와 회견을 갖고 현시점에서 駐韓美軍의 감축을 전혀 고려할 수 없으며, 한국은 경제력 발전에 부응하여 미군주둔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늘릴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특히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전반적인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간의 정책수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미국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근본적 변화도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10月 14日 >

불교회담, 北韓 불참으로 무산

- 14일 개최되는 한강연등 대법회에 북한신도들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불교도 연락실무대표접촉이 13일 오후 4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측이 대표들을 파견하지 않아 무산됐음.
- 한편 북한측은 이날 오후 對南전화통지문을 통해 「연등대법회 참가문제와 관련한 협의절차는 시간상 너무 늦었다」고 거부하고 「각각 7명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북남불교도 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음.

< 10月 17日 >

南北赤十字 3차 실무대표접촉

- 16일 板門店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열린 南北적십자 제3차 실무대표접촉은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을 오는 12월 8일 교환하고 제11차 적십자본회담을 12월 15일 平壤에서 개최기로 합의했음.
- 남북적십자대표들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실무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남북한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11월 18일 제 4차 실무대표접촉에서 다시 논의기로 했음.

< 10月 18日 >

韓·美 정상회담 개최

- 盧泰愚대통령과 조지 부시 美國대통령은 17일 낮 白堊館 韓美頂上會談 후 언론발표문

을 통해 「駐韓美軍은 韓美 양국정부와 국민들이 원하는 한, 北韓으로부터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韓國에 주둔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 盧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이 언론발표문을 낸 것과는 별도로 韓美양측은 회담결과를 각각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靑瓦臺 李秀正대변인은 한국의 방위비분담액 증액문제와 관련, 盧대통령은 「韓國 경제성장에 맞춰 그 기여도를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 그는 또 盧대통령이 北韓의 核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부시대통령은 국제적인 안전조치와 감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펴나갈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 10月 19日 >

美 亞·太차관보, 주한미군 일부 철수 시사

- 리처드 솔로몬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차관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재다짐한 안보공약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미국이 보장한다는 것이며 주한미군의 병력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 솔로몬 차관보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백악관에서 가진 뉴스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감축문제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의 숫자는 우리의 안보공약에 대한 척도가 아니다」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행정부의 주한미군 검토방안에 주한미군의 조정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병력일부를 철수할 수 있음을 밝혔다.

< 10月 19日 >

慶熙大, 訪北 신청

- 慶熙大는 趙永植총장명의로 「高句麗문화권 지역답사 및 南北대학생공동세미나」 개최를 위해 北韓을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南北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위원장 鄭鎔碩 檀國大교수)에 제출, 정부의 승인을 요청했음.

< 10月 19日 >

盧泰愚대통령, 美議會서 연설

- 노태우대통령은 18일 미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전진의 동반자」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전, 남북한관계 및 통일정책, 한미통상 안보협력등에 관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盧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휴전이후 안정이 유지되어 온것은 강력한 한미 안보체제를 통해 전쟁이 억제돼 왔기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안보공약의 약화,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등이 북한을 오관하게 만들것이라며 「변화가 필요할 때까지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자」고 강조했다.
- 盧대통령은 자신이 제의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설명하고 「나는 남북한 정상회담의 개최를 북한에 촉구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불가침선언, 군축을 포함한 모든 현안이 아무 전제조건없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10月 20日 >

소련,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긍정 반응

- 소련은 남북한 유엔가입과 관련, 북한에 대해 남북한 쌍방이 접수할 수 있는 결정을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모스크바방송은 논평기사에서 남북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쌍방이 절충을 이룩하며 서로가 협조강화에 백방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남북한 유엔가입문제도 이런 입장에서 취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0月 20日 >

남북 체육회담 3차 회담 개최

- 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남북 체육회담이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쪽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렸음.
- 남북한 양쪽은 이날 2차회담때 접근을 보았던 團歌는 20년대 아리랑으로 한다는 것과 남북한 동수의 종목별 감독·코치를 선임해 합동훈련을 실시한 뒤 선발전을 통해 대표를 선발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재확인 하고, 團旗는 흰 바탕에 하늘빛 한반도 지도로 합의하였음. 양측은 그밖에 쟁점이 되고 있는 호칭문제 등은 오는 11월 16일 제4차 회담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고 회담을 끝냈음.

< 10月 21日 >

平壤 대학가에 經濟政策 비난 大字報 등장

- 北韓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大字報가 지난 88년 6월과 7월중 平壤대학가에 등장, 이

와 관련해 교수와 학생등 40여명이 체포됐다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이 밝혔음.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5일 발간될 예정인 88년 인권상황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북한부분에서 「지난해 6월과 7월중 평양의 金策공과대학과 평양대학 구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벽보가 붙은 사건이 발생, 두대학의 교수와 학생 40여명이 체포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음.

<10月 23日>

北韓, 두만강 哈山島에 經濟特區 건설착수

- 북한은 中蘇양국 국경지역에 인접한 豆滿江의 哈山島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 무역 및 공업중심지로 발전시키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중국계 일간지 文匯報가 중국해남성의 海南特區報를 인용, 보도했음.

<10月 23日>

延大·모스크바大 학술교류 협정체결

- 蘇聯을 방문중인 朴煥植총장등 延世大대표단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모스크바大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음.
- 협정에 따라 양교는 90년 5월부터 교수·학생 1명씩을 교환하게 되며 앞으로 공동으로 학술회의의 연구사업등을 벌이게 될 것임.

< 10月 23日 >

蘇 研究員, 한·소 외교관계 언급

- 방한중인 마르티노프 蘇聯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 (IMEMO)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韓蘇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문제는 양국의 동맹국 관계등을 고려해 볼 때 성급한 예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현재는 경제뿐 아니라 과학·문화, 기타 분야의 관계증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음.
- 마르티노프 소장은 또 美國과 蘇聯이 南北을 교차승인하는 문제와 관련, 「蘇聯과 韓國의 관계발전에 반드시 교차승인을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해 蘇聯이 현단계에서 南北교차승인을 고려치 않고 있음을 밝혔음.

< 10月 24日 >

美 WP紙, 주한미군 철수문제 언급

- 워싱턴 포스트紙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한반도 긴장문제 해결의 올바른 출발점은 아니라고 주장했음.
- 워싱턴포스트紙는 「우선 과제는 한반도 분단의 질서있는 종결 내지는 완화」라고 지적하고 「김일성일가가 집권하고 있는 한 北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개방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주한미군의 철수는 그때가서 상호 核억제와 정치적 화해 등 南北 상호간의 비무장화 테두리 안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10月 24日 >

정부, 원광대의 北韓학자 초청 승인

- 대학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학자가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국토통일원은 지난 8월 원광대 馬韓百濟文化研究所가 제10회 국제학술회의에 북한학자 3명에 대한 초청 신청을 받아들여 원광대에 승인공문을 통보했음.

< 10月 24日 >

民主黨, 韓·蘇議員會議 구성 제의

- 민주당과 소련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가 공동주최한 「韓·蘇관계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鄭在文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소관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의 하나는 양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회의의 구성」이라고 제의했음.
- 한편 게오르기 쿠나제 IMEMO 연구실장은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자신들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토록 해야 하며 남북한 상호신뢰는 군사적 대치상황을 해소하지 않으면 구축될 수 없다」고 말하고 「美·日이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中·蘇도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남한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10月 24日 >

미국무장관, 美蘇 냉전관계 종식선언

- 제임스베이커 미국무장관은 美國과 蘇聯은 냉전시대를 넘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고 선언하고 양국은 선제공격용 핵무기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10月 24日 >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우리대표 1명 교체

- 南北국회회담 준비접촉 우리측 蔡汝植수석대표는 북한측 全琴哲대표단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우리측 대표단중 金龍煥대표(共和)를 李熺逸대표(共和)로 교체한다고 통보했음.

< 10月 25日 >

北韓, 對美접촉 公式化추진

- 북한의 朱昌駿 駐中대사는 北京의 북한대사관에서 美·日특파원들과 회견, 작년말부터의 美·北韓간 비공식 외교관접촉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행해져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고위관리 및 국회의원급의 공식접촉으로 격상할 뜻을 밝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음.
- 그는 또 미국 국회의원의 북한 방문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해 희망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임을 분명히 했음.



< 10月 25日 >

蘇, 나토·바 機構 동시해체 동의 표명

-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등 유럽의 東西군사기구의 해체를 기꺼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 세바르드나제 장관은 또 소련은 동구국가에 대해 불간섭 자결권보장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오는 2천년까지 해외의 소련군사기지를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공표했음.

< 10月 25日 >

南北國會會談 제8차 준비접촉

- 南北국회회담을 위한 제8차 준비접촉이 중단된지 10개월만에 25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양측대표 5명씩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음.
- 이날 접촉은 北측의 全琴哲 단장이 기초발언을 통해 또다시 文益煥 목사등의 석방문제와 팀스피리트훈련중지, 민족통일협상회의개최문제 등을 거론하는등 정치공세를 되풀이, 실질토의는 해보지도 못한채 다음 제9차접촉을 11월 29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갖기로만 합의하고 끝났음.

< 10月 26日 >

NATO, 나토·바 機構 해체제의 거부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들은 蘇聯의 군축노력에 환영을 표했으나 2000년까지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함께 해체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일축하고 소련에 단거리 핵미사일의 과감한 감축을 촉구했음.

< 10月 26日 >

高麗大, 南北學生 교류 추진

- 高麗大는 금년 2학기부터 남북대학생간의 유학교류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정부당국과 협의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학부생·대학원생 10여명을 北韓의 金日成종합대학·金策공과대학·平壤의과대학등에 유학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학교측은 또 北韓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高麗大에서 수학하는 동안의 등록금·생활비등 일체비용을 부담할 것이며 南韓의 대학생들이 北韓에 유학할 경우에도 北韓측이 동일한 재정부담을 해줄것을 요구했음.

< 10月 26日 >

北韓 군사력, 南韓의 1.5배

- 국방부가 발간한 「89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북한간의 군사력 종합평가결과 전쟁수행 잠재력은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히 우세하고 동원군사력면에서는 남북한이 대등하지만 상비군사력은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백서는 남북한간의 상비군사력비교에서 「북한의 총 병력은 지난해 평가보다 11만명이 증가한 98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육·해·공군 모두 남한대비 1.5배의 병력과 부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은 통합군체제로 통합전력발휘가 용이하고 장기복무등으로 임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음.

< 10月 27日 >

생물공학회, 북한학자 초청 신청

- 「남북교수·학술교류추진위」는 한국생물공학회(회장 睦榮一)가 90년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 2 회 생물공학국제학술대회에 23개국 학자 1백30여명을 초청하면서 北韓의 리춘호, 최신원, 김기성등 3명의 학자를 초청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해왔다고 밝혔다.

< 10月 27日 >

元炳昨교수, 철새서식 연구목적 북한방문 신청

- 조류학자 元炳昨교수(慶熙大)는 北韓지역의 철새서식 실태연구를 위해 北韓을 방문 하겠다며 방북신청서를 「남북교수·학술교류추진위원회」(위원장 洪承稷)에 제출했음.

< 10月 27日 >

北韓, 核협정 서명거부

- 북한은 지난달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총회에서 북한의 핵안전수칙협정 서명문제를 한반도의 非核지대화문제에 연계시킴으로써 사실상 同 協定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月 28日 >

정부, 학술교류 3건 북한접촉 승인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를 열어 생물공학회 국제학술회의에 북한학자초청, 경희대 사학과 고구려 유적 답사, 경희대 원병오교수 북한 조류 실태조사 등을 위한 대북한 접촉에 대해 승인하기로 결정했음.

< 10月 28日 >

美國, 北韓과의 교류확대 희망

- 개스틴 시거 前 美國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는 북한 방문을 끝내면서 행한 고별 연설에서 미국과 북한간에 보다 광범위한 접촉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음.
- 시거 前차관보는 자신이 이번 방문동안 北韓부주석 李鍾玉 부총리, 金永南 로동당중앙위비서 許鎡등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상호관심사에 대해 견해를 나누었다고 말하고 자신과 회담을 가진 北韓의 인사들이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자신도 통일문제가 북한의 至上目標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말했음.

< 10月 29日 >

시거, 金日成과 南北韓問題 논의

- 북한 방문을 끝내고 내한하는 개스틴 시거 前美國무부 東亞太담당차관보는 평양에 머무르는 동안 金日成을 만나 남북한 및 美·北韓 관계를 포함, 한반도문제 전반에

걸쳐 장시간 의견을 교환, 이에 대한 김일성의 의중을 직접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月 29日 >

蘇聯, 한국 UN가입시 거부권 불행사 강력 시사

- 소련은 한국이 내년 유엔가입을 신청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시사했음.
- 유엔주재 소련대표부의 공식대변인 알렉산드르·데니소프 공보실장은 한국의 유엔가입신청계획과 관련, 「소련은 유엔총회가 한국을 회원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소련의 거부권 불행사 의도를 분명히 했음.

< 10月 31日 >

시거, 靑瓦臺방문 訪北결과 설명

- 북한을 방문했던 개스틴 시거 前 국무부 東亞太담당 차관보는 노태우 대통령을 방문, 北韓訪問 결과를 설명했다.
- 이 면담 결과에 대한 공식 브리핑은 없었으나 시거의 방북기간중 북한측은 시거 前 차관보에게 南北韓과 美國간의 3者회담, 駐韓美軍 철수, 美·北韓간 평화협정요구등 기존입장을 되풀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시거 前차관보는 南北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상회담등 정상적인 南北대화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駐韓美軍은 韓美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므로 북한이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시거 前차관보는 또 북한측에 테러중지, 핵무기개발 중지등 미국측의 관심사항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11月動向

---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11月 2日  | 美·北韓, 北京서 5次 접촉            |
| 11月 2日  | 韓·폴란드 修交                   |
| 11月 2日  | 시거, 國會에서 訪北내용 설명           |
| 11月 3日  | 北韓, 대미접촉 횟수 확대 희망          |
| 11月 3日  | 政府, 남한 쌀과 북한 자원 交易 검토중     |
| 11月 5日  | 美兩院, 넌·워너 수정안 통과           |
| 11月 6日  | 金日成, 중국 방문                 |
| 11月 7日  | 폴란드, 공산당 파산 선언             |
| 11月 7日  | 中國, 對北韓 경제원조 삭감            |
| 11月 7日  | 在美教授, 남북한 통일안 타협가능성 시사     |
| 11月 8日  | 板門店북측기자, 김일성 訪中 사실 확인      |
| 11月 9日  | 西獨, 東獨에 대규모 경제원조 제의        |
| 11月 9日  | 남북적십자회담 4차실무접촉             |
| 11月 9日  | 金日成, 한국 不承認 중국 同意 얻어       |
| 11月 10日 | 北韓, 3자회담 연내 개최 제의          |
| 11月 10日 | 東獨, 국경 전면 개방               |
| 11月 10日 | 蘇聯, 非共産 東獨수용               |
| 11月 10日 | 鄧小平, 중국 軍事委主席 사임           |
| 11月 11日 | 北韓, 社會主義 옹호                |
| 11月 11日 | 蘇聯, 베를린 장벽 철폐 統獨과 무관 주장    |
| 11月 12日 | 통일원장관, 남북개선 東西獨式 무관 밝혀     |
| 11月 12日 | KNCC, 당국에 북한기독교대표 접촉 승인 신청 |
| 11月 13日 | 南北赤十字會談 5차 실무대표접촉          |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11月 13日 | 정부, 남북대화시 北韓主張 가능한 한 수용 방침    |
| 11月 14日 | 政府, 二元的 對北政策 추진 계획            |
| 11月 15日 | 政府, 北韓 천도교도 초청 승인             |
| 11月 15日 | 北韓, 국내여행 自由化 시행계획             |
| 11月 16日 | 北韓, 韓·蘇 접근 불만표시               |
| 11月 16日 | 南北高位當局者會談 4차 예비회담 개최          |
| 11月 16日 | 盧泰愚대통령, 東·西獨변화 한반도에 활용 당부     |
| 11月 16日 | 韓·체코, 무역 사무소 설치 합의            |
| 11月 17日 | 南北체육회담 4차會談 개최                |
| 11月 17日 | 美연구소, 주한미군 1996년 1개여단으로 감축 주장 |
| 11月 18日 | 金大中총재, 南北 TV·라디오 상호시청 提案      |
| 11月 21日 | 美國, 한국 北方政策지지                 |
| 11月 21日 | 천도교, 북한 천도교인 20명 초청           |
| 11月 21日 | 남북적십자회담 6차 실무접촉               |
| 11月 22日 | 北韓學者, 對外經協 필요성 강조             |
| 11月 23日 | 강현두교수, 남북방송 교류방안 제시한 논문 발표    |
| 11月 23日 | 등소평, 북한에 남북대화 탄력대응 권유         |
| 11月 24日 | 蘇學者, 남북한 UN 동시가입 지지           |
| 11月 24日 | 통일원, 고려대·북한대학 교류승인            |
| 11月 25日 | 남북체육회담 5차회담 개최                |
| 11月 25日 | 盧泰愚대통령, 남북한 실질협력 추진의지 표명      |
| 11月 28日 | 南北赤十字會談 7차 실무접촉               |
| 11月 29日 | 통일원장관, 南北經濟協力 기금 설치 검토        |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11月 29日 | 美軍部, 3개년 軍縮案마련            |
| 11月 29日 | 南北國會會談 9차 준비접촉 개최         |
| 11月 30日 | 盧泰愚대통령, 美에 소련의 북한개방 협조 요청 |

<11月 2日>

美·北韓, 北京서 5次접촉

- 미국과 북한은 1일 북경에서 제5차 접촉을 갖고 미 북한간의 대화진전문제를 비롯,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가입문제등을 논의했다고 워싱턴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말했다.

<11月 2日>

韓－폴란드 修交

- 우리나라와 폴란드 정부는 1일 대사급 공식외교관계를 수립했음.
- 이날 양국간에 서명된 수교의정서는 「한·폴란드 양국의 국제법적원칙 존중의 기초 위에서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1일자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1月 2日>

시거, 國會에서 訪北내용 설명

- 방한중인 개스틴·시거前 美國무부 東亞·태차관보는 國회를 방문, 金在淳국회의장과 野3당총재및 남북국회회담 대표단에게 자신의 방북결과를 설명했다.
- 시거前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미·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 韓國戰 미군전사자 유골반환
  -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하는 안전조치 질차매듭
  - 국제테러행위에 대한 명백한 반대입장 표명

- 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한 관계진전

- 그동안 미국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진지한 토의등 5개항의 전제조건을 북한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음

- 시거 前 차관보는 이어 북한측은 한국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고 타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음.

<11月 3日>

北韓, 對美 접촉횟수 확대 희망

- 北韓은 현재 北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美·北韓당국자간의 접촉장소를 美國·北韓 內등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이 있음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 北韓은 또 美·北韓당국간의 접촉 창구를 현재의 정무참사관급에서 보다 格上시키는 것과 아울러, 접촉 횟수도 늘릴 것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음.

<11月 3日>

정부, 남한쌀과 北韓자원 交易 검토중

- 정부는 소비량감소와 생산량증가로 매년 남아돌고 있는 쌀을 북한의 지하자원과 교역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면 남북경제회담 재개와 관련 시키지 않고 북한과의 교역을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1月 5日 >

美 兩院, 년·워너 수정안 통과

- 부시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감축에 관해 한국정부와 협의, 그 결과를 내년 4월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년·워너 수정안이 2일 미 상하양원합동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미 사이에 주한미군의 감축에 관한 협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일 전망이다.

< 11月 6日 >

金日成, 중국 방문

- 북한의 金日成이 중공을 비밀리에 방문중이라고 일본언론들이 보도했음.
- 김일성의 이번 訪中은 지난 87년 5월의 공식방문이라 거의 2년 반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의 NHK방송은 이에 대해
  - 최근 동구 각국에서 일고 있는 국민들의 민주화와 경제개혁 요구와 관련, 이에대한 북한과 중국양국의 공동대응 방안강구
  - 北京의 天安門사태와 관련한 양국입장의 정리
  - 내년 北京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자세 타진
  - 최근 韓中 양국간에 두드러지고 있는 무역문제등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음.

< 11月 7日 >

폴란드, 공산당 파산 선언

- 폴란드공산당(통일 노동자당)은 공산당과 사회주의의 「파산」을 선언하고 새정당의

설립을 요구했음.

<11月 7日>

中國, 對北韓 경제원조 삭감

- 中國은 국내 경제사정을 이유로 9월부터 北韓에 대한 원유·석탄등 경제원조를 삭감했으며 金日成의 訪中목적중 하나는 삭감된 경제원조를 원상 회복시키는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믿어진다고 최근 北京에서 돌아온 中國소식통이 전했다.
- 中國과 北韓은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7월에 개최된 平壤세계청년축제때 中國은 北韓의 요청으로 중국돈 5천만元(약85억원) 상당의 설탕등 물자를 지원한 바 있음.

<11月 7日>

在美教授, 남북한 통일안 타협가능성 시사

-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의 金永鎮교수는 남북한은 각자의 통일방안을 수정, 타협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최근 시저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前차관보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김교수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한이 타협점을 찾기가 지에는 몇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쌍방이 미국 소련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제법상 「두개의 국가」를 성립시켜 국가승인으로 가도록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남북한의 지도자가 분단을 결정적으로 법제화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무역 및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남한은 소련 및 중국과 그리고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를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그는 정부간 대화형식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한 및 미국간의 이른바 3자회담을 주장해 오고 있으나, 미국은 이보다 오히려 남북한 당사자 회담과 미·북한회담이란 「두개의 2자회담」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1月 8日>

板門店 북측기자, 金日成 訪中 사실 확인

- 북한 주석 김일성이 지난 5일 중국을 방문한 것이 북측 인사에 의해 확인됐음.
- 8일 열린 南北赤十字 제4차 실무접촉을 취재하기 위해 板門店에 나온 한 北測 기자는 「金日成주석이 비공식으로 中國을 방문했다. 그러나 平壤언론기관등을 통해 보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1月 9日>

西獨, 東獨에 대규모 경제원조 제의

- 헬무트 콜 서독총리는 동독 공산지도자들이 40년간에 걸친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포기하고 서구식 민주주의를 채택한다면 동독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그러나 동독이 시장경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서독의 경제원조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1月 9日>

南北 赤十字會談 4차 실무접촉

- 남북적십자 제4차 실무대표 접촉이 8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음.
-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규모·방문지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예술단 규모문제와 TV실황중계 문제에 대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 오는 12월 8일에 교환하기로 합의했던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방문의 실현여부가 불투명해졌음.
- 쌍방은 의견차이가 나는 문제를 오는 13일 제5차 실무접촉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음.

<11月 9日>

金日成, 한국 不承認 중국 同意 얻어

- 金日成의 中國방문은 「두개의 한국」저지에 기본목적이 있었다고 日本교도(共同)통신이 중국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음.
- 이 소식통은 金日成이 중국 최고지도자 鄧小平 및 江澤民 총서기와 만나 蘇聯과 동구권에서 일고 있는 「두개의 한국」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이 한국을 승인하지 말도록 요청,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음.

< 11月 10日 >

北韓, 3자회담 연내 개최 제의

- 북한은 9일 한반도 비핵지대화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 및 북한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올해안에 제네바나 「서로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자고 외교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제의했다고 내외통신이 밝혔음.
-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관련해 이같은 문제를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있는 미-북한 5차외교 접촉에서 미국쪽에 제의한 바 있다고 밝혔음.

< 11月 10日 >

東獨, 국경 全面開放

- 東獨은 9일 베를린장벽을 포함한 전국경을 즉각 개방, 1961년 베를린장벽 설치후 가장 극적인 對西方 개방조치를 단행했음.

< 11月 10日 >

蘇聯, 非共產 東獨 수용

- 蘇聯은 東獨지도부의 개편을 환영하면서 동독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동독에 非공산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수락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음.

<11月 10日>

鄧小平, 중국 軍事委 主席 辭任

- 中國의 최고실권자 鄧小平이 자신의 마지막 공직인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임, 지난 60여년간에 걸친 「당에 대한 봉사」를 공식마감했으며 앞서 그가 선택한 후계자 江澤民 공산당총서기가 군사위 주석직을 승계, 黨과 軍의 최고지도자로 올라섰음.

<11月 11日>

北韓, 社會主義 옹호

- 北韓관영 언론들은 東獨등 동유럽에서 고조되고 있는 개혁의 물결에 맞서기 위한 宣傳戰의 일환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나섰다.
- 북한 공산당기관지 로동신문은 논평기사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에 나섰다.

<11月 11日>

蘇聯, 베를린 장벽 철파 統獨과 무관 주장

- 蘇聯정부는 東獨의 국경개방 조치에 대한 蘇聯측의 수용의사를 밝히고 그러나 현시점에서 兩獨간의 국경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獨逸의 재통일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음.

< 11月 12日 >

통일원 장관, 남북개선 東西獨式 無關 밝혀

- 李洪九 통일원장관은 東獨의 국경개방선언과 관련해 「이는 세계사의 흐름, 특히 유럽의 변화사에 있어 대단히 중대한 문제지만 남북한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李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독일과 같이 민족통합을 쉽게 이룰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북한은 근본적으로 우리체제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독과 같은 관계개선은 어렵고, 왕래에 대한 기본협정이라도 우선적으로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1月 12日 >

KNCC, 당국에 북한 기독교대표 접촉 승인 신청

-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KNCC·회장 김성수 주교)는 내년 2월 서울에서 열리는 이 협의회의 총회에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 고기준 회장등 북한의 목회자·신도들을 초청하는 문제와 관련, 통일원에 북한주민 접촉승인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 11月 13日 >

南北 赤十字會談 5차 실무대표 접촉

- 남북적십자 제5차 실무대표 접촉이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고향방문단 방문기간, 예술공연단 규모와 TV실황중계 문제등을 논의했다.

- 이날 실무대표 접촉에서는 예술공연단 규모문제를 놓고 南北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1일 6차 실무대표 접촉을 갖기로 하고 회담을 끝냈음.

<11月 13日>

政府, 남북대화시 북한주장 가능한 한 수용방침

- 정부와 민정당은 앞으로 남북대화에서 북한측 주장을 가능한 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對北자세에 유연성을 확대하고 통일원의 조사연구관련 예산도 대폭증액키로 했음.
-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함께 소련등 동구권의 민주화 추세를 감안, 앞으로의 남북대화에서는 盧泰愚대통령의 8·15선언을 기초로 북한의 자유개방과 인권·복지의 고취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음.

<11月 14日>

정부, 2元的 對北정책 추진 계획

- 정부는 동독의 국경개방등 최근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가 북한에 끼칠 영향과 이에 따른 남북한 관계와 관련, 적십자회담등 비정치분야에서는 종전보다 유연성을 더하되 체제에 관한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촉구하는 「二元的」인 對北정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月 15日>

정부, 北韓 천도교도 초청 승인

- 정부는 내년 4월 5일 천도교 창도일에 北韓의 교역자를 초청하기 위해 천도교 중앙

총본부가 신청한 북한천도교와의 접촉요청을 승인했음.

<11月 15日>

北韓, 國內여행 自由化 시행계획

- 북한이 내년 1월 15일부터 북한주민들에 대해 국내여행을 전면자유화 하기로 했다고 북한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 최근 북한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주교포사회의 친북한인사들에 따르면 북한은 동구 공산블록의 잇단 자유화 물결에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껴왔으며 더이상 폐쇄정책을 고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국내여행 전면자유화라는 획기적인 조치를 내린 것 같다고 전했다.

<11月 16日>

北韓, 韓·蘇접근 불만 표시

- 일본을 방문중인 야코블레프 소련공산당 정치국원겸 서기는 북한이 소련의 對韓접근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도이 일본 사회당위원장과 만나 자리에서 「韓·蘇관계개선은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북한을 설득하고 있으나 북한이 이를 납득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현재 이 문제와 관련, 소련측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11月 16日 >

南北高位當局者 會談 4차 예비회담 개최

-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제4차 예비회담이 15일 오전 10시 판문점 北側지역 통일각에서 열렸음.
- 이날 회담은 會議外的 문제로 공방전을 벌이던 종전과 달리 기초발언이 끝난뒤 곧바로 실질토의에 들어가 우리측이 본회담 의제문제와 수행원 숫자에 있어 상당한 양보를 했으나, 본회담의 명칭, 의제, 대표단 구성문제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제5차 예비회담을 12월 20일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다시 갖기로만 합의한 채 별 성과 없이 끝났음.

< 11月 16日 >

盧泰愚대통령, 東·西獨 변화 韓半島에 활용 당부

- 盧泰愚대통령은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주재, 「우리과 같은 냉전체제의 소산인 東·西獨간의 새로운 사태진전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을것」이라고 전제, 「관계부처는 東歐및 獨逸의 변화를 예의주시, 南北韓 통일문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음.

< 11月 16日 >

韓·체코, 무역 사무소 설치 합의

- 韓國과 체코는 15일 양국간 무역사무소의 교환설치에 합의했음.
- 이로써 韓國은 루마니아를 제외하고는 체코·유고·헝가리·불가리아·蘇聯과 수교

또는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루마니아와도 조속한 시일내에 무역사무소의 교환설치등을 추진할 예정임.

<11月 17日>

남북체육회담 4차회담 개최

- 90년 베이징 아시아 경기대회에 나갈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남북 체육회담이 16일 판문점 북쪽지역 통일각에서 열려 주요 쟁점이었던 호칭 문제에 합의했음.
- 이로써 남북한 양쪽은 네차례의 회담을 통해
  - 단가(아리랑)
  - 단가(흰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
  - 단일팀 이름(코리아)에 완전 합의, 정치적 색채의 문제들을 타결짓고 실질적인 선수단 구성논의에 들어가게 됐음.
- 그러나 남북한 양쪽은
  - 단일팀 단장과 임원 선임문제
  - 공동추진 기구 및 추진기구 산하 공동사무국 설치문제
  - 구체적인 선수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는 24일 제5차 회담에서 계속 토의기로 했음.

<11月 17日>

美 연구소, 주한미군 1996년 1개 여단으로 감축 주장

- 미국의 전략 및 국제 문제 연구소 (CSCI)의 국제안보프로그램 부 책임자인 윌리엄 테일러 박사는 한국내의 反美감정과 의회의 압력등을 고려할때 우선 1개여단 규모의



주한미군을 앞으로 2~3년내에 철수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나아가 한국및 주변상황과 연계해서 주한미군 규모를 96년까지 1개여단이나 1개대대 규모로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음.

<11月 18日>

金大中총재, 南北 TV·라디오 상호시청 제안

- 金大中平民黨총재는 南北간 상호이해를 돕기위해 「南北韓 TV 및 라디오 상호시청을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음.
- 이어 그는 「盧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제안한바 있으며 盧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소개하고 「北韓은 이를 적극 수용해 南北간 불신의 장벽을 제거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11月 21日>

美國, 한국 北方정책 지지

- 도널드 그레그 駐韓美대사는 「미국은 盧泰愚대통령의 북방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미국은 중국, 소련, 동유럽은 물론, 北韓과 韓國의 관계개선이 지역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한미 두 나라는 북으로 부터의 침공을 더이상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을때 까지 군사적으로 확고한 태세를 취해야 하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를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는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11月 21日 >

천도교, 북한 천도교인 20명 초청

- 천도교는 내년 4월 5일 천도교 창도기념일에 북한 천도교인 20명을 초청했음.
- 이같은 제의는 천도교 남북교류 추진위에서 지난달 13일 결의돼 지난 11일 국토통일 원으로 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11月 21日 >

남북적십자회담 6차 실무접촉

- 남북적십자는 21일 상하오에 걸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실무 대표접촉을 갖고 오는 12월 8일 갖기로 했던 고향방문단의 상호 방문 및 예술단공연에 대해 5시간여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계속했으나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음.
-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은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의 총규모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북측의 주장을 전면수용했으나 북측이 세부내용에 대한 종전 입장을 고집해 진전을 보지 못했음.
- 양측은 오는 27일 제7차 실무접촉을 갖고 절충을 계속기로 했으나 연내 방문은 어려울 전망이다.

< 11月 22日 >

北韓學者, 對外經協 필요성 강조

- 일본 오사카에서 20, 21일 양일간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북한 학자 5명이 참가, 북한의 對外경제협력 정책을 설명했다.

- 이 심포지엄에서 金日成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 金載段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해 가면서 대외경제교류를 보다 확대발전 시킴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친선과 협조를 신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對外경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金교수는 北韓의 對外경제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있어 특히 東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조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北韓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국가에도 교류의 문을 닫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11月 23日〉

강현두교수, 남북방송 교류방안 제시한 논문발표

-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방송교류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음.
- 서울대 강현두 교수는 「통일지향의 방송을 위하여」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5단계의 남북방송 교류 방안을 제시했음.
  - 1단계는, 상대방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남·대북방송의 이념 동원을 중지해야 하고,
  - 2단계는, 남북한 모두 상대측 방송의 교란 작업을 중지하고
  - 3단계는, 「통일시간대」를 편성하여 쌍방 모두 특정프로그램 시간대를 상대측 방송에 그대로 보여주고
  - 4단계는, 방송제작자의 인적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제작이 이뤄져야 하며
  - 5단계로서는, 「통일채널의 확보 및 통일방송국의 수립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임.

<11月 23日>

등소평, 북한에 남북대화 탄력대응 권유

- 덩샤오핑(鄧小平)등 中國지도자들은 지난 5~7일 사흘간 北京을 방문한 北韓주석 金日成에게 韓半島의 안정과 긴장완화를 위해 北韓측이 남북대화에 탄력적으로 임해주기를 간곡히 권유했다고 홍콩의 소식통이 전했다.
- 이에 대해 金日成은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필요성및 盧泰愚대통령과의 조진부 회담용의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이들 수뇌 회담에서 중국측은 북한의 합리적 통일방안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지지를 거듭 표명하면서 한국과 정부차원의 공식적 관계는 맺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月 24日>

蘇 학자, 남북한 UN동시가입 지지

- 蘇聯과학원산하 세계경제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블라디미르 마르티노프所長은 「남북한은 모두 독립적으로 유엔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최근 한국정부가 제시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음.
- 또한 그는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관해 언급, 남북한 쌍방이 다 각각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1국가, 2체제」의 모델이 남북한의 현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데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르티노프所長은 또 한국에서 美軍철수가 이뤄져야겠지만, 한국에서의 美軍철수가 韓·蘇간의 어떤 협정을 맺는데 필요조건은 절대 아니라고 지적, 한소관계의 증진에 駐韓미군의 주둔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음.

<11月 24日>

통일원, 고려대·북한대학 교류 승인

- 통일원은 高麗大가 제출한 金日成종합대학, 金策공업종합대학, 平壤의학대학등 북한 대학과의 대학생 교류를 위한 북한주민 접촉승인 신청을 허가했음.
- 통일원은 또 가든출판사대표 金洙燁씨가 북한고대미술 사진자료를 수집키위해 일본의 조총련계 출판사「조선화보사」 사장과 접촉 하겠다며 제출한 북한주민 접촉승인 신청도 함께 허가했음.

<11月 25日>

南北 體育會談 5차회담 개최

- 北京아시안게임의 남북한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5차 남북체육회담이 24일 상오10시 板門店 우리측 지역인 平和의 집에서 열렸음.
- 이날 양측은 선수선발 방법과 선수단 공동위원회 구성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는 12월 1일 상오 10시 板門店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실무접촉을 갖고 구체적 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정키로 하는 한편 12월 22일 板門店 북측지역인 統一閣에서 제6차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하고 4시간 10분만인 하오 2시 10분 회의를 끝냈음.

<11月 25日>

盧泰愚대통령, 남북한 실질협력 추진의지 표명

- 유럽을 순방중인 노태우대통령은 스위스 로잔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남북한이 냉전의 장벽을 허물고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한 「북한이 반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협력해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의 동질성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11月 28日 >

#### 남북적십자회담 7차 실무접촉

- 남북적십자회담 제7차 실무접촉이 27일 상오10시 板門店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문제가 비공개로 논의됐으나 南北赤 양측은 예술단공연 내용을 둘러싸고 선전만 벌이다 아무런 성과없이 회담을 끝냈음.
- 이로써 남북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年内 교환성사는 끝내 무산됐음.
- 南北양측은 이날 차기회담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채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직통전화로 서로 연락키로 했음.

< 11月 29日 >

#### 통일원장관, 南北經濟協力基金 설치 검토

- 李洪九 통일원장관은 국회예결위 답변에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 이라고 밝히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 남북학생 교류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학생교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이미 정부가 慶熙大사학과 학생1백20명의 高句麗유적지 탐방 및 高麗大와 金

日成大 학생간의 교환방문건등을 승인한 것도 이같은 방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11日 29日 >

美軍部, 3개년 軍縮案 마련

- 美군부 지도자들은 軍병력 25만명과 3개 육군사단, 5개 공군비행단 및 62척의 해군함정을 오는 91년부터 94년사이에 단계적으로 대폭 감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3개년 군축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음.
- 내년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91회계연도부터 해당되는 이 군축계획안이 실현될 경우 美군사전략의 커다란 변경은 물론 해외에 배치된 병력, 함대 및 항공기의 규모나 위치에도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위상에도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11月 29日 >

남북국회회담 9차 준비접촉 개최

-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제9차 준비접촉이 29일 오전 10시 판문점 北側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려 본회담 형식과 의제에 관한 절충을 벌였으나, 「불가침 선언문제」를 의제중의 하나로 설정하자는데 합의한 것외에는 양측이 팽팽히 맞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음.
- 양측은 다음 제10차 준비접촉을 내년 1월24일 판문점 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갖기로 합의했음.

<11月 30日>

盧泰愚대통령, 美에 소련의 북한개방 협조요청

- 유럽을 순방중인 盧泰愚대통령은 런던에서 조지 부시 美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美蘇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북한의 개방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음.
- 盧대통령은 부시 美대통령에게 소련으로 하여금 북한이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말하자 부시대통령도 소련에 그렇게 요청하겠다고 답변했음.



# 12月動向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12月 1日  | 日本, 北韓 직접 접촉 시도          |
| 12月 1日  | 南北體育會談 1차 實務代表接觸         |
| 12月 2日  | 美·蘇 정상회담 개막              |
| 12月 4日  | 美·蘇 정상회담 폐막              |
| 12月 5日  | 南北故鄉訪問團 交換 無期 연기         |
| 12月 6日  | 政府, 統一研究院 설립 예정          |
| 12月 6日  | 盧泰愚大統領, 北韓 개방 촉진방안 강구 지시 |
| 12月 6日  | 政府, 획기적 南北經協 제의 예정       |
| 12月 6日  | 南北體育會談 2차 實務代表接觸         |
| 12月 7日  | 韓赤, 남북한 실무접촉 재개 촉구       |
| 12月 7日  | 駐韓美軍사령관, 주한미군 철수계획 없음 밝혀 |
| 12月 7日  | 통일원, 북한변호사 초청 승인         |
| 12月 8日  | 美誌논문, 韓美 방위조약 폐기 주장      |
| 12月 8日  | 韓·蘇, 領事關係 개시             |
| 12月 8日  | 美 東亞·太 차관보, 몰타회담 결과 설명   |
| 12月 9日  | 소련, 韓·蘇 영사처 기능 일부 제한 발표  |
| 12月 9日  | 李국방장관, 90년대 군축대비 지시      |
| 12月 11日 | 北赤, 南北赤十字會談 實務代表接觸 재개 제의 |
| 12月 12日 | 정부, 북한 기독교도 초청 승인        |
| 12月 13日 | 북한, 95 冬季 아시안게임 개최       |
| 12月 13日 | 美國, 팀스피리트 축소 불가피 언급      |
| 12月 14日 | 北韓, 동구개방 논평              |
| 12月 14日 | 北韓, 하산島 경제특구 설치          |

| 日 字     | 主 要 內 容                    |
|---------|----------------------------|
| 12月 15日 | 韓·蘇, 스포츠 定期戰 합의            |
| 12月 15日 | 南北體育會談 3次 實務代表接觸           |
| 12月 17日 | 美國, 주한미군 감축 검토             |
| 12月 18日 | 美紙,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 보도         |
| 12月 21日 | 통일원, 북한 연극인 초청 승인          |
| 12月 21日 | 南北高位當局者會談 5차 豫備會談 개최       |
| 12月 21日 | 董勳 前통일원차관 訪北               |
| 12月 22日 | 南北體育會談 10개項 완전 타결          |
| 12月 23日 | 北韓, 사회주의 선전 강화             |
| 12月 25日 | 英紙, 북한의 민중봉기 가능성 언급        |
| 12月 25日 | 금년 한해 남북교류신청 접수 총 37건      |
| 12月 27日 | 政府, 「南北韓通行協定」초안 마련         |
| 12月 28日 | 韓國·유고, 대사급 수교              |
| 12月 28日 | 북한, 30개국 대사 긴급 소환          |
| 12月 29日 | 北韓, 동구유학생 소환               |
| 12月 29日 | 김일성, 독자적 사회주의 노선 추진의사 표명   |
| 12月 31日 | 政府, 공산권 民間經協 창구 IPECK로 단일화 |

<12月 1日>

日本, 北韓 직접 접촉 시도

- 나카야마 다로(中産太郎)日本의상은 일본은 北韓과 직접대화를 하기 위해 제3국에서 북한 대사관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외무성은 앞으로도 제3국 대사관을 통해 현지 북한 대사관측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창구 개설에 응하도록 촉구 하겠다」고 강조하고 남북한 유엔가입문제에 대해선 남북 동시가입뿐 아니라 한국의 단독가입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12月 1日>

남북체육회담 1차 실무대표접촉

- 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 제1차 실무대표접촉이 1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나 그동안 의견접근을 보았던 선발전 장소·회수 문제만을 합의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음.
- 제2차 실무대표접촉은 오는 6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기로 했음.

<12月 2日>

美·蘇 頂上會談 개막

- 최근의 동구권 변화 및 동서 균축문제 지역분쟁등을 논의하기 위한 美·蘇간의 정상회담이 몰타에서 개최되었음.
- 미·소 정상간의 회담으로 동·서 냉전과 양 초강대국간의 불신과 반목을 청산,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짐.

<12月 4日>

美·蘇 정상 회담 폐막

- 부시 미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3일 몰타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동서 불신시대의 종식과 영구적 세계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시대」의 개막을 공동으로 선언했음.
- 미·소 정상은 이같이 공동선언을 한후 양국은 전략핵무기 감축등 군축협정체결을 위한 논의에 진전을 이룩했으며 지역분쟁의 정치적 해결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12月 5日>

南北故鄉訪問團 交換 無期연기

- 南北 적십자 실무수석대표 접촉이 4일 상오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열렸음.
- 50분간 진행된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 宋榮大수석대표와 북측 박영수 대표단장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이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방문단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추후 직통전화를 통해 계속 연락키로했음.
- 이날 수석대표 접촉은 북측 박단장이 우리측 宋대표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의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북측 박단장은 회담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음.

<12月 6日>

정부, 통일연구원 설립 예정

- 정부는 南北韓關係 개선및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장기정책을 개발, 수립하기 위해 통

일원산하에 통일연구원(가칭)을 설립키로했음.

<12月 6日>

盧泰愚대통령, 北韓개방 촉진방안 강구 지시

- 盧泰愚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 급변하는 공산국가의 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정책 입안이 시급하다고 지적, 북한의 개방화 유도 및 진일보한 對北方政策등을 위한 새로운 종합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음.
- 盧대통령은 특히「남북관계 개선과 북한개방촉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北韓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했음.

<12月 6日>

정부, 획기적 南北經協 제의 예정

- 정부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각종 남북회담과 남북한간 인적·물적교류의 돌파구를 열기위해 내년초부터 남북경제회담을 재개, 남북간 직교역을 실시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남북한간 관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실시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으나 북한이 최근 인적교류를 회피하고 있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남북간 직교역을 트기 위해 그 첫단계로 경제회담의 재개를 제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12月 6日 >

南北 體育會談 2次 實務代表接觸

- 남북 각 3명의 남북체육회담 대표들이 6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에서 2차 실무대표 접촉을 가졌음.
- 이번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선수훈련 방법에 합의를 하고 다른 의견차가 있는 부분은 3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토의키로 하고 회의를 끝냈음.

< 12月 7日 >

韓赤, 南北赤 實務接觸 재개 촉구

- 남적십자실무접촉 우리측 宋榮大수석대표는 北측 박영수대표단장에게 對北전화통지문을 보내고 北측은 공연내용을 변경해 다시 실무접촉에 응하라고 촉구했음.

< 12月 7日 >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철수계획 없음 밝혀

- 한미연합군 사령관겸 주한 미군사령관 루이스 C 메네트리 미육군대장은 국내보도진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병력수나 무기체계에서 한국을 능가, 한국보다 화력과 기동력이 뛰어나며 아직도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어 그는 「미의회에서 철군 및 감군 주장도 일고 있으나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군할 계획을 갖고 있지않다」고 밝혔음.



< 12月 7日 >

통일원, 북한변호사 초청 승인

- 정부는 李丙晷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 회장이 北韓 변호사 20명을 초청하기 위해 통일원에 제출한 北韓住民 접촉신청을 승인했음.

< 12月 8日 >

美誌論文, 韓美방위조약 폐기주장

- 한미방위조약의 폐기를 주장하는 논문이 美誌에 실렸음.
- 한국은 현저한 국력신장으로 더이상 韓美안보공약에 의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미국은 駐韓美軍을 철수시키고 韓美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대신 日本이 미군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GATO 연구소의 「독 반도」선임 연구원의 논문이 미국의 외교정책 계간지 포린 폴리시에 실렸음.

< 12月 8日 >

韓·蘇 領事관계 개시

- 우리나라와 소련 양국이 합의한 영사업무에 관한 효력이 8일부터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발표했다.
- 韓·蘇양국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양국간 영사기능 수행문제에 대해 협의를 갖고 외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영사처를 서울과 모스크바에 각각 두기로 합의했음.

< 12月 8日 >

美 東亞太차관보, 몰타회담 결과 설명

- 盧泰愚대통령은 솔로몬 미국무부 東亞太차관의 예방을 받고 몰타 美蘇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설명을 들었음.
- 솔로몬차관보는 이자리에서 「부시대통령은 몰타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蘇聯서기장에게 盧泰愚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 北韓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 韓國과 蘇聯관계를 증진하는등 韓國의 북방정책에 蘇聯이 협조하며
  - 蘇聯은 핵무기및 현대장비를 北韓에 공여치 말것을 부시대통령이 盧대통령을 대신해 고르바초프서기장에게 전했다고 밝혔음.

< 12月 9日 >

소련, 韓·蘇 영사처 기능 일부 제한 발표

- 바딤 페드필리에프 소련외무부 대변인은 對韓 영사관계 수립에 관해 언급, 양국 領事處는 기능상 일부 제한이 있을것이라고 말하고 영사처는 비자발급을 주업무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12月 9日 >

李국방장관, 90년대 군축대비 지시

- 李相薰 국방부장관은 90년대에는 남북한간에 군축문제가 본격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대한 대비책을 세우도록하는 한편, 국방업무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위해 적절

한 공개와 적극적인 대민홍보 노력을 경주하라고 全軍에 지시했음.

- 李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90년대에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은 군사대결 일변도의 사고방식만으로는 국방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완벽한 군사대비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융통성있게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12月 11日>

北赤, 南北赤十字會談 實務代表接觸 재개 제의

- 南北적십자 실무대표접촉 北韓측 단장 朴영수는 11일 오전 우리측 宋榮大수석 대표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고향방문단 교환문제 협의를 위한 8차 접촉을 내년 1월 22일 갖자고 제의해왔음.

#### <12月 12日>

정부, 北韓 기독교도 초청승인

- 정부는 12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KNCC) 權皓景총무가 내년 2월 KNCC 39회 총회에 北韓의 조선기독교간부등을 초청하기위해 신청한 北韓주민접촉 승인요청을 승인했음.

#### <12月 13日>

北韓, 95冬季 아시안게임 개최

- 북한이 오는 1995년 제3회 동계아시안게임을 개최케 됨.

-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는 인도네시아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이 OCA현장과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참가를 희망하는 쏘아시아 회원국을 초청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북한의 개최를 승인했음.
- 이로써 199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북한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12月 13日>

美國, 팀스피리트 축소 불가피 언급

- 韓·美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의 규모가 내년에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음.
- 피트 윌리엄스 美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해외기동 훈련의 참가 인원을 축소하는 대신 보다 나은 계획을 통해 훈련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동훈련 실시를 검토해왔다고 말하고 한·미간에 팀스피리트 훈련의 규모 축소문제가 공식 결정된 바 없으나 예산삭감 조치로 인해 팀스피리트훈련 규모 축소문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12月 14日>

북한, 동구개방 논평

- 北韓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東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기초로 자본주의의 승리를 논하는 것은 하나의 계산착오라고 주장했음.

< 12月 14日 >

북한, 하산島 경제특구 설치

- 북한은 한국·일본·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豆萬江 하산島 지구에 경제특구를 설립키로 이미 결정했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인 大公報가 보도했음.

< 12月 15日 >

韓·蘇, 스포츠 定期戰 합의

- 내년부터 韓國·蘇聯 스포츠 定期戰이 열리게 됨.
- 蘇聯정부 초청으로 蘇聯을 방문한 후 귀국한 金滌 체육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매년 양국간 종목별 정기전을 개최하는 등 스포츠교류를 본격화 하기로 니콜라이 루사크 蘇聯 체육부장관과 합의했다」고 말했음.

< 12月 15日 >

남북체육회담 3차 실무대표접촉

- 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3차 실무대표접촉이 15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선발전을 공개키로 합의하는 등 남한측이 제시한 10개항 가운데 5개항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여 지지부진하던 체육회담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
- 양쪽 대표는 이날 그동안 단일팀 구성의 큰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 선수단 단장제
  - 공동사무국 설치 장소

- 선발전 공개여부 등 중요사항을 논의한 결과 북한쪽이 남한쪽 안을 받아들여 선발을 공개키로 합의, 진전을 보였음.
- 양측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6차 본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 12月 17日 >

美國, 駐韓 美軍 減縮 검토

- 미국은 駐韓보병 제2사단 약3만명과 駐日 제9군단 사령부 요원등 육군병력 3만5천명을 알래스카로 철수시켜 駐韓미군을 여단규모인 1만명선으로 축소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하는 전력 재배치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美대평양군 사령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음.
- 미국은 駐韓미군을 축소하더라도 전투물자 사전비축기지로서의 기능은 유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12月 18日 >

美紙,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 보도

- 미국방부는 소련군의 감축에 대비, 유럽주둔 미군감축에 관한 4개의 대안을 마련한데 이어 주한미군을 비롯한 태평양주둔 미군감축문제에 관해 검토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紙가 보도했음.
- 이와관련 워싱턴의 군사 소식통들은 부시행정부는 주한미군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주한미군을 형식적으로 적게는 2천명에서 많으면 5천명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 12月 21日 >

통일원, 북한 연극인 초청 승인

- 통일원은 민중극단(대표 정진수)이 남북연극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신청한 북한 연극인 초청을 승인했음.
- 민중극단은 지난 11월 연극「계사니」(이근삼 작)의 북한공연신청을 통일원에 내면서, 이 작품의 북한공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북한 연극인의 초청도 요청했음.

< 12月 21日 >

남북고위당국자회담 5차 예비회담 개최

- 20일 板門店에서 열린 南北고위 당국자회담을 위한 제5차 예비회담에서 南北韓 양측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본회담의 명칭·대표단 구성·수행원수등에 극적인 합의를 보았음.
- 양측은 내년 1월 31일 板門店 北側지역인 통일각에서 제6차 예비회담을 갖고 최종 절충을 벌이기로 하고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 초안을 놓고 실무 문제를 토의키로 했음.

< 12月 21日 >

董勳 前 통일원차관 訪北

- 日本에 거주하고 있는 董勳 前통일원차관이 지난 10월 北韓을 방문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음.
- 아사히신문은 董씨가 북한 사회과학원의 초청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6일까지

평양을 방문, 북한학자 및 지식인들과 통일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 12月 22日 >

南北體育會談 10개項 완전타결

-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6차 남북체육회담에서 지금까지 협의해온 10개 기본사항이 완전타결돼 남북한 단일팀 출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22일 상오 板門店북측 통일각서 열린 제6차 남북체육회담에서 남북한 양측은 그동안 미결사항이었던 단장선임방법, 공동사무국설치 장소문제, 선수단명칭의 중국어표기, 채점종목의 세부종목별 인원배정등 4개항에 합의함으로써 현재까지 제기됐던 10개 기본 사항을 모두 타결했음.
- 양측은 오는 1월 10일 쌍방당국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보장할 장치 강구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갖는 한편 제7차 본회담을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했음.

< 12月 23日 >

北韓, 사회주의선전 강화

-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까지 붕괴되는등 東歐圈의 거대한 변혁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관영언론 매체들을 통해 多黨制와 이념수정 및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비난하면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對內선전을 시작했음.
- 일본의 라디오 프레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당기관지 로동신문은 제국주의의 도전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평양방송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전했다.
- 日本의 라디오프레스는 북한관영언론들의 이같은 보도는 북한이 최근 東歐에서 일고



있는 변혁에 대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12月 25日 >

英紙, 北韓의 민중봉기 가능성 언급

- 英國의 가디언紙는 北韓에는 아직 큰 내부소요가 있는것 같지않고 국민들 또한 의견 상 순종적인 것 처럼 보이나 루마니아의 전례로 보아 기회만 온다면 북한국민들도 봉기할지 모른다고 전망했음.
- 이 신문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축출됨에 따라 중국·북한·쿠바등의 공산체제는 더욱 고립된 가운데 수세에 몰리고 있다면서 北韓의 보다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는 金日成왕조와 당내 반대파간의 내부 엘리트투쟁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고 보도했음.

< 12月 25日 >

금년 한해 남북교류신청 접수 총 37건

- 지난6월 南北교류협력 지침이 발표된 이후 관계당국에 접수된 南北교류 신청건은 모두 37건이며 이중18건이 승인됐고 12건이 불허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음.

< 12月 27日 >

정부, 「남북한 통행협정」 草案 마련

- 정부는 南北住民들이 板門店을 통해 서로 상대지역을 年2회 최고60일까지 방문체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南北通行에 관한 一般合意書」(통행협정) 초안을 마련,

내년초 北韓측에 체결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이 通行協定案은 1972년 東西獨간에 체결됐던 통행협정을 기본모델로 한 것으로 南北韓간의 人的교류를 제도화 하기위한 최초의 對北제의가 될 것이며 통행협정체결은 90년도 통일정책의 최대역점 사업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 12月 28日 >

韓國 · 유고, 대사급 수교

- 韓國과 유고 양국정부는 대사급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음.
- 우리나라가 공산권국가와 공식수교한 것은 지난 2월1일 헝가리, 11월1일 폴란드에 이어 세번째이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수교국은 1백34개국이었음.

< 12月 28 >

北韓, 30개국 대사 긴급 소환

- 최근의 東歐사태에 충격을 받은 북한은 각국에 파견된 大使들을 평양으로 소환, 긴급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음.
-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인민군 청년간부대회를 열고 젊은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 공작등을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12月 29日 >

北韓, 동구유학생 소환

- 北韓은 東유럽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 국내에 파급될 것을 우려, 이들

국가에 파견중인 유학생을 속속 불러들이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했음.

- 이 신문은 東歐 각국에 유학중인 북한 학생은 약8백명 정도라고 밝히고 이중 정확히 몇명이 귀국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북한이 갑자기 유학생들을 귀국시키기 시작한 것은 東歐 각국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 유학생을 통해 국내에 파급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음.

<12月 29日>

金日成, 독자적 사회주의 노선 추진의사 표명

- 金日成은 朝日우호 촉진의원연맹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東歐정세와 관련, 「東歐제국에서는 관료가 실권을 쥐고 자신들 마음대로 한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으며, 우리는 인민속에서 인민과 함께 하기때문에 다른나라의 사회주의와는 노선을 달리한다」고 말했다고 日本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음.

<12月 31日>

정부, 공산권 민간經協창구 IPECK로 단일화

- 정부는 30일 사회주의 국가와의 민간경제 협력위원회는 수교여부에 관계없이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가 전담케 하기로 결정했음.
- 다만 지난 11월 大韓商議와 헝가리商議간에 설치된 민간경제협력위는 예외로 인정, 大韓商議가 맡아 운영키로 했음.

